▢ 행사개요

행 사 명 : 동학 천도교 그리고 3.1운동

주 제 : “역사의 빛, 미래의 길” 천도교를 통해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잇다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10:00~16:00

장 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주 최 : 천도교중앙총부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프로그램

일자	시간		프로그램		비고
12월 15일 (금)	10:00 ~ 10:30	30	개회식	- 개회사 : 임형진 (동학학회 회장) - 대회사 : 박상종 (천도교 교령) - 축 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축 사 : 정문헌 (종로구청장) - 축 사 : 최종수 (KCRP 대표회장)	진행자. 좌장 **나행주** (건국대)
	10:30 ~ 11:00	30	주제 1	**현대 탑골공원의 성역화문제와 천도교** - 발표자 :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 토론자 : 허채봉 (동학농민혁명부산기념사업회)	
	11:00 ~ 11:30	30	주제 2	**근대시기 탑골공원과 천도교** - 발표자 : 장우순 (성균관대학교) - 토론자 : 김영진 (경희대학교)	
	11:30~13:00		점심식사		
	13:00 ~ 13:30	30	주제 3	**동학 천도교 - 정신과 이념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안외순 (한서대학교) - 토론자 : 송봉구 (영산대학교)	좌장 **박세준** (덕성여대)
	13:30 ~ 14:00	30	주제 4	**동학 천도교 - 종교성을 중심으로** - 발표자 : 박병훈 (원광대학교) - 토론자 : 김남희 (카톨릭대학교)	
	14:00~14:10	10	중간 휴식시간		
	14:10 ~ 14:40	30	주제 5	**3.1운동을 준비한 천도교** - 발표자 : 성주현 (청암대학교) - 토론자 : 조성운 (동국대학교)	좌장 **박세준** (덕성여대)
	14:40 ~ 15:10	30	주제 6	**북한 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 발표자 : 조규태 (한성대학교) - 토론자 : 박대길 (전북대학교)	
	15:10~15:30	20	중간 휴식시간		
	15:30~16:00	30	종합토론	**발표자 전원**	좌장 **임상욱** (숙명여대)

자료집 목차

03 개회사 임형진 (동학학회 회장)

05 대회사 박상종 (천도교 교령)

07 축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8 축사 정문헌 (종로구청장)

10 축사 최종수 (KCRP 대표회장)

12 발표 1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현대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와 천도교

30 토론 1 허채봉 (동학농민혁명부산기념사업회)
토론문

33 발표 2 장우순 (성균관대학교)
근대 시기 천도교와 3.1혁명-근대를 관통한 천도교의 '독립정신'

48 토론 2 김영진 (경희대학교)
토론문

50 발표 3 안외순 (한서대학교)
동학과 천도교: 이념적 계승성을 중심으로

64 토론 3 송봉구 (영산대학교)
별도 첨부

65 발표 4 박병훈 (원광대학교)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과 그 종교적 측면: 교리 체계화 과정을 중심으로

79 토론 4 김남희 (카톨릭대학교)
토론문

81 발표 5 성주현 (청암대학교)
'봉황각 49일 특별기도'를 중심으로 본 천도교의 3·1운동 준비과정

94 토론 5 조성운 (동국대학교)
토론문

96 발표 6 조규태 (한성대학교)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독립만세운동 전개 (1919~1920)

111 토론 6 박대길 (전북대학교)
토론문

개 회 사

동학학회 회장 임형진

안녕하십니까. 동학학회를 맡고있는 임형진입니다. 연말이라 공사다망하심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주최측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복지 등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많은 영역에서의 엄청난 노력과 더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혹은 기록이 있더라도 곡해하는 결과로 인하여 그 업적이 가려진 사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인 동학 천도교 그리고 3.1혁명이 그러한 사실의 대표적인 주제인지도 모릅니다.

164년 전 창도된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가 그러함을 한 명의 연구자로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130주년을 앞둔 동학혁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물론 갑진개화혁신운동과 천도교로 개칭된 이후에 전개된 민중 계몽을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들은 아직까지도 평가는 고사하고 연구 주제로도 언급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3.1혁명에서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인색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저와 같은 학자들의 무성의와 게으름을 들 수 있지만 자생적 사상이자 종교인 동학 천도교와 같은 우리 것에 대한 대사회적 인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것은 열등하고 왠지 촌스러움의 상징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류를 외치지만 우리 것이 빠진 외래종의 변이 형태가 아닌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한류 속에 우리의 고유의 정신과 얼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비록 동학 천도교가 근 현대사에 미친 영향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시각 교정을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천도교가 어떤 면에서 동학을 올바르게 계승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동학시대의 정신과 업적이 계승되었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3.1혁명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연구하고 나아가 3.1혁명의 발원지인 탑골공원에 대한 역사를 재조사함으로써 성역화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하여 교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박상종 천도교 교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옥고를 저술해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과 성의있는 토론에 임해 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교수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동학학회 회장 임형진

대 회 사

천도교 교령 박상종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꽉 차게 메꾸어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공사다망하심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님과 정문헌 종로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는 “동학 천도교 그리고 3.1운동”입니다. 그동안 3.1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시 교단 차원에서 전력투구를 하였던 천도교단에 대한 평가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미년인 1919년의 기록에 의하면 총인구 1,7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절에 천도교인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식민지 상태였던 조선 최대의 종단이 천도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신도의 숫자는 물질적, 정신적 세력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기미년 당시 3.1운동의 준비와 진행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종단은 천도교였습니다. 당시 교주이셨던 의암 손병희 성사께서는 천도교단의 모든 힘을 3.1 독립만세운동에 투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암 성사님은 만세운동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운동**이어야 하고, 오로지 독립만세만을 외치는 **일원적 운동**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비폭력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른바 3.1운동의 3대 원칙은 이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동참할 세력을 모으니 개신교와 불교계가 호응하여 종교연합적 성격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화합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최대 종단이었던 천도교는 3.1 만세 시위의 정신을 담은 기미독립선언서를 교단이 운영하던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비밀리에 3만 5천부를 인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의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장엄한 3.1 독립만세운동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을 주도한 천도교단이 일제로부터 당한 탄압과 억압은 상상을 초월하

였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의암 손병희 성사는 서대문 감옥에서 초주검 상태로 석방되었지만 이내 환원하시고 말았으며 전국적으로 천도교단은 갑오년의 동학혁명 이래로 최대의 수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도교는 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민족과 국가가 있은 뒤에 종교가 있는 것이므로 또 다시 같은 순간이 닥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선배들의 이와 같은 희생이 제대로 현창되지 못함을 후배로서의 죄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주제의 하나인 탑골공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진즉에 성역화되어야 했을 장소임에도 아직까지 못 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탑골공원이 재조명되어 제대로 평가되고 나아가 3.1 운동에서 천도교단의 업적이 다시금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가장 위기에 처해졌을 때 동학 천도교는 늘 앞장서서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도교를 민족종교의 대표로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현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기라고 합니다. 천도교는 선배들의 뜻과 정신을 이어서 기꺼이 민족의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천도교 교령 박상종 심고

축 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동학과 천도교 그리고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박상종 교령님을 비롯한 천도교중앙총부 관계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내외빈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수운 대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민중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준 동학은 사람과 만물이 서로 돕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활동,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초석이 되었으며, 보국안민과 경천사상은 역사의 질곡마다 국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간과 사물을 공경하는 한울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동학의 가르침은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오늘날 대두되는 여러 사회 문제와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동학혁명 정신을 선양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종로구청장 정문헌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정문헌입니다.

3.1운동의 중심 종로에서 <동학, 천도교 그리고 3.1운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학학회 임형진 회장님, 천도교 박상종 교령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신문화의 큰 줄기, 동학농민혁명에서 출발한 천도교의 역사와 의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천도교의 정신과 이념을 통해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이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종로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탑골공원 성역화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도 마련돼 있어 기대가 큽니다.

천도교는 3.1운동이 민족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동학혁명의 맥을 이으며,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를 아우르며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탑골공원에 울려 퍼진 자주독립의 간절함은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여는 단호한 천명이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 중심 사상인 '인내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올해 3월 1일, 종로구는 '탑골공원 성역화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민족의 얼이 담긴 탑골공원을 다시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민의(民意)의 중심지였던 그 때의 공원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 정신이 담긴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 자리와 같은 깊이 있는 논의와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세미나가 대한민국 미래 가치 창출에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로구 또한 세계의 본(本)이 되는 우리식 고도(高度)현대화의 구현 즉 '종로모던'을 하나씩 실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KCRP 대표회장 최종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3·1운동은 일제의 강압통치 아래서도 민족정신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린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민족의 공통된 소망으로 자리잡았으며,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국제사회에까지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긴 세월이 흘러도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 속에 자랑스런 일로 남을 것입니다.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3인 가운데 천도교인이 15분이나 되는 것은 3·1운동이 사실상 천도교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또한 당시 천도교가 얼마나 거대한 흐름이었는지를 알게해 줍니다. 천도교가 민족의 종교, 깨어있는 종교였음은 물론 많은 선각자들이 천도교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숙연해 집니다.

내년이면 탄신 200주년이 되는'수운 대신사'가 남긴 가르침이 불과 30여년만에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전국적 항일항쟁으로 불타오른 것은 대신사의 가르침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해월 신사'의 포덕이 개벽을 향한 민족의 열망을 하나로 엮어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기미년 그날로부터 한 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3·1정신은 우리 민족의 정신 속을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천도교가 동학과 3·1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민족의 한 사람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학의 근본정신은 무엇이며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긴 시간동안'사람이 곧 한울님'이라는 人乃天 사상을 가슴에 품고 개벽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천도교단과 교인들의 삶도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와함께 천도교가 종로구청과 함께 탑골공원을 3·1운동의 성지로 조성하는

성역화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천도교는 성역화 사업도 인내천 사상과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하는'事人如天'의 정신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자연만물과 한울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성역화 사업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져 탑골공원이 3·1운동을 기리는 우리민족의 성지, 시민의 진정한 휴식처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민족의 일원으로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성균관장 최 종 수

발표 1

현대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와 천도교

-전두환 정권기(1981-1987년)을 중심으로-

신 운 용 (안중근평화연구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탑골공원 정비 사업과 성역화 문제 제기(1981-1984년)
3. 민주화투쟁의 동력으로써 3.1혁명과 천도교의 의미(1985-1987년)
4. 맺음말- 천도교가 탑골공원 성역화를 주도하기를 바라며

1. 들어가는 말

한국 근대사는 크게 보면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의 군사 침략과 문화 침투에 맞서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척왜·척양의 기치를 들고 나선 대표적인 세력은 동학과 그 뒤를 이은 천도교였다. 이점에서 동학·천도교는 민족주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 천도교는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이라는 당면한 시대과제 해결을 위해 처절한 구도의 길을 걸은 최제우 대신사가 개창한 종교이다. 그는『용담유사』「안심가」에서 일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읊었다.

가련하다 가련하다/아국 운수 가련하다
전세(前世)임진(壬辰)몇해런고/이백사십 아닐런가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怪疾) 운수/다시개벽(開闢) 아닐런가
요순성세(堯舜聖世) 다시 와서/국태민안(國泰民安) 되지마는
기험(崎險)하다 기험하다/아국 운수 기험하다
<u>개 같은 왜적놈아</u>/너희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下陸)해서/무슨 은덕 있었던고
전세(前世) 임진(壬辰) 그때라도/오성(熬城) 한음(漢陰) 없었으면
옥새 보전(玉璽保全) 뉘가 할꼬/아국 명현(名賢) 다시 없다
나도 또한 한울님께/옥새보전 봉명(奉命)하네
무병지란(無兵之亂) 지낸 후에/살아나는 인생들은
한울님께 복록(福祿) 정해/수명을랑 내게 비네
내 나라 무슨 운수/그다지 기험(崎險)할꼬
거룩한 내 집 부녀/자세 보고 안심하소
<u>개 같은 왜적놈이</u>/전세 임진 왔다 가서

술 싼 일 못했다고/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사람 뉘가 알꼬/그 역시 원수로다(밑줄: 글쓴이)[1)]

동학·천도교인들이 늘 암송하였고 지금도 천도교인들이 항상 되뇌고 있는 위의「안심가」는 최제우의 예언적 경고였다. 이는 일본이라는 존재가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원수'로 우리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 온 결과였다. 이러한 그의 시대 인식은 동학을 중심으로 한 당시 농민 세력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펼칠 수 있었던 사상적 힘이었고, 천도교 교단이 1919년 3.1혁명을 추동한 종교적 동력이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동학·천도교는 이와 같은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였다. 이처럼 동학·천도교는 광범위한 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이다.

천도교의 종교사상(평등사상)은 한국사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벽시켰다. 근대성이란 자유·평등·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근대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천도교가 없었다면 한국사의 자주적 근대성 확립이 어려웠음을 사사하는 것이다.

한국사에서 근대성이 폭발적으로 발현된 사건은 동학·천도교의 종교 이론을 바탕으로 한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과 1919년의 3.1혁명이었다. 특히 대신사 최제우가 제시한 '시천주(侍天主)'의 시자(侍字)를 최시형 신사는 각천주(覺天主)로, 손병희 성사는 각천주지의(覺天主之意)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시천주(내유신령/內有神靈·외유기화/外有氣化)를 믿고 천주를 모시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하느님(하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이는 민족독립국가 건설이라는 한국 근대의 시대정신(천주지의) 구현을 뜻하는 것이다. 교정쌍전(敎政雙全)을 핵심 교리로 받들고 있던 천도교인들이 민족독립투쟁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내세가 아니라 바로 현세에 천국을 건설하고자 한 천도교인들의 종교적 지향성은 한국 근대사를 만든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바른 정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천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바른 정치란 두 말 할 것 없이 보국안민으로 구현되는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병희는「대고천도교출원(大告天道敎出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하였음을 알리면서 그 종지·강령·목적·윤리를 천명하였던 것이다.

> 도즉천도(道則天道) 학즉동학(學則東學)이니 즉 고지동학(古之東學)이 금지천도교(今之天道敎), 종지는 인내천이요 강령은 성신쌍전(性身雙全) 교정일치(敎政一致)요, 목적은 보국안민·포덕찬하·광제창생·지상천국이요, 윤리는 사인여천이요, 수행도덕은 성신경이라[2)]

이처럼 천도교는 정치개혁(교정일치)을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천도교는 3.1혁명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권회복 이후 각천명주의(覺天主之意)와 교정상존(敎政雙全)라는 천도교의 핵심 교리는 현실적으로 크게 발현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근대의 천주지의는 민족독립국가의 건설이었다면, 현대의 천주지의는 크게 보면 민주화, 남북통일, 경제발전, 복지·인권 향상, 환경보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정신(천주지의)을 구현하는데 현대 천도교가 얼마나 진력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글쓴이는 '탑골공원 성역화 발기인회'가 2023년 9월 14일 연「답골공원 성역화를 위한

---

1) 천도교중앙총부,『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포덕 133년(1992), 159-161쪽.
2) 조기주,『동학의 원류』,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2, 230쪽.

학술회의」에서 「현대 탑골공원의 변천과 성역화의 의미Ⅰ-국권회복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기(1945.8.15.-1979)를 중심으로-」을 발표하였다.[3] 오늘 발표되는 이글은 앞서 발표된 글의 후속 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의 글에서 글쓴이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탑골공원을 완벽하게 소외시켰고, 심지어 탑골공원의 3.1혁명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탑골공원의 천도교 역사도 완벽하게 제거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천도교 교단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탑골공원의 천도교 역사 '말살'에도 거의 대응하지 못하였다.

글쓴이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기 탑골공원 성역화 문제를 천도교와 관계하여 살펴보는 데 이글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글쓴이는 근대 역사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천도교의 역사가 재조명 받고, 또 다시 천도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탑골공원 정비 사업과 성역화 문제 제기(1981-1984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군사독재 권력은 몰락했다. 박정희의 대를 이은 전두환은 1981년 8월 27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군사정권의 연장은 탑골공원에도 충격을 주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1980년 3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 열린 3.1절 제61주년 기념식에 최규하 대통령, 삼부 요인을 비롯한 국무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김홍일 광복회 회장 등 독립유공자들과 각계대표 5천여 명이 참석하였다.[4] 낮 12시 보신각에서는 정상천 서울시장과 서울시 제1,2 부시장, 시경국장 등이 참여하여 3.1절 기념 33번의 기념타종식이 열렸다. 이처럼 군사독재 정권의 3.1절 행사는 박제화되어 갔다.

33인유족회가 탑골공원에서 매년 개최하던 3.1절 기념행사가 1980년에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1979년 5월 20일 서울시가 5억의 예산을 들여 탑골공원을 새로 단장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확인된다.[5] 1979년 11월 28일 중수 공사를 시작한 탑골공원이 다시 열린 것은 1980년 4월 20일이었다.[6] 이 공사로 팔각정 삼일문의 단청이 보수되었고, 3.1독립기념탑의 탑신이 화강암으로 치장되었으며, 영문과 한글로 된 독립선언문이 오석(烏石)에 새로 새겨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탑골공원 중수사업으로 탑골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3.1기념탑의 군상(群像) 조각이 크게 훼손된 사실이 1980년 7월 알려진 사실[7]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3.1혁명과 탑골공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즉, 1963년 8월 15일 김종영 서울대 교수가 만든 3.1독립선언기념탑을 서울시가 탑골공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훼손시켜 삼청공원 창고에 방치하였던 것이다.[8]

1979년에는 탑골공원의 기념탑이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소개되고, 3.1절 우표에 넣

---

3) 신운용, 「현대 탑골공원의 변천과 성역화의 의미-국권회복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기(1945.8.15.-1979)를 중심으로-」, 『탑골공원 성역화를 위한 학술회의-백서에서 국민으로-』, 탑골공원 성역화 발기인회, 2023.
4) 『동아일보』 1980년 3월 1일자, 「三一節 61돌-서울 등 전국서 紀念式」.
5) 『경향신문』 1979년 4월 30일자, 「파고다공원 重修 서울市, 5億 들여」.
6) 『조선일보』 1979년 4월 20일자, 「파고다公園 새 丹粧 오늘부터 開放」.
7) 『경향신문』 1980년 7월 14일자, 「3.1獨立선언 紀念塔, 撤去로 크게 破損」.
8) 위와 같음.

어 발행되는 등 탑골공원은 한국의 상징이 되었다.[9] 이와 같은 한국의 상징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던 3.1독립선언기념탑의 훼손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언론에 "서울시는 공원정화작업을 내세워 국민의 문화재인 기념탑을 철거해버렸으며, 공원 안에 새 동상을 세워 놓았다. 더욱이 작가나 문화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작업을 끝내버려 작가조차 철거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10]라고 보도되는 등,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11] 이처럼 탑골공원의 동상과 기념탑의 철거는 그 복원 논의로 이어지는 등[12]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80년 개현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천도교는 헌법전문에 '인내천'· '사인여천'이 3.1혁명정신이자 천도교의 본질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아닌, 천도교 일부 신도(최승제 도정/崔乘濟 道正)가 주도한 것이다.[13] 이와 같이 3.1혁명과 천도교의 사상을 헌법에 구현하려는 천도교 인사들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1980년 3.1절을 기해, 천도교는 상오 11시 중앙총부를 비롯하여 전국 교당에서 3.1절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특히 천도교 총부는 중앙 교당에서 「천도교와 3.1정신」을 주제로 한 이항녕의 특강을 열었다.[14] 이처럼 천도교 교단은 매년 3.1절 기념행사를 교단 내의 공식 행사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 교과서 문제가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1980년 11월 23일 천도교 대표들이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어 일본 각료들의 내정간섭 발언을 규탄하였다.[15] 특히 이영복 교령(평북 태천군 출신/ 1922.11. 3-2022. 10. 18/ 1977. 4. 5-1983.4. 5 교령)은 1980년 11월 27일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무라오카 쿠니오(村岡邦男) 공사에게 "일본 정부의 대한내정간섭적인 발언과 일본 언론들의 편향보도 및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대우를 항의하는 결의문"[16]을 전달하였다. 이는 천도교의 핵심 교리인 보국안민의 발로로 평가된다.

또한 1981년 신년을 맞이하여 이영복 교령은 "오늘날 우리민족은 광복 36년간 제 것을 찾지 못하고 남의 것만 흉내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사상적 혼돈, 문화적 착란 속에서 미로를 방황해 왔습니다. (중략) 민족의 갱생은 주체사상에 있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내천 새진리·새신앙·새지도이념을 갖고 민족주체성 확립운동에 정열을 쏟아야겠읍니다. 이것이 곧 통일에의 지름길이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17]하고 하여 인내천의 진리로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호소하는 신년사를 한국 사회에 발신하였다. 물론 이는 1977년 4월 "앞으로 두렷한 사회참여를 통해 교단의 이미지

---

9) 『경향신문』 1979년 2월 28일자, 「체신부 3.1節 60周기념 우표 4백만장발행」. 1969년 체신부는 "성화를 향하여 우리겨레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 것을 상징화 시킨 3.1절 50주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10) 『조선일보』 1980년 7월 12일자, 「3·1독립선언 기념탑 撤去 美術界서 "모독이다" 반발」.

11) 『경향신문』 1980년 7월 18일자, 「파고다公園 기념銅像 철거에 붙여 玉石을 가릴 줄 알아야」; 『경향신문』 1980년 7월 22일자, 「"3.1독립紀念像 철거는 過失" 美協도 反駁」; 『조선일보』 1980년 7월 20일자, 「紀念像은 국민의 것이다」; 『조선일보』 1980년 7월 20일자, 「부숴버려진 紀念塔」.

12) 『조선일보』 1980년 8월 12일자, 「「3.1紀念塔」 復元 확정」; 『동아일보』 1980년 8월 13일자, 「파고다公園 「3.1운동 기념탑」 그 자리에 復元」.

13) 『동아일보』 1980년 1월 23일자, 「宗教界도 改憲 관심」.

14) 『조선일보』 1981년 2월 28일자, 「다채로운 기념행사 가져 宗教-文化界…3.1節맞아」.

15) 『매일경제』 1980년 11월 24일자, 「天道教人, 日本自省촉구 궐기대회 不當한 對韓內政간섭 등 규탄」.

16) 『경향신문』 1980년 11월 27일자, 「天道教 간부들 日大使館에 決議文 전달」.

17) 『경향신문』 1981년 1월 5일자, 「民族 주체성 확립에 정열 쏟아야」.

를 쇄신하겠다”[18]라는 교령 취임 일성과 보국안민·교정쌍전이라는 교령 자신의 교리 실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1년 3월 1일 오전 10시 제3회 만해 백일장이 탑골공원에서 열렸고,[19] 광복회는 독립운동자합동추모식을 탑골공원에서 거행하였다.[20] 이러한 가운데 1981년 3월 25일 민족대표 33인 중 마지막 생존자 이갑성이 93세로 숨을 거두었다.[21]

노인문제를 다루면 늘 탑골공원의 노인들이 거론되곤 하였다. 1981년 7월 경 탑골공원의 노인이 더욱 늘어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게 되었다.[22] 이제 노인문제와 탑골공원은 따로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갔다. 이는 탑골공원 성역화가 탑골공원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탑골공원의 문화의 장(場)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던 상황[23]에서 3.1혁명 선언의 현장인 탑골공원의 보존이 소홀하다는 주장이 1982년에 들어와 제기되었다.[24] 3.1혁명 63주년을 맞이하여 언론은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만세를 불러 3.1운동을 기폭시킨 현장인 안사동 명월관은 그 후 익살스럽게도 친일파의 괴수인 이완용의 집이 되더니, 지금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대형빌딩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끔 깔아뭉개어버렸다. 민중운동으로 기폭시킨 파고다공원만은 그 여건이 공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기념비나 동상이 세워져 있을 뿐 전국각지에 산재된 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알아보고 정신을 기릴 흔적이 거의 없다 시피하다.”[25]라고 하여 명월관의 훼손을 아쉬워하며 탑골공원 등 3.1혁명관련 유적 보존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1982년 3월 이영복 교령은 광복회(회장 김상길)가 주최한 1982년 3월 1일 ‘3.1독립운동희생선열추념식’에 참석하였다.[26] 천도교 교령이 탑골공원의 3.1절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객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천도교와 탑골공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27]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28], 탑골공원에서 8.15광복절을 맞아 광복회·대한노인회 등의 사회단체들, 한글학회 등 학술단체 등이 일제의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는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였다.[29] 특히 이해 8월 14일 천도교 2백여 교구 교역자대표와 재경 교인 등 신도 1천여 명은 중앙 교당에서 일본의 교과서 즉각 시정과 일본각료의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중앙교당에서 제119회 지일기념식을 갖고

---

18) 『동아일보』 1977년 4월 5일자, 「天道教 새教領 李永福씨 教壇의 健全化위해 注力」.
19) 『조선일보』 1981년 2월 28일자, 「3.1節맞아 宗教界 기념행사」.
20) 『경향신문』 1981년 3월 2일자, 「地方서도 祝賀宴 열어」.
21) 『매일경제』 1981년 3월 26일자, 「93개星霜을 民族愛로 일관 유일 生存者 「그날」 일깨워」.
22) 『동아일보』 1981년 7월 1일자, 「老人 정정한 高齡…오늘과 내일 <1> 「回甲청년」이 늘고 있다」.
23) 『경향신문』 1981년 10월 21일자, 「제10회 국화전시회 24일 파고다공원서」.
24) 『동아일보』 1982년 3월 1일자, 「63年前 3.1선언의 그 現場 보존 소홀하다」.
25) 『조선일보』 1982년 3월 2일자, 「3.1事蹟을 살려라」.
26) 『조선일보』 1982년 3월 2일자, 「3.1節 63돌 기념 행사」.
27) 물론 이영복 교령은 7월 28일 1백여 명의 천도교 신자들과 천도교대교당에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및 망언 규탄궐기대회’를 갖은 후 탑골공원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성명서를 낭독하고 가두에서 성명서1000여장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조선일보』 1982년 7월 30일자, 「日 教科書 왜곡 宗教界서도 규탄」). 이처럼 천도교 교단이 탑골공원에서 독자적으로 3.1절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지만, 탑골공원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28) 『동아일보』 1982년 7월 29일자, 「(사설) 日의 覺醒을 再促求함-반성의 빛 없다면 經協도 白紙化해야-」.
29) 『경향신문』 1982년 8월 4일자, 「사회단체 등 歪曲(왜곡)규탄 連日 확산 "日은 妄想서 잠깨라"」; 『매일경제』 1982년 8월 16일자, 「光復節 맞아 일제히 규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30] 등 천도교의 교리에 따라 일본 역사 침략에 적극 대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1혁명운동의 요람 탑골공원 주변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세들에게 장소에서부터 숭고한 교훈을 보여줘야 한다”[31]라는 제안이 독립운동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역사도 배우고 민족정기도 마실 수 있는 탑골공원의 유료화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 제기되기 하였다.[32]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탑골공원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의 심상용은 “헌법의 3.1정신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33]라며 탑골공원의 확장 정화를 주장하였다. 철거된 3.1독립기념탑 문제와 파고다아케이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되는[34] 분위기 속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였다.[35]

여기에서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윤재근(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의 이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900년 이후 제일의 사적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파고다공원이라고 답해도 될 것이다. 3.1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그 정신이 행동으로써 전국에 퍼지게 되었던 근원지가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우리에게 현대사의 성지인 셈이다.
>
> 그러나 그 성지가 해방 뒤에도 지금까지 수모를 당해 온 느낌이다. 종로 쪽으로 앞문만 빼꼼히 내놓고 보여서는 안 될 곳인양 갖가지 너절한 상점들이 그 외곽을 둘러싸고 감추어 왔다. 파고다공원 주변 바깥을 돌아보면 한심할 것이다. 튀김집들이 기름 냄새를 피우고 순대국밥집들이며 잡화상들이 아케이드란 이름으로 성지를 틀어막고 있다. 이제야 그 너절한 은폐물들을 철거하여 오가는 사람들이 그 성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지면(紙面)의 기사를 읽게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파고다공원이 역사의 현장으로서 성역화되리라 믿는다(중략).
>
> 몇 년 전 최초의 국민성금으로 조성되었던 3.1독립선언기념탑이 철거되었던 착오도, 파고다공원이 왜 성역인가를 몰랐던 탓으로 일어났던 셈이다. 이번에 철거됐던 그 기념탑이 제자리에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 국민성금으로 이루어진 3.1독립선언기념탑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의하여 성역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파고다공원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 쫓겨난 기념동상이 다시 제자리에 들어서고, 너절한 주변을 말끔히 치워서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훤하게 볼 수 있는 파고다공원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파고다공원은 값진 정신을 가르쳐 줄 것이다. 파고다공원은 보통공원이 아니다(밑줄: 글쓴이).[36]

이처럼 일본 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독립투쟁사를 상기시키고 민족정기 회복을 외치는 목

---

30) (『조선일보』 1982년 8월 15일자, 「"日교과서 고쳐라"」).
31) 『동아일보』 1982년 8월 11일자, 「獨立紀念館 추진」.
32) 『조선일보』 1982년 8월 11일자, 「萬物相」.
33) 『동아일보』 1982년 8월 27일자, 「파고다 公園 확장·淨化를」.
34) 『동아일보』 1982년 11월 6일자, 「豫決委·常任委 질의 답변 要旨 <5일> 地自制 20年 이상研究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1982년 11월 12일자, 「파고다 아케이드 15년만에 헐린다」.
35) 『경향신문』 1982년 9월 24일자, 「유치경쟁 자제 호소」; 『경향신문』 1982년 9월 3일자, 「MBC 獨立紀念館 모금방송에 뜨거운 호응」.
36) 『조선일보』 1982년 11월 18일자, 「파고다公園」.

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역사 공간’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3.1독립선업기념탑의 복원과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탑골공원을 흉물처럼 둘러싼 아케이드 철거는 서울시가 ‘서울 도심미관정비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가시화되었다.[37] 아울러 1983년 2월 26일 ‘반민주화’ 세력으로 평가받는 민정당의 원내총무이자 민족사관정립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찬은 “6월부터 2백억원을 투입하고 조경사업과 ‘사적공원’으로 정비에 착수하여 지정하고 민족정기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복원 미화키로 하겠다”[38]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탑골공원은 8년이나 지나서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겨우 1991년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었던 것이다.[39]

3.1혁명 64주년인 1983년 3월 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공식행사가 대통령이 불참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40] 같은 날 오전 11시 천도교인들은 서울 중앙대교당을 비롯한 전국 200여 교구에서 제64회 3.1운동 및 35회 3.1재현운동(남북분열저지투쟁)기념식을 열었다. 이후 교도 1천명은 손병희 동상을 참배하였다.[41] 이처럼 손병희 동상은 천도교인들과 탑골공원의 소통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앙교단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영복 교령은 “3.1운동은 독립운동일뿐만 아니라 민족혼의 부활운동으로 3.1정신을 평화적 남북통일에 되살리자”[42]라고 하여 남북통일의 사상적 추동력이 3.1혁명 정심임을 강조하였다. 이영복 교령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 광복회(회장 김상길)의 주최로 ‘3.1독립운동희생선열합동추념식’이 열렸다.[43] 이는 그동안 33인유족회가 주도하던 탑골공원 3.1혁명 행사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이종찬은 유족대표로 “선열들께서는 3.1운동을 통해 우리들에게 민족이 가야 할 기본노선을 제시해주셨다. 따라서 우리민족에게 있어 저는 3.1이 결코 어느 한 때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과거의 3.1이면서 현재의 3,1이요. 다시 그대로 영원한 미래의 3.1이기 때문이다”[44]라는 추념사를 통해 3.1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정권이 3.1혁명 정신을 짓밟고 권력을 강탈한 사실은 “선열들께서는 3.1운동을 통해 우리들에게 민족이 가야 할 기본노선을 제시해주셨다”라는 이종찬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독재 정권의 성립에 기여하고 요직을 맡은 그의 3.1혁명 관련 발언의 의미는 다각적 시각에서 앞으로 학계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45]

---

37) 『조선일보』 1982년 12월 28일자, 「서울都心美觀정비계획 마련」.
38) 『매일경제』 1983년 2월 28일자, 「파고다 史蹟 공원 지정」.
39) 『조선일보』 1991년 10월 31일자, 「전국 14개소 사적 문화재 지정」.
40) 『경향신문』 1983년 3월 1일자, 「全國서 紀念式」.
41) 『동아일보』 1983년 2월 25일자, 「64회 3.1運動 기념식」.
42) 『경향신문』 1983년 2월 28일자, 「천도교 31節 행사」.
43) 『동아일보』 1983년 2월 25일자, 「3.1운동 先烈 추념식 光復會」.
44) 『매일경제』 1983년 3월 1일자, 「독립선열 追念式 파고다 公園에서」.
45) 이종찬은 이인호·백선엽 등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권의 뉴라이트 세력이 추진한 ‘건국 60년기념사업’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회, 『건국60년기념사업백서-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2009, 356쪽). 이는 그가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는 2023년 광복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뉴라이트 세력(이인호)과 격한 대립을 하였다. 뉴라이트의 핵심 이론가로 전 서울대 교수이자 KBS 이사장을 역임한 이인호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행사로 진행한 60년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동지적 입장에 있던 그의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비판한 것(『뉴데일리』 2023년 6월 30일자, 「이종찬 광복회장에게…"1919년 건국설 거두시라" [이인호 칼럼]」)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종찬은 광복회의 공식입장(광복회, 「성명서-국민분열 야기, 성급한 판단..우려” 광복회, 국가보훈부 백선엽 장군‘친일행적’ 삭제 유감 성명」(2023년 7월 24일자,)과 다른 주장을 표명하기도 하

무엇보다 이 때 파고다공원이라고 불리던 탑골공원 명칭을 역사적 의미에 맞게 '3.1공원'으로 바꾸자는 의견[46]도 대두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탑골공원의 아케아드 철거[47] 등으로 탑골공원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나온 탑골공원 '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더욱 이러한 탑골공원 제모습찾기는 구체화되어 아케이드가 1983년 8월에 모두 철거되었다.[48]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일본 제국주의에 억눌려 있던 이 민족이 그들의 힘을 온 나라에 온 세계로 알리게 했던 3.1운동이 일어난 곳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으로 보아서도 서울 시내를 둘러보아도 이렇듯 도심지에 녹음이 우거질 수 있고 고궁과는 또 다른 공원이라는 점에서도 마땅히 예전의 공원그대로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49]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는 박정희식의 근대화론이 극복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성금으로 1963년 김종영이 만든 3.1독립기념비(아래 사진 1)의 훼손 사실이 알려진지 3년이나 지난 1983년 시점에도 삼청공원 창고에 방치된 채 복원되지 못한 상태였다.[50]

사진 1[51]

였다. 즉, 그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친일파로 규정한 백선엽에 대해서도 ""백선엽 장군은 있는 그대로 대접해야 된다.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있었던 시기가 1939년 봉천사관학교 들어가 소위 중위 때 6년간이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수십년 간 한국군에 있으며 다부동 전투 등 많은 공적을 세웠다. 공은 다 감춰놓고 과만 가지고 친일파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영남일보』 2023년 8월 14일자, 「이종찬 광복회장 "대구에 독립기념관 설립돼야 한다"」)라고 하여 백선엽이 친일파라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백선엽이 칠일파가 아니다"라는 전형적인 뉴라이트의 백선엽 옹호 논리이다. 그의 백선엽 옹호 주장의 진위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국회 증언(뉴시스 2023년 9월 6일자, 「광복회장 '백선엽 친일' 놓고 박민식·여당, 야당과 공방」)으로 보아 백선엽을 옹호하였음이 분명하다. 박민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민족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고에서 벗어나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종찬은 친일파 김일백을 지지한 인물(『안보뉴스』 2011년 7월 26일자, 「[인터뷰] "김백일 동상철거는 정부와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황덕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회장 인터뷰」)을 광복회 경기도 지부장으로 인명하여 광복회 회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광복회 정체성에 균열을 가하였다. 이에 광복회 경기지부 동두천엽합 지회 회장 최재국은 2023년 7월 31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에 보낸 공문에서 "1. 황덕호는 친일파의 동상을 세운 자로써 광복회의 정체성에 위배되므로 영빈관 초청에 반드시 배제시켜야 합니다. 2. 광복회장님께서 현재 산적해 있는 일을 해나감에 있어 (중략) 친일추종자의 문제는 결코 예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소란 또한 야기 시킬 수 있기에 충정의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라고 하는 등 광복회 경기지부장 황덕호 퇴진투쟁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광복회 회원들의 압력에 밀린 그는 2023년 9월 14일 황덕호를 사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이라며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반대(『프레시안』 2023년 8월 4일자, 「'尹멘토' 이종찬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이승만=김일성이냐?" 작심 비판-」; 『KBS뉴스』 2023년 8월 1일자, 「광복회장 "이승만 신격화 기념관 건립 반대"」)하던 이종찬은 앞뒤 설명도 없이 뉴라이트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적극 협력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앞서 한 발언을 부정하는 이해할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며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적극 돕겠다고 선언하였다(『뉴스 1』 2023년 8월 9일자, 「윤 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관심 가져달라"…광복회장 "돕겠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를 취한 그가 언론이론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한겨레 2023년 8월 21일자 「이승만기념관 돕겠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진심인가?」). 이처럼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의 선두에서 활동하며 권력 지향적 자세로 일관한, 뉴라이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된 그가 '탑골공원 성역화 발기인회'의 발기인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을 후세 역사가들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불문가지이다. 특히 민족독립투쟁을 정신적 유산으로 삼는 민족진영과 3.1혁명을 시일(侍日)로 기념하는 천도교가 이러한 현상을 방치한다면, 이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 시대교(時代敎)임을 자임한 천도교는 그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46) 『조선일보』 1983년 3월 2일자, 「파고다 公園 명칭 3.1공원이 좋아」.
47) 『조선일보』 1983년 7월 14일자, 「15년만에 철거되는 파고다 아케이드」.
48) 『동아일보』 1983년 8월 9일자, 「16년만에 헐린 파고다 아케이드」.
49) 『조선일보』 1983년 8월 25일자, 「파고다아케이드 撤去 시민휴식처 개발기대」.
50) 『조선일보』 1983년 9월 1일자, 「「3.1운동 喊声」 창고 幽閉 4년 기념銅像이 울고 있다」.
51) 『조선일보』 1980년 7월 12일자, 「3·1독립선언 기념탑 撤去 美術界서 "모독리다" 반발」.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으로 들끓었던 탑골공원은 다시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북한 소행의 아웅산참사[52]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연예인-영화인협회 회원 1천여 명이 탑골공원에 모여 “참사의 비분을 멸공통일로 승화시키자”[53]라고 외쳤다. 이처럼 탑골공원은 다양한 세력이 공유하는 역사공간으로 늘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하였다.

1983년 11월 레이건 미대통령의 방한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54], 탑골공원 입구의 아케이드가 철거되고 공원 북문과 서문이 복원되는 상황은 탑골공원 정상화의 기대감을 높였다.[55] 시설물(1.8m의 화강석담 280m, 부조판탑 12개 건립, 1천 6백구루 식목, 옥외차양시설 등)을 23억을 들여 설치하는 서울시의 대대적인 공원 정비[56] 공사는 약 7개월의 공사 끝에 11월말에 마무리되었다. 1984년 3월 1일 오후 2시 3.1절 제65회를 기하여 1만 2천 1백 평방미터(3천 6백 62평)의 탑골(파고다)공원이 그림 1과 사진 2와 같이 다시 개원되어 오늘에 이르렀다.[57]

그림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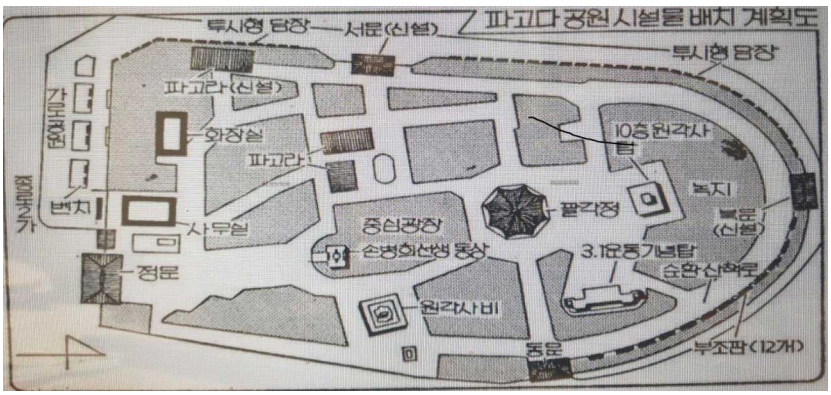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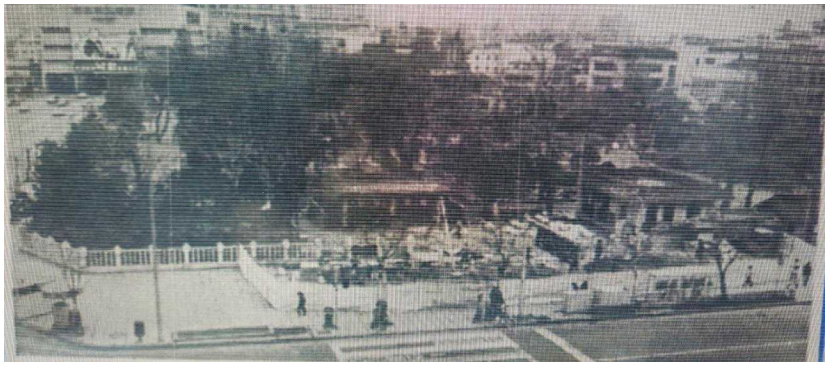


사진 2[59]

52) 『조선일보』 1983년 10월 10일자, 「大型 폭탄 원격조종 폭발 묘소지붕 수행원들 덮쳐」.
53) 『조선일보』 1983년 10월 13일자, 「"滅共(멸공)"…규탄물결계속」.
54) 『경향신문』 1983년 11월 11일자, 「韓·美동반 새시대를 연다」.
55) 『경향신문』 1983년 11월 11일자, 「餘滴」; 『경향신문』 1983년 11월 30일자, 「서울 1988년 來日의 空間을-되살아난 파고다 공원에 시미갈채가」.
56) 『동아일보』 1983년 11월 25일자, 「"이제야 先烈 볼 낯이"…새단장한 파고다公園」.
57) 『조선일보』 1984년 3월 1일자, 「파고다公園 오늘 개원」.
58) 『조선일보』 1983년 7월 20일자. 「파고다공원 새옷 입는다-파고다공원시설물배치계획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주관 3.1혁명기념식에 불참한 전두환 대통령이 1984년 3월 1일 탑골공원을 시찰하였다.[60] 이날 열린 '3.1운동희생선열합동추모식'에서 이종찬은 "정통성에 무관심했다. 우리는 오도된 식민지사관과 일제잔재에 완전히 파묻혀 혼란과 방황의 시대를 지내왔고 유리에게도 역사 청산의 과정이 없었다"[61]라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아울러 1984년 11월 17일 국회의장 채문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62] 순국선열·애국지사 합동 추모대제가 탑골공원 본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그러나 훼손되어 삼청공원창고로 옮겨진 기념비와 동상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 여론을 자극하였다.[63]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대응하고자 하는 등 사회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탑골공원 성역화는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단군성전건립위원회 준비위원 김종갑이 "공원의 명칭을 파고다공원에서 원래의 이름인 탑골공원으로 바꾸자"라는 주장[64]을 하는 등 탑골공원 정체성 찾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탑골공원 성역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 김연준이었다. 그는 1985년 2월 "제66주년 3.1혁명 기념일을 맞아 "김구 이동녕 선생과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등 한일독립투쟁의 대표적 구국영웅들을 한 곳에 모셔둔 효창공원 전체를 민족의 성역으로 보존해야 한다. <u>효창공원이나 파고다공원과 같은 민족적 명소를 성역화해</u> 단순한 행정적 경축일에 그치는 3.1절을 애국적 국경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65]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그는 백제화된 3.1절 기념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탑골공원과 효창공원의 성역화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현재도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1983년 4월 10일 천도교 교령으로 취임한 고정훈(高定勳/ 경남 남해군 출신/ 1920.4. 20-2012-1.26/ 1983. 4. 5-1988. 4. 5 교령)은 3.1혁명 주도, 어린이-부녀자 보호운동 등 천도교의 한국 민족사에 기여한 과거의 업적들을 상기시키면서 개혁적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66] 특히 그는 "천도교는 '시대교(時代敎)'이고 근본교리를 현실에 맞게 현대화하여 민족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종교로 탈바꿈 하겠다"[67]라는 포부를 밝혔다.

---

59) 『경향신문』 1984년 2월 25일자, 「"歷史의 장애물" 철거…파고다공원 제모습」.
60) 『경향신문』 1984년 3월 2일자, 「全大統領 현장시찰 "창경궁 복원工事 완벽하게"」.
61) 『경향신문』 1984년 4월 1일자, 「"歷史淸算의 과정이 없었다"」.
62) 『경향신문』 1984년 11월 18일자, 「殉国선열-애국지사 합동 追慕大祭 거행」.
63) 『조선일보』 1983년 9월 1일자, 「3·1운동 喊聲」 창고 幽閉 4년-기념銅像이 울고 있다」.
64) 『조선일보』 1984년 7월 29일자, 「"파고다 公園 이름 탑골공원 부활을"」.
65) 『동아일보』 1985년 2월 28일자, 「孝昌·파고다公園 聖域으로 만들자 人權聯 3.1節 성명」.
66) 『동아일보』 1983년 4월 12일자, 「"宗敎도 時代에 맞게 달라져야" 天道敎 새敎領 高定勳씨」.
67) 위와 같음.

여기에서 그가 천도교를 '시대교'라고 정의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천도교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3. 민주화투쟁의 동력으로써 3.1혁명과 천도교의 의미(1985-1987년)

1985년 천도교와 3.1혁명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68] 3.1혁명 66주년 기념식(3.1절)이 예년과 같이 정부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형식적'으로 열렸다.[69] 신민당 이민우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표출되었던, 억눌리고 응어리졌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신민당은 이 나라에서 모든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떳떳한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70]이라며 정부의 3.1절 기념식 초청을 거부하고서 광복회가 탑골공원에서 개최한 순국선열합동추모제에 참석하였다. 이는 3.1절을 주관한 정부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3.1절은 현실의 문제가 되고만 것이다. 즉, 과거 3.1혁명이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1960년 이승만 독재에 대한 저항이 3.1절을 계기로 고조되었듯이, 1984년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시위 장소로 애용되던[71] 탑골공원과 그 주변 지역은 1985년 3.1절을 전후하여 반독제·민주화 투쟁의 최종 집결지로 질적 변화를 보였다.[72] 이처럼 민추협 등 재야 세력이 국민궐기 대회를 개최하는[73] 등 탑골공원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한편 탑골공원에서 광복회 주최로 열린 3.1희생선열추념식에 참석한 이종찬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외국사람 외신(外信) 등 「外(외)」 자만 붙으면 맹종맹신하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반을 지탱하려는 외자의존형(外字依存型)정치가 및 학자들이 수없이 많다"[74]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군사독재권력 구조 속에 있던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구호로만 그친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1986년 3.1혁명 67주년을 맞이하여 광복회 등 독립유공단체 회원들이 '3.1유적 가꾸기' 캠페인에 나섰다.[75]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탑골공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탯줄과 같은 탑골공원에 대한 성역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에 머문 것도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86년 3.1혁명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전과 같이 열렸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은 노신영 국무총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우리와 핏줄을 같이 하는 북한이 민족적 차원에서 단합의 슬기를 발휘하여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서주기를 소망한다. 그러한 만남의 실현이 평화와 통일의 자주적 해결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고 평화통일을

---

68) 『조선일보』 1985년 3월 1일자, 「3.1운동과 天道敎의 秘話 다큐멘터리 10년계획 터뜨린" 民族만세" 66년前 오늘 태화고한의 33인」; 『경향신문』 1985년 3월 1일자, 「「3.1宣言에서 본 오늘」; 『동아일보』 1985년 3월 1일자, 「民族國家의 새時代」 선언 「3.1」은 世界史的 轉機」.

69) 『매일경제』 1985년 3월 1일자, 「3.1절 66주년 전국에서 기념식」.

70) 『조선일보』 1985년 3월 2일자, 「新民, 정부초청거절 별도기념식」.

71) 『조선일보』 1985년 8월 16일자, 「13개 大生 千여명 示威」; 『동아일보』 1985년 8월 22일자, 「구둣발에 챈 「人權」」.

72) 『조선일보』 1985년 2월 6일자, 「大學生 등 千5百명 都心서 시위를 벌여」.

73) 『조선일보』 1985년 8월 14일자, 「与野, 和戰 양면 対策 부심」.

74) 『동아일보』 1985년 3월 1일자, 「"외국인·外信(외신) 맹신하는 경향 짙어"」.

75) 『동아일보』 1986년 2월 28일자, 「다시 가꾸는 3.1유적지」.

위한 국제적 환경을 주도적으로 마련해나가는 첩경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라고 확신한다"[76]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재 권력의 이와 같은 3.1혁명 기념사는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오히려 정부의 3.1절 행사에 불참한 야당 신민당 총재 이민우는 "3.1정신이야 말로 민족성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민주화 투쟁과 통일성업도 이같은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다"[77](밑줄: 글쓴이)라고 하여 민주화 투쟁과 통일 대업의 추동력이 3.1정신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민우·김영삼 등 신민당원 150여명은 도보행진으로 탑골공원에 도착, 3.1혁명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3.1혁명 정신이 민주화 투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민우의 주장은 3.1혁명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 이민우·김영삼은 천도교 청년회에서 준비한 방명록에 서명하였다.[78] 이는 천도교 청년회가 민주화 운동에 일정하게 참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이와 같은 민주화 투쟁에 대응하여 반공단체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회장 장충식)의 주최로 전 내부장관 이익홍 등 1천여 명이 1986년 6월 28일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용공이적행위배격, 자립경제성취, 정의사회구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결의하는 '멸공구국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79] 이는 탑골공원이 여러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공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현대의 '역사공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986년에도 광복회 주최로 '3.1운동희생자 합동추념식'이 탑골공원에서 관성적으로 열렸다.[80] 1963년 국민성금으로 건립되었다가 1979년 헐린 3.1기념탑 방치문제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81] 이 기념탑은 복원되어 약 13년 만에 1992년 '서대문 독립기념공원'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사실은 3.1혁명의 공간적 역사적 중심지가 탑골공원에서 서대문 독립기념공원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82] 무엇보다 이는 현대 탑골공원의 역사와 정통성에 균열을 가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천도교 교단은 1986년 12월 2일 북한에 금강산댐공사 중단과 금강산유역의 공동개발기구설치에 협력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개천절을 민족 최대의 성절(聖節)로 높이고 단기연호를 공용연호로 병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남북·역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83] 하지만 탑골공원이 훼손되는 현실에도 천도교 교단의 의미 있는 대응은 없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서울대 학생 박종철의 사망[84]으로 1987년 초부터 정국은 들끓어 올랐다. 그 여파로 탑골공원을 향해 전진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었다.[85] 각 종교단체가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86]

---

76) 『동아일보』 1986년 3월 1일자, 「南北韓 최고 責任者 회담 年內에 실현기대-全大統領 3.1節紀念辭서 강조」.
77) 『경향신문』 1986년 3월 1일자, 「3.1精神 계승 民主 투쟁 지속」; 『동아일보』 1986년 5월 24일자, 「警察·大學生 숨바꼭질…검문검색 속 30명街頭 시위」.
78) 『조선일보』 1986년 3월 4일자, 「新民, 파고다공원서도 행사」.
79) 『조선일보』 1986년 6월 29일자, 「失鄕民 궐기대회 열어」.
80) 『동아일보』 1986년 3월 1일자, 「67주년 3.1節 기념식」.
81) 『동아일보』 1986년 4월 7일자, 「철거당한 「國民 성금」「3.1기념탑」 버려진 채 7년」.
82) 『한겨레』 1992년 2월 23일자, 「3.1독립선언 기념상 12년만에 '부활' 제막식」.
83) 『경향신문』 1986년 12월 2일자, 「金剛山댐 중단촉구 宗敎협의회 결의문」.
84) 『동아일보』 1987년 1월 16일자, 「조사받던 大學生의 죽음」.
85) 『경향신문』 1987년 2월 7일자, 「散發시위…催淚彈 쏴 해산」; 『조선일보』 1987년 2월 8일자, 都心산발示威…최루탄 자욱 朴군 追悼会 날 큰 不祥事 없어……799명 연행」.
86) 『동아일보』 1987년 2월 21일자, 「宗敎단체 3.1節 기념행사 定例化」.

이러한 가운데, 고문희생자에 대한 추모, 불법연금·강제연행·검문검색 거부, 고문수사 반대, 고문근절 등 민주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는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공동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박종철 49재인 3월 3일 '고문추방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을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 대행진은 3일 낮 12시를 기해 각단체가 탑골공원을 향해 행진을 하여 1시에 탑골공원에 모여 추모묵념을 올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민주재야단체 주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추모묵념을 함께 올리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87] 아울러 준비위원회는 "치안당국은 시민이 평화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최루탄 발사, 무장전경 배치 등으로 시민의 행동을 제한하지 말아 달라"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하였다. 이에 신민당과 민추협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88]

이에 대해 반민주화 성향의 민정당은 강경대응 방침을 정하였다.[89] 이에 정부당국은 "탑골공원의 출입을 통제하겠다"[90]라고 민주화 투쟁세력을 압박하며 탑골공원을 3일 하루 동안 폐쇄하는 강경조치를 취하였다.[91] 하지만 신민당은 정부 여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국민적 관심사는 고문 및 복지원 사건이므로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없이는 개헌논의 등 국민전환은 불가능하다. 민정당은 임시국회소집과 개헌특위를 연계시키지 말라"[92]라는 성명서로 정부 여당에 대응하였다. 더욱이 경찰에 봉쇄된 민족혼의 상징 탑골공원 안으로 들어가려던 신민당 당원들과 경찰이 심한 몸싸움을 버리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또한 5.18을 전후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제6주기 기념식을 맞이하여 재야와 종교·학생단체가 탑골공원에서 '광주학살원흉처단 민중대회'를 열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사실도 주목된다.[93] 1986년 11월 3일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회의 주최로 '건국대 만행에 대한 범국민 1차보고 대회'가 탑골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바짝 긴장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94]

한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95] 1987년 3월 1일 이종찬은 광복회 주최로 열린 '3.1운동 희생선열합동추념식'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치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48년에 태어난 사생아로 설명할 것이냐. 이번 개헌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96]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는 친일청산을 주장하면서도 "독립서언 당시에는 33인이 모두 위대했으나 <u>많은 분들이 그 후 지조를 버리고 변절했다. 이제는 역사의 평가를 받들 때가 왔다</u>"(밑줄; 글쓴이)라고 하여[97] 3.1혁명 민족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98]

---

87) 『조선일보』 1987년 2월 24일자. 「拷問 추방 民主化 대행진」.
88) 『동아일보』 1987년 2월 23일자, 「3월 3일 「朴군 49齋」 맞아 拷問 추방 民主 대행진 追悼 준비위」.
89) 『동아일보』 1987년 2월 27일자, 「「3日行事」 강경대립 与·野」; 『매일경제』 1987년 2월 28일자, 「경찰 원천봉쇄계획」.
90) 『경향신문』 1987년 2월 28일자, 「파고다公園 出入 통제」; 『매일경제』 1987년 3월 3일자, 「「3.3大行進」 都心 산발시위 경찰 철통봉쇄」.
91) 『동아일보』 1987년 7월 3일자, 「都心 5층 이상 건물 屋上 완전봉쇄」.
92) 『조선일보』 1987년 3월 1일자, 「「拷問 추방 대행진」 强行」.
93) 『동아일보』 1986년 5월 17일자, 「「光州사태 6周」 곳곳서 추모 시위」.
94) 『동아일보』 1986년 11월 2일자, 「大學街 「學生의 날」시위 非常」.
95) 『조선일보』 1985년 12월 14일자, 「헌법特委(특위)」로 의견 접근」; 『동아일보』 1986년 2월 24일자, 「89年에 改憲」; 『매일경제』 1986년 2월 27일자, 「閣僚임명 政治犯사면 憲法 개정 등 特委 구성」; 『동아일보』 1986년 9월 5일자, 「改憲街道 (11) "輿論을 잡자" 「場外 홍보전」 加熱」; 『매일경제』 1986년 2월 27일자, 「民正, 합의 改憲에 박차」.
96) 『경향신문』 1987년 3월 2일자, 「역사의 評價 받을 때 왔다」.
97) 『매일경제』 1987년 3월 2일자, 「上海 임시정부 法統性 주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주장을 한 이는 물론 이종찬만이 아니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민정당은 정통성이 허약했으며 역사 인식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99]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헌법에 수록하지 않은 박정희 정권의 대를 이은 민정당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는 신민당 총재 이민우였다. 그는 1986년 6월 10일 국회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나는 독재정권에 대한 거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의 기본골격에 해당하는 헌법 및 헌법정신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민주인사들의 연행과 투옥이 한결같이 개헌투쟁과정에서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내재해 있는 이 같은 결함을 제거하는 작업이다.[100] (중략) 대한민국의 법통을 제헌 당시 헌법 정신에 따라 상해임시정부로 삼고 평화통일과 민족자주의 이념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광복이 미국이나 소련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통이 상해임시정부에서 비롯된다는 제헌당시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101]

이처럼 국권회복이 민족독립투사들의 노력 결과임을 확신한 이민우와 같은 민주화 투사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는 1980년 중반의 헌법 개정 문제가 민주화투쟁의 최종 목적 중에 하나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민주화운동을 추동시킨 사상적 힘은 바로 천도교가 이끈 3.1혁명과 그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이었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1987년 「4.13 호헌 조치」로 반독재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상황에서 5월을 맞이하였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투쟁 이후 매년 5월이면 정부 여당은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5월 23일 오후 3시 탑골공원에서 민통련 등 21개 재야단체가 개최키로 한 '광주 민중항쟁 7주년 민주영령추모대회'를 경찰병력 1백 30개 중대 1만 5천명을 동원하여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아래 사진 3[102]와 같이 탑골공원 원천봉쇄하였다.[103] 이처럼 전두환 정권의 광주시민 '학살'은 3.1혁명 정신을 철저하게 짓밟는 '반민족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

98) 이와 같은 이종찬의 3.1혁명에 대한 평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강만길을 비롯한 좌파성향 학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운용, 「국권회복(1945년) 이후 '3.1혁명'에 대한 평가·인식 및 그 의미」, 『선도문화』 28, 국학연구원, 2002 참조.

99)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이종찬 회고록』 2, 2015, 한울, 63-64쪽. 1986년 민정당의 헌법 시안에는 임지정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최호동,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논의 과정-정당정치 과정에 수렴된 논의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0, 한국법사학회, 2019, 205쪽).

100) 『동아일보』 1986년 6월 9일자, 「李敏雨 新民총재」.

101) 이종찬, 위의 책 64쪽; 『동아일보』 1986년 6월 7일자, 「「改憲 청사진」; 『경향신문』 1986년 6월 9일자, 「정부선택권 直選制로 보장 上海臨政 국가 法統 삼아야 李新民 총재 정부선택권 直選制로 보장 上海臨政 국가 法統 삼아야 李新民 총재」; 「매일경제」 1986년 6월 9일자, 「李新民 총재」. 특히 1986년 6월 23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신당총재 간의 대화에서 헌법에 임정을 넣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동아일보』 1986년 6월 23일자, 「盧 民正 대표ㅡ李 新民 총재 對話 내용」). 그리고 이종찬은 1987년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로 조일문 민정당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김준연의 부탁, 자신의 현경대 당시 헌법개정특위 간사에게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이종찬, 위의 책, 64-65쪽).

102) 『경향신문』 1987년 5월 23일자, 「파고다공원 「追慕大會」봉쇄」.

103) 위와 같음; 『동아일보』 1987년 5월 23일자, 「「5.18」追悼 파고다集會 萬5千경관 동원 봉쇄」

사진 2

광주민주화투쟁은 3.1혁명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더욱이 전두환 군사독대 정권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탄압은 3.1혁명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사실도 부언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천도교가 주도한 3.1혁명 정신은 한국 현대사를 추동시킨 사상적 에너지원임이 확실하다. 더욱이 민주화투쟁 세력이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반독재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한민족사의 큰 역할을 담당해온 탑골공원의 역사에 크게 부각되어야 할 대목이자, 성역화의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1987년 6월에도 반독재투쟁은 계속되어 민주당과 민추협은 민추협사무실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식을 공동으로 열고서 시청을 1차 집결하여 최종 집결지를 탑골공원으로 하는 국민평화대행진식 결행을 결정하였다.[104] 이에 전두환 정권은 '약제 살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탑골공원을 폐쇄하고 검문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대응하였다.[105] 하지만 전국적으로 분출되는 민주화 열망은 막을 수 없었다.[106]

민심은 점차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서 멀어져만 가는 형국이었다. 결국 노태우는 1987년 6월 29일 8개항(① 여야 합의 아래 조속히 대통령직선제로 개현, ② 대통령선거법의 공정한 개정 ③ 김대중 사면 복권과 구속자 대폭 석방, ④ 기본인권의 최대한 신장, ⑤ 언론 활성화, ⑥ 지자체 및 교육자치제 조속 실현, ⑦ 정당 활동 보장, ⑧ 사회비리척결)으로 구성된 「국민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107] '6.29선언'으로 알려진 이 특별선언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였다.[108] 결국 전두환은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3.1혁명 정신이 구현된 민주화투쟁 세력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109]

민정당에 맞선 통일민주당 등 민주화 투쟁세력의 격렬한 헌법 개정 투쟁[110] 결과, 대한

---

104) 『동아일보』 1987년 6월 26일자, 「22개都市 大行進 강행…초긴장」.

105) 『동아일보』 1987년 6월 26일자, 「「평화대행진」서울 최종집결지인 파고다공원」; 『경향신문』 1987년 6월 26일자, 「봉쇄·强行 맞선 채 오늘 「大行進」」.

106) 『조선일보』 1987년 6월 27일자, 「大都市 대규모 夜間示威」.

107) 『경향신문』 1987년 6월 29일자, 「盧 대표,直選改憲 선언-全대통령에 8개항 시국수습책 건의」; 『조선일보』 1987년 7월 1일자, 『「盧선언」 실천 措置지시-全大統領 8개項 전폭 수용 특별담화」.

108) 『경향신문』 1987년 6월 29일자, 「"救國衷情"에 拍手와 歡呼」; 『동아일보』 1987년 6월 30일자, 「民意 실은 政治滿開 「6.29 盧代表 선언」…숨가쁜 政局 政治部기자 좌담」.

109) 『조선일보』 1987년 7월 1일자, 『「盧선언」 실천 措置지시-全大統領 8개項 전폭 수용 특별담화」.

1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 된다. 강원택, 「87년 헌법의 개헌 과정과 시대적 함의」, 『역사비평』 119호, 역사문제연구소, 2017; 정태우, 「1987년 헌법개법안 형성과정 연구」, 『세계헌법연구 』

민국임시정의 법통 문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전문」에 반영되었다. 물론 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제6호(1962. 12. 26)의 전문 내용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제헌 헙법「전문」으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반면,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기반한 제헌헌법 정신(임시정부의 법통)을 회복하는 기나긴 과정의 결과였다. 이점에서 1986·87년의 민주화 투쟁과 87년 헌법 개정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이 훼손한 3.1혁명 정신을 되살리는 여정이었다. 물론 이는 3.1혁명의 진정한 주인공 천도교의 정신이 역사적으로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탑골공원은 여론의 중심지가 되어 갔다. 즉, 탑골공원 관리사무소의 어느 직원은 “요즈음의 활발하고도 진지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으면 민주주의의 상징인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연상케 한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의 전반적 수준이 다른 노인회나 경로당과 달리 정치 지향적이기 때문”[111]이라고 나름대로 탑골공원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탑골공원은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비견되곤 하였다.[112] 더욱이 87년 헌법을 이끌어낸 민주화투쟁과 여론의 중심에 “탑골공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탑골공원에 내재되어 있는 3.1혁명 정신이 1987년에 다시 폭발적으로 재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공간으로써의 탑골공원의 성역화가 필요한 이유가 설명된다.

무엇보다 탑골공원 성역화문제와 관련하여 3.1혁명에 대한 천도교 교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1987년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 민족종단으로서 3,1운동 당시 33인대표였던 의암 손병희 등 종단 지도자들이 중심인물로 참여했던 천도교는 매년 3월 1일이면 3.1절 기념식을 시일(侍日)예식이란 의식으로 거행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천도교중앙교당에서 시일예식을 갖기에 앞서 오전 8시에는 서울 도봉구 우이동 의암 묘소를 참배한다. 신도들은 기념식이 끝난 후 종로 파고다공원에 있는 의암 동상 앞에서 3.1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결의문과 구호를 낭독하고 의식을 끝낸다. 천도교 관계자는 시일예식은 천도교행사로 정착, 국민의례·청수봉전·주문 3회 병송·천독송·독립선언서 낭독·기념사·3.1절노래·만세삼창·심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113]

이처럼 천도교는 3.1절을 교단의 공식 행사로 지내왔고, 탑골공원의 손병희 동상 앞에서 3.1정신의 발전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탑골공원은 천도교의 교리인 보국안민·광제창생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성역(聖域)이자, 천도교인들이 민족내부의 타자와 소통(기화/

22-1,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최호동, 위의 논문. 하지만 임시정부의 법통문제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111) 『경향신문』 1987년 10월 5일자, 「"政治熱氣" 뜨거운 파고다公園」.

112) 『한겨레』 1988년 7월 31일자, 「할아버지 시국토론장 파고다공원」; 1988년 8월 3일자, 「사설-파고다 공원서 들려오는 소리」.

113) 『동아일보』 1987년 2월 21일자, 「宗教 단체 3.1節 기념행사 定例化」.

氣化)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공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유일하게 3.1절을 교단의 공식행사(시일)로 지내는 천도교가 탑골공원 성역화 문제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와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맺음말-천도교가 탑골공원 성역화를 주도하기를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두환 군사정권은 탑골공원은 완벽하게 소외시켰다. 다만 광복회 등 독립운동관계 단체와 천도교인들이 탑골공원에서 3.1혁명을 기리는 정도였다. 탑골공원이 현대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상황서도, 3.1혁명을 주도한, 시대교(時代敎)임을 자부한 천도교 교단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기에도 '반독재투쟁'이라는 시대정신(천주지의)에 적극 호응하지 못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3.1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보국안민·광제창생·교정쌍전(敎政雙全)이라는 천도교 정신의 후퇴를 뜻하는 것이다.

역사는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근대 천도교의 대표적인 업적은 3.1혁명이다. 3.1혁명의 주무대는 탑골공원이다. 탑골공원에 대한 연고권이 누가 뭐라 해도 천도교에 있음은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천도교는 교단차원에서 주도적이고 공식적으로 탑골공원 성역화 추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탑골공원 성역화를 주도하려는 관(官)과 일부 세력에 협력하는 정도였다.

글쓴이는 2023년 9월 14일 '탑골공원 성역화 발기인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글쓴이는 탑골공원 성역화는 천도교가 당연히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전개되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 천도교의 교리의 핵심은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천도교는 탑골공원 성역화 문제에서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글은 바로 현대 천도교가 탑골공원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작성되었다. 천도교가 탑골공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탑골공원의 현대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대정권은 3.1혁명의 주인공인 손병희를 비롯한 33인을 탑골공원의 주인공으로 모신 적이 없었다. 오히려 3.1혁명을 이끈 손병희의 동상은 권력의 눈밖에 있었다. 반면, 3.1혁명의 말단에서 활동한 유관순 유적에 대한 성역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탑골공원에 세워진 손병희 동상 제막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도 없었다. 박정희는 3.1혁명의 말단에서 활동한 유관순 동상 제막식에 직접 참석하여 유관순을 3.1혁명의 중심 인물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권력이 역사를 어떻게 전도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탑골공원은 오히려 현대 민주화투쟁의 성지로 변모하였다. 전두환 정권기 매년 3.1절이 되면 민정당 국회의원·원내총무라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반민주' 진영의 선두에 선 인사가 탑골공원의 주인공으로 나서 3.1혁명 관련 발언을 독점하였다. 하지만 이는 민주화투쟁의 원동력이 3.1혁명이었다는 사실에서 3.1혁명을 이끈 천도교의 역사관과 완전히 궤를 달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병희의 정신을 이어받은 천도교 교단과 신자들은 3.1절을 주도하여 탑골공원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재현했어야 했다. 하지만 3.1절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천도교 교단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제 탑골공원 성역화에 3.1혁명의 역사적 의미에서 벗어난 세력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역사가 전도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3.1혁명의 중심지 탑골공원은 한국 근대사 상징이자 천도교의 성지이다. 천도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3.1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3.1혁명의 성지 탑골공원과 3.1혁명의 주도세력 천도교는 완전한 '동귀일체(同歸一體)'라는 점이다.

1945년 8.15 국권회복은 천도교의 종교사상과 민족독립투쟁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국권회복 이후 천도교는 그 동안 모순과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천도교의 현실을 분석해보면 그 역사성을 오늘날에도 계승하고 발전시킨 모습을 확연하게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천도교 주도의 탑골공원 성역화는 천도교가 다시 날아오를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근대사의 주인공이었던 천도교인들이 '시천주'의 시자(侍字)가 각천주지의(覺天主之意)라는 점을 깊이 되새겨 다시 현대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심고'하면서 이글을 맺는다.

토론 1

현대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와 천도교 발제 토론문

허 채 봉 (동학농민혁명부산기념사업회)

들어가는 말

현대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와 천도교에 관한 신운용 교수님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114]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 동학천도교의 의미와 현대 탑골공원 성역화에 관한 현실적인 제안 정도로 두 가지 측면에 관한 정도로 토론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격랑의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서세동점,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한국 근대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전면 거국적 무장투쟁과 총 궐기 시위 사건은 바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1919년 3.1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다른 별개의 두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연속선상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바로 1860년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명된 '사람이 하늘이다'라 설파한 '동학'(정신바탕)과 이의 가치를 신봉하는 '동학교도'(실행조직)가 두 가지 핵심 축을 이루며 모든 과정을 겪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과 함께 그 부당 불의함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며 제폭구민. 척왜양창의. 보국안민. 광제창생을 실현시키려한 운명공동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의암 손병희는 2세 교주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에 따라 기호동학군을 이끄는 통령으로서 참여하였으며, 패전 이후 춘암 박인호(4세교주)와 함께 해월 최시형을 모시고 구사일생으로 피신하여, 1919년 3·1운동을 하기까지 엄혹한 일제강점의 본토에서, 25년여의 길고 긴 시간 동안 준비시대를 거쳐 마침내, 기미삼일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총 기획자로서, 민족대표 33인중 최고 수장으로서 그 목적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민족지도자입니다. 그 결과 옥고를 치루며 고문후유증으로 환원 순국하셨습니다.

손병희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두 거사에 함께 참여했던 동학천도교인도,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에 이르고, 그 중 다시 9명은 손병희와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했던 지역 동학 조직의 대접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는 조직력 또한 손병희가 언젠가 있게 될 독립운동에 대비하여 1912년부터 1914년까지 꼬박 3년 동안, 전국 각처에서 선발한 동학천도교 지도자 483명을 우이동 봉황각에서 49일 합숙하는 특별연성수련회를 실행하였으며, 준비된 지역의 대접주들을 도우며 지역민들을 이끌어냈던 하부 접주 조직의 실행력이 여전히 건재함으로써 전국 각처에서 3.1운동을 성공시켜낸 동력이 되었[115]습니다.

---

114) 허채봉, 「항일운동으로 본,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 2022, 석사 논문 부경대학원, 글로벌정책대학원 한국문화학부 사학전공.

115) 『천도교약사』, 천도교 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2006, 165~166쪽

해월 최시형이 말씀하신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116]은, 항일투쟁이 다시 반복적으로 있을 것을 예견하셨던 것으로, 바로 기미년 삼일운동을 마치 예견하신 듯 합니다. 동학천도교는 시대와 짝하여 나가는 시대교[117]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현대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탑골공원부터 천도교중앙대교당과 북촌거리를 잇는 만세거리 성역 관리입니다.

이는, 동학천도교단과 동학천도교도들의 부단하고 지속적인 주체로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구별 세상은 대 전환의 가치 전도로 기존 질서가 몹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세상이 비로소 사물과 자연으로 확장되며 더불어 함께 모든 존엄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체계인 '동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유례없이 훌륭한 자생 토착 정신바탕이 되는 '동학'이 포덕164년을 지나는 동안, 그 많은 고난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착 민족 종교로서 당당히 그 맥을 이어주신 동학천도교단과 동학천도교인들의 모든 노력과 헌신에 후학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이어온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스승님들께서 쉬임 없이 해 오셨듯이 세상의 일상을 광제창생하는 일상의 도를 교단 안팎에서 실천 구현하셔야 합니다. 말이 아닌, 몸이 가야하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동학천도교단과 동학천도교 선도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성지를 챙기는 일상의 작은 실천 노력들이 어느 날 큰 강줄기로 다시 모였을 때, 잃어버린 3.1운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탑골공원 안팎 새로운 문화보존 공익의 장소로 다각협업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 9월 창립한 탑골공원성역화발기인회[118]와 동학천도교, 서울시민이 모두 함께 협업해야 할 역동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노인이 몰려드는 탑골공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의 사회화는 매우 큰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지의 성역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지성역의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깊은 정화의 감응이 일어나는 곳이어야합니다

몰려드는 노인들에게 따뜻함과 안전함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정책으로 탑골공원의 성역화는 노인을 하늘로 공경함에서부터 새롭게 꽃 피어나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 어르신 취업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알짜정책 다섯가지[119]와 연계하여 가급적이면 그 활동의 근간을 3.1운동과 민주화 기억의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활동들로 다양한 장르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와 작은 수입과 보람도 있는 기분 좋은 정책으로 대 전환 실행하는 탑골공원만의 고유한 시스템을 개발해내는 노력이 선구적으로 필요합니다. 차별이 아닌 작은 차이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공간은 어디서나 아름다운

---

116) 신택우 묻기를 "갑오 전란으로 인하여 우리 도를 비방하여 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떤 방책으로 능히 이 원성을 면할 수 있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갑오일로 말하면 인사로 된 것이 아니요, 천명으로 된 일이니 사람을 원망하고 한울을 원망하나 이후부터는 한울이 귀화하는 것을 보이어 원성이 없어지고 도리어 찬성하리라.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의 일이 이로써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니라." 「천도교경전」, 해월신사법설, '오도지운', p391~392.

117) 『동아일보』 1983년 4월 12일자, 「"宗教도 時代에 맞게 달라져야" 天道教 새教領 高定勳씨」.
신운용, 「현대 탑골공원의 성역화 문제와 천도교」, 발제문, p11.

118) 신운용, 위의 논문, p3.

119)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http://www.goldenjob.or.kr/main/main.asp

예술작품으로 거듭날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어둡고 불안한 감정의 찌꺼기를 정화해내는 성지와 성역, 그리고 동학천도교가 정치가 추구하는 교정쌍전,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는 그리고 일용행사 도 아님이 없는'[120] 지상천국 동학의 꿈, 한 송이로 피어날 것입니다.

120)「천도교경전」,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p284~287.

발표 2

근대 시기 천도교와 3.1혁명-근대를 관통한 천도교의 '독립정신'

장 우 순 (성균관대학교)

1. 문제의 제기

한국 근대의 시작점을 무엇으로, 혹은 어느 시기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제다. 근대를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당시 한국사회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인과적 결과물인 오늘날의 사회적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 근대라는 사회의 질적 변화를 내부의 주체적 동력이나 주관적 요소에서 찾을 수도 있고, 서구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나 정치제도 등 타율적으로 강제되거나 이식된 외부적 요소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서구의 충격에 대응하는 주체적인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으면 한국의 근대와 그 성격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한국의 근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근대, 한국적 근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서구에 대한 내적 대응이 사상적으로 정리되고,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1860년대에 주목해야만 한다.

기존의 주류사학이 근대의 기점으로 보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은 개항과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단지 외부의 기계적 작용과 계기만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근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국의 근대는 절대 설명될 수 없다. 반드시 내재적이고 주체적인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내부를 질적으로 바꾸는 질적인 변화라는 것이 명징하게 설명되어야만 확도한 근대의 시작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국의 연구자 다수가 1876년에 주목한 것은 서구사회를 모델로 제시한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론'을 교조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동양 및 한국사회에 적용한 결과다. 단지 일본과 체결한 조약 하나가 한국사회 내부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인식은 역사적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조적 인식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강화도조약' 때문에 조선에 갑자기 서구의 자본주의가 들어오지 않았고, 조선의 신분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정치, 사회제도 등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지도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강화도조약' 자체가 조선 민중의 의식이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구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는 1876년 개항 이전에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을 통해 이미 1860년대에 조선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고, 이 충격파는 중국이 이미 서구의 식민지로 몰락해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공포와 함께 배가되었다. 한국사회 내부는 이 충격파로 인해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 즉 변증법이 설명하는 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본고는 이 질적 변화를 따라 한국의 근대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동학의 근대적 의미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근대 초기의 궤적을 쫓아가 보고자 한다. 동학이 주도한 이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동학의 자주·평등사상의 전파로 한국의 근대가

시작되었고, 이 자주·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최초의 근대 혁명인 동학혁명이 폭발하여 조선 민중의 의식을 근대로 견인하였으며, 이 근대의 흐름이 대동단결과 평등·평화라는 한국적 근대의 가치를 표방하며 근대민족으로서 한민족이 탄생한 3.1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동학이 주도한 한국적 근대의 여정

1) 한국적 근대의 태동-동학의 창시

1860년대 조선은 본격적인 충돌의 방식으로 서구와 대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서구 열강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정해진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단지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다. 조선의 성리학적 신분질서와 정치제도, 특히 60여 년 지속된 세도정치는 조선의 근간인 농민들의 삶을 근본까지 파괴하고 있었고, 기득권에 집착하던 집권세력과 양반, 유생들은 성릭학적 질서를 유지하자는 위정척사론의 선동에 경도되어 혁명적 내적 변화와 개혁에 쓰여야 할 귀중하고 긴박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있었다.

1860년대 서구의 충격파에 대한 조선사회의 내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위정척사론의 논의와 그것을 실천하는 사회적 운동으로서 위정척사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종교 사상이자 혁명 사상인 동학이 창시되어 민중들에게 급속히 전파되면서 한국사회에 강력한 파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점차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위정척사론은 풍양조씨 일가가 서구세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공격함으로써 집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활용한 정치적 전술이었다. 집권세력이 된 풍양조씨 가문의 선동에 호응한 유생들은 이미 1930년대부터 위정척사사상에 강하게 경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사학파'를 이끌며 위정척사 논의를 주도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은 1839년에 두 편의 시를 통해 서구를 배척하고 춘추대의를 밝혀야 한다고 노래하였다.[121] 기정진은 서구의 문물과 종교는 성리학자가 지켜야 할 춘추대의를 훼손하는 사악한 것으로 마땅히 파괴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에게 성리학적 가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였고, 조선 사회 유생 대다수가 이러한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었다.

기정진은 천주교뿐 아니라 불교와 노장사상 역시 이단으로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단지 서구나 외세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과 학문을 배척하는 유교 원리주의자이자, 중화적 가치에 함몰된 광신도였다. 조선의 성리학이 '존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정척사사상이 자주적이거나 반 외세을 표방한 사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위정척사사상은 단지 집권세력인 풍양조씨나 대원군 등이 유생들과 함께 부당한 권력과 성리학적 신분질서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나누기 위해 결합한 이익공동체였을 뿐이다.

당시 조선 사회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첫째, 외부적으로 서구열강의 침략을 막아내고, 둘째, 내부적으로 조선사회의 모순을 혁파하고 민중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천지가 개벽할 만한 개혁을 수행해야만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일어난 일본의 메이지 쿠데타[122]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가 내부의 혁명적 변화 없이 서구에 맞설 역량을 키운다는 것

---

121) 「乙亥冬以洋胡邪說肆行 命致祭儒賢諸院 金平澤在晉執事華陽斐然有述 遙步原韻二首」.

122) 이 사건을 '메이지 유신'으로 부르는 것은 옳은 관점이라 할 수 없다. 초슈와 사쓰만의 하급무사들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일왕이던 고메이(孝明)은 근왕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들 하급무사들에 의해 독살되었으며, 당시의 집권세력이었던 에도 막부를 무력으로 전복시켰으므로 쿠데타로 보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혁명적 개혁 없이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지 못할 것이고,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한다면 식민지로 전락하여 혁명적 개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두 과제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과제이면서 상호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전략적 과제였다. 위정척사사상 역시 이러한 과제에 대한 조선사회 내부의 대응이었다. 위정척사사상을 기반으로 한 위정척사운동은 1866년 기정진이 '병인소'를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자 천주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기정진은 이 시기 지속적으로 관직을 제수받으며 위정척사론에 입각하여 유림을 회유하고 대원군의 정책을 지원할 것을 요구받았다.

병인양요를 경과하면서 '병인소'는 당시의 많은 유생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화서학파[123]의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당시 유생들의 위정척사은 서양을 과소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서양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의 현실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와도 같은 협소한 시각이었지만,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이 보여줄 수 있는 당연한 인식으로 신분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이었다. 척왜양이(斥倭攘夷)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역량이 필요했지만, 조선의 역사가 줄곧 그러했듯이 유생들은 중국마저 저버린 중화의 가치에 목숨을 건 채 입으로만 어양(禦洋)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어양을 위해서는 민력과 국력을 급속하게 신장시키는 혁명적 개혁이 필요했다. 일본을 능가하는 혁명적인 개혁을 통해 서양의 침략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었던 조선의 여론 선도층 유생이 개혁에 앞장서기보다 개혁을 저지하고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정척사론을 주창한 것은 나라와 민중을 멸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은 중대한 시대적 착오였다.

위정척사운동은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1873년 이후 사실상 지속될 동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유생들에게 위정척사사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고, 유생들이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대응하여 일으킨 을미의병, 을사조약, 정미7조약에 대응하여 일으킨 1905년의 을사의병, 1907년 정미의병 등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의병의 활동과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을미의병(전기의병)→을사의병(중기의병)→정미의병(후기의병)으로 변모하면서 초기에 매우 강력하게 표방되었던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득권 수호'라는 집단이기적인 성격이 점차 옅어지고, 점차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보국안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제에 결사 항전하였던 정신으로부터 일부나마 영향을 받은 결과로 실제로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에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활동하였고, 의병조직에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던 농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860년 서구의 침략에 대해 양반, 유생들이 위정척사사상에 근거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면, 평민들 사이에서는 천지개벽에 가까운 혁명적 사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시천주(侍天主)사상'과 한울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종교사상이었지만, 그 자체로 조선사회의 신분질서를 거부하는 혁명적, 사회적 사상이었고, 서구의 충격에 대응하여 '보국안민'을 우선한 실천적 구국 사상이기도 하였다. 시천주(侍天主)는 모든 사람이 그 내부에 이미 천주를 모시고 있음을 천명한 사상으로 이후 2대 교주인 최시형의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 3대 교주인 손병희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적 근대의 전략적 가치인 평등 평화의 이념으로 정착하였고, 최종적으로 3.1혁명을 통해

이 정확한 관점이다. 이들 하급 무사들은 집권 이후에도 군벌로서 세력을 유지하였고, 이 세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장우순의 「근대국가 일본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 - 전통에서 소환한 근대 -」(『동아시아고대학』 5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를 참조).

123)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의 유생들을 일컫는다.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인석 역시 화서학파의 문인이었다.

한민족의 근대적 가치와 전망인 '독립정신'으로 체계화되었다.

시천주 사상이 근대적 평등을 지향한 혁명사상이라는 사실은 조선의 전통사상인 유교와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理)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인 기(氣)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학문적 정진을 통해 사서삼경(四書三經)에 통달해야만 했고, 때문에 학업을 업으로 삼은 양반, 유생 외에는 이러한 이기론에 접근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유교가 출세와 권력이 보장된 집단의 전유물인 이상 평민과 천민, 여성들은 절대로 평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차별과 불평등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마디로 유교와 성리학은 반상, 남녀, 노소의 차별을 근간으로 성립된 차별의 사상이자 학문이었던 것이다. 반면,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평민뿐 아니라 천민이나 여성들까지 누구라도 입교하여 수행하면 도인(道人)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수월성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민중들의 근대적 자각으로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최제우는 「포덕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10년을 공부해서 道成道立 되게되면 속성이라 하지마는 무극한 이내 도는 3년 불성이면 그아니 헛말인가.……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닌가."[124]

누구라도 입도한 후 3년 이내에 도를 이룰 수 있고, 입도한 그날부터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양반들이 누려온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관점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과 진배없는 이러한 발언은 급속하게 민중들에게 확산, 수용되었고, 조정과 양반층에는 커다란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조성하였다. 조정이 1860년에 창시하고 1861년부터 포교를 시작한 동학에 깜짝 놀라 1863년 최제우를 체포하고, 1864년에 처형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학은 짧은 포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은 동학이 당시 민중의 근대를 향한 요구와 이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제우는 '보국안민'을 시대적 방책으로 제시하였고, 선천시대가 가고 봉건적 신분질서로부터 해방된 모든 인간이 평등한 후천개벽의 호시절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동학이 조선의 신분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개창하기 위해 창시된 혁명적 세계관을 가진 사상임을 천명한 것이다.

조선의 근대는 수운 최제우가 '시천주 사상'을 통해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상에 반응한 민중들에 의해 근대 의식으로서 평등의 이념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서구의 근대와 그 결과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는 혁명적이고, 질적인 수준의 변화였고, 이러한 질적 변화는 한국적 근대가 동학사상을 통해 이미 1860년대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성리학적 봉건질서의 수호 획책하며 역사의 퇴행을 기도한 수구적이며 반동적인 사장인 위정척사사상 역시 동학과 동학혁명의 영향, 그리고 의병전쟁과 독립운동을 통해 점차 한국적 근대의 가치 안으로 수렴될 수 있었다.

서구에서 자본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 발명된 '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족 내부의 선언적 평등을 주장하며 성립되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수미균평'의 전통적 평등개념이 이미 존재하였고,[125]" 이러한 평등사상은 서구에서 발명된 '민족'의 제한적이고 선언적인 평등개념을 초월하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평등를 지향하였다. 최제우는 이러한 전통에서 추출한 근본적, 절대적 평등사상을 제창함으로써 한국적 근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고, 봉건질서를 뒤집는

---

124) 신일철, 「최수운의 동학사상」, 『사상』 9, 사회과학원, 1991, 267쪽에서 재인용.

125) "……又神誌祕詞曰如秤錘極器秤幹扶踈樑錘者五德地極器百牙岡朝降七十國賴德護神精首尾均平位興邦保太平…", 「金謂磾傳條」, 『高麗史』 卷 一二二. 삼균주의를 정립하여 임시정부의 이념을 선도한 조소항은 그가 제창한 평등사상의 근원에 이러한 한민족 전통의 평등사상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후천개벽의 혁명사상으로 전파시켰다. 따라서 최제우는 한국적 근대의 창시자로, 최초로 한국적 '민족'의 개념을 제시한 사상가였다.

2) 동학농민혁명이 표방한 근대적 평등사상

1864년 최제우가 처형된 후 최시형이 2대 교주가 되었다.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은 최시형에 의해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으로 더욱 진보하였고, 교세는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더욱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사인여천은 말 그대로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고 존중하라는 의미로 시천주 사상보다 더욱 구체적, 적극적으로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 사상이다. 종교적 성격이 강한 동학의 평등관이 보다 근대적이고 세속적 의미의 평등관으로 진보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사인여천의 평등관을 공유한 동학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었다.

동학사상의 근대적 성격은 전주화약에서 제기되었던 '폐정개혁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이 천명한 폐정개혁안의 조목들이다.

1. 전운소(轉運所)를 폐지할 것
2. 국결(國結)을 하지 말 것
3. 보부상들의 작폐를 금할 것
4. 도내 환전은 옛 감사가 거두어갔으니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 상납 전에 각 포구 잠상의 미곡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은 각 집마다 봄, 가을 2냥씩으로 정할 것
7. 탐관오리들을 파면, 축출할 것
8. 임금을 둘러싸고 관직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을 것
9. 관장이 된 자는 해당 경내에 입장(入葬)할 수 없으며, .또한 논을 거래하지 말 것
10. 전세는 전례에 따를 것
11. 연호(烟戶)의 잡역을 줄일 것
12. 포구의 어염세를 혁파할 것
13. 보세(洑稅)와 관답(官畓)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에 원이 내려와 백성의 산지에 늑표(勒標)하고 윤장(倫葬)하지 말 것
15. 균전어사를 혁파할 것
16. 각 읍 시정 물건들에 대한 분전수세(分錢收稅)와 도가명색(都賈名色)을 모두 혁파할 것
17. 백지 징세와 사전 진결을 거두지 말 것
18. 대원군을 국정에 간여토록 하여 민심이 바라는 대로 할 것
19. 진결(賑結)을 혁파할 것
20. 전보국이 민간에 대한 피해가 크니 혁파할 것
21. 각 읍 관아에서 필요한 물건은 시가대로 사서 쓸 것
22. 각 읍 아전을 임명할 때 돈을 받고 하지 말고 쓸만한 사람을 택하여 쓸 것
23. 각 읍 이속들이 천금을 축냈으면 그 자만 처형하고 친족에게 징수하지 말 것
24. 묵은 사채를 관장을 끼고 억지로 거두는 일을 금할 것
25. 동학교도를 무고히 살육하지 말며 동학과 관련하여 가둔 이를 모두 신원할 것
26. 京營邸吏料米는 과거의 예에 따라 삭감할 것
27. 포구에서 장사하는 각국 상인들의 동성 시장 출입을 금하고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행상하지 못하게 할 것 [126]

이들 조항은 세제나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심지어 국정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항에는 보국안민, 축멸양왜 등 농민군이 봉기하면서 내세운 핵심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주로 '안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확인될 뿐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던 2차 봉기의 성격 및 구호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조항은 정부군과 교전하여 전주화약을 맺을 당시 농민군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한

126) 1-14조는 「전봉준판결선고서원본」(『동학관련 판결문집』,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15-27조는 정창열의 「갑오농민전쟁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70-171쪽) 참조. 25-27조는 정창열이 다른 폐정개혁안들을 분석하여 추가한 것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 봉기 시에는 갑오개혁의 영향과 반일, 반외세에 대한 내용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만 한다.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으므로 이들 폐정개혁안은 농민군의 봉기과정을 따라 점차 완성적인 모양을 갖추어 갔을 것이다. 2차 봉기를 앞둔 상황, 즉 갑오개혁의 영향을 받고, 일제의 침략에 분노하던 시기 동학 집강소의 '폐정개혁안'에는 당연히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나 근대적 개혁의 요소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 내용으로 볼 때 오지영의 『동학사』[127]에서 기록된 폐정개혁안 12개조는 반외세와 갑오개혁의 내용이 대폭 반영되어 있으므로 2차 봉기 당시 개정된 폐정개혁안일 가능성이 있다. 이 폐정개혁안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인물이 직접 기록한 것이므로 충분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조항에는 2차 봉기에서 목적으로 천명한 척왜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갑오개혁의 영향을 받은 듯한 신분 개혁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동학사』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내용이다.

1. 도인과 정부와의 사이에는 숙혐(宿嫌)을 탕척(蕩滌)하고 서정(庶政)을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사득(査得)해 일일이 엄징할 것
3. 횡포한 부호배(富豪輩)를 엄징할 것
4. 불량한 유림과 양반배는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5.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6.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어 버릴 것
7.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8.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
9. 관리 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왜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등이다.[128]

앞서 살펴본 27개조 보다 상당히 정돈이 되었고, 일제에 대한 태도와 갑오개혁의 내용이 일부 반영된 점으로 보아 여러 폐정개혁안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등을 일관되게 표방하였던 동학의 핵심사상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 폐정개혁안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혁명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가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혁파하고 모든 인간의 평등을 구현하는 근대적 가치의 사회였음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학혁명은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의 하나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평등관이 근대적 형식을 갖추고 근대성을 확보하는 결적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는 이미 근대의 핵심 가치인 평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고, 수운 최제우는 전통사상 속에서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추출하여 주창함으로써 한국이 가야 할 근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동학의 평등사상이 전국의 민중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고, 이러한 평등사상의 전파는 유교적 봉건사회의 낡은 신분질서를 급속하게 해체하고 근대민족으로서 한민족의 출현을 촉진하는 교량 혹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한국사회의 근대적 성격은 더욱 심화되었고, 동학혁명이 제시한 근대적 개혁의ㅣ 의제는 이후의 2, 3차 갑오개혁이나 대한제

127) 오지영, 『동학사』, 민학사, 1975.

128) 이 12개 조의 폐정개혁안은 오지영이 『동학사』에서 가공적으로 만들어 내 신뢰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대체로 폐정개혁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12개 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된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가 집약,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영섭(「『(역사소설) 동학사』의 12개조 폐정개혁안 문제」, 『시대정신』 68, 2015, 136-147쪽), 박종근(「갑오농민전쟁(동학란)에 있어서의 「전주화약」과 「폐정개혁안」(『역사논평』 1962년 4월호(일본)), 한우근(「동학군의 폐정개혁안검토」(『역사학보』 23, 역사학히, 1964, 55-69쪽) 등이 사료성을 부정하는 연구를 발표하였지만, 12개 조항에는 보국안민, 반외세라는 이들의 봉기 목적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의 광무개혁에 반영되면서 한국적 근대를 전망하고, 견인하는 핵심 기준과 요소들로 작용하였다.

3) 3.1혁명과 동학-근대민족 한민족의 탄생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의 근대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조정과 유생, 일제의 조직적이며 가혹한 탄압은 동학 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했다. 농민군의 수장이었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이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2대 교주 최시형 역시 1998년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동학의 도통을 이어받아 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국내의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오세창 등 개화파와 교류한 손병희는 1904년 동학교단이 주도하는 '진보회'를 통해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진개화운동은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반봉건, 근대화 운동이었지만, 동학농민혁명이 보여준 혁명적 성격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다.

1905년 손병희는 동학이라는 교명을 천도교 변경하고, 일진회계 천도교인들을 축출하면서 교단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천도교는 손병희를 중심으로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등 문명개화론을 지지하는 교인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교단 조직과 교리가 근대적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천도교에서 보이는 3권분립 형태의 교단 구조도 이 시기의 개혁을 통해서 도입된 것이다. 손병희는 최제우가 제시한 인간평등의 사상인 시천주 사상을 인내천(人乃天)으로 재해석하였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시천주, 사인여천 등과 같은 내용이지만, 보다 근대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인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천도교의 교리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 시기 천도교 주도 세력은 포교를 통해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동시에 민족 간 평등을 위해 한국의 독립을 이루고, 권력을 장악하여 계층, 계급 간 평등을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129] 손병희는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조국을 되찾기 위해 제2의 동학혁명을 전국 천도교도의 주도적 참여와 선도적 제휴로 민중의 호응을 받아 착수해야 한다'[130]고 인식하고 있었다. 손병희가 이 시기 비록 애국계몽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전술을 주로 구사하였지만, 이는 제2의 동학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펼친 위장 전술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손병희가 근대화된 일본을 목격하고 개화파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실력양성 등 문명개화론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사실지만, 『목암비망록』의 기록처럼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이라는 충격적 사건은 손병희가 민족운동의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19년 1월 손병희는 최린 등에게 "장차 우리 면전에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대하다. 우리들이 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무위무능하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이미 정한 바 있으니 제군은 10분 분발하여 대사를 그롯됨이 없도록 하라."고[131] 말했다고 한다. 적어도 1919년 1월 당시에는 손병희가 독립운동으로 대대적인 3.1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은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손병희는 1919년 1월 5일부터 봉황각, 해주, 의주, 길주, 원주, 경주, 서산, 전주, 평강 등지를 선정하여 특별기도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각각 4명씩의 간부를 파견하였다.[132] 이 때의 상황을 『천도교경주교구연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自60年 1月8日至 同年 2月25日 49日間 3月1日 독립선언식을 앞두고 중앙총부에서 지명, 특별

129) 조규태, 「3.1운동과 천도교」, 『유관순연구』 1, 천안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20, 184쪽.
130) 이종일, 『목암비망록』, 1919. 9.30.
131) 최린, 「자서전」, 『여암문집』 상, 여암선생문집편찬위원회, 1971, 182쪽.
132) 「오세창 신문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53-54쪽.

기도를 본교당에서 행하다."[133]

이 기록을 보더라도 손병희가 1919년 1월 이전에 혁명적 독립운동으로 3.1운동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종이 1월 21일 일제에 의해 독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천도교가 계획한 만세운동은 더욱 강력하고 커다란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19년 1월 하순 손병희를 중심으로 하는 천도교 지도부는 독립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134] 이렇게 결정된 독립운동의 방식과 원칙에 따라 천도교 지도부는 여러 세력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천도교의 시도는 그들이 접촉한 한규설, 김윤식, 윤치호 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135] 이런 상황에서 이승훈이 선천, 평양 등의 기독교 인사들과 접촉한 후 서울에 아서 권동진, 최린 등과 만났는데 천도교 인사들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힘을 합쳐 독립운동을 하되, 그 방식은 독립청원이 아닌 독립선언의 형태로 하자고 제안하였다.[136] 천도교 측의 제안을 받은 기독교 측은 2월 23일 함태영의 집에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천도교 측의 제안대로 독립선언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승훈, 함태영 등을 대표로 선정하여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과 만나 독립선언을 결행하기로 합의하였다.[137] 한편, 천도교 지도부는 불교 측과의 연합도 진행하였는데 최린으로부터 2월 24일-27일 독립운동의 계획을 들은 한용운은 참여하기로 하고 백용성을 동지로 끌어들였다.[138] 3.1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천도교 지도자는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최린, 권병덕, 김완규, 나용환, 나인협, 박준승, 양한묵, 이종일, 이종훈, 임례환, 홍기조, 홍병기 등으로 모두 15명에 달하였다. 천도교는 '3.1 독립선언'의 과정에서 단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살펴보았듯이 다른 종교계와 활발히 교섭하며 연합을 성사시켰고, 모든 경비를 충당하였으며, 직접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아울러 만세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천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천도교의 역량이 없었다면 3.1독립선언서, 3.1만세운동, 3.1혁명은 결코 성립될 수 없었다.[139] 따라서 천도교는 이들 의제를 논의할 때 당연히 그 중심에 위치해야만 한다.

3.1혁명이 중대한 의의는 전 민족이 하나의 가치와 목소리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국내의 농민, 노동자, 청년, 학생 등 거의 모든 계층의 민족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천명하였고, 중국, 러시아. 일본, 구미의 한인들 역시 이러한 '대동단결'의 흐름에 동참하였다. 동학에서 시작된 조선 민중들의 근대적 자각은 일제의 수탈과 함께 진행된 근대적 모순들과 부딪히면서 평등과 해방, 조선의 독립이라는 확고한 근대의 지향점으로 수렴되었다. 드디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지식인, 청년, 학생, 일제에 의해 근대적으로 재편되어가던 산업을 통해 양산된 의식화된 노동자, 일제의 수탈로 토지와 곡식을 수탈당해 붕괴 직전에 직면한 농민들은 그들의 근대적 민족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3.1혁명을 폭발

---

133) 『천도교경주교구연혁』(최인경, 「3.1운동의 전개와 천도교」, 『신인간』 통권 320, 신인간사, 2019, 18-19쪽에서 재인용.
134) 최린, 앞의 책, 앞의 자료, 182쪽.
135) 「최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135-137쪽.
136) 「권동진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50쪽/
137) 최인경, 앞의 글, 20-22쪽.
138) 최인경, 앞의 글, 22쪽.
139) '3.1독립선언서'는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3.1만세운동은 3.1혁명이 완성되어가는 운동의 방식이었다. 3.1독립선언서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3.1만세운동으로 잠재되었던 민족의식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고, 이렇게 한민족의 근대적 민족의식이 드러남으로써 근대민족 한민족이 역사의 실체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근대민족을 출현시킨 질적,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3.1혁명이라 지칭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켰고, 3.1혁명은 그들을 근대적 각성과 근대적 의식으로 무장한 근대민족 한민족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지표가 되어버린 3.1혁명이 전개될 수 있었던 사상적 근원에 동학의 평등사상이 있었다. 동학사상의 전파가 한국적 근대의 핵심 가치인 평등이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적 근대의 시작점이 되었고, 동학혁명을 통해 이러한 평등사상이 민중의 근대적 전망으로 공유되었으며, 이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3.1독립선언과 3.1혁명이 전개되었다는 점[140]을 고려한다면 동학이 주도한 한국적 근대의 시작은 3.1운동을 통해 근대민족 한민족이 출현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여정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제우의 동학 창시로부터, 동학혁명, 3.1혁명으로 이어진 동학, 천도교 주도의 근대적 여정은 3.1혁명을 통해 근대민족 한민족이 탄생과 함께 한 단원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쉽게도 3.1혁명의 시기까지 한국의 근대를 주도하였던 동학과 천도교는 역사의 주역에서 주변인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 여정의 중심에는 동학 창시와 포교-동학농민혁명-3.1혁명이라는 거대한 근대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막대한 피해를 기꺼이 감수한 천도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독립정신의 근원-동학의 평등, 평화 사상

1918년 11월(음력) 조소앙 등이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141]와 최남선이 작성하여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낭독된 「독립선언문」에는 개항 이후 한민족의 과제로 부상한 '독립정신'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일부로 '독립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평등', '평화'에 대한 인식이 언급되어 있다.

> "……我大衆아 公義로 獨立한 者는 公義로 進行할지라. 一切方便으로 軍國專制를 剷除하야 民族平等을 全球에 普施할지니 此는 我獨立의 第一義오. 武力兼倂을 根絶하야 平均 天下의 公道로 進行할지니 此는 我獨立의 本領이오. 密盟私戰을 嚴禁하고 大同平和를 宣傳할지니 此는 我復國의 使命이오. 同權同富로 一切同胞에 施하야 男女貧富를 齊하며 等賢等壽로 智愚老幼에 均하야 四海人類를 度할지니 此는 我立國의 旗幟오. 進하야 國際不義를 監督하고 宇宙의 真善美를 體現할지니 此는 我韓民族이 應時復活의 究竟義니라……"[142]

당시 해외에서 민족운동을 이끌던 민족운동 지도자 다수가 참여한[143] 선언서의 내용은 선언서를 기초한 조소앙 등 소수 인물에 국한된 견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동권(同權)은 정치적 평등을, 동부(同富)는 경제적 평등을, 등현(等賢)은 교육적 평등을, 등수(等壽)는 사회적 평등을 개인 및 국내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 민족평등(民族平等)은 민족 간의 평등을, 평균천

---

140) 독립선언서에 이러한 평등이념과 평화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오독립선언서'나 '3.1독립선언서' 모두 한결같다. 5장의 내용 참조.

141) 무오년인 2018년 작성되어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한다. 아직까지 작성 시기와 발표 시기가 정확하게 고증되지 않았다.

142) 삼균학회, 『素昂先生文集』 上, 서울, 횃불사, 1979, 230~232쪽.

143)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이들은 金敎獻, 金奎植, 金東三, 金躍淵, 金佐鎭, 金學滿, 呂 準, 柳東說, 李 光, 李大爲, 李東寧, 李東輝, 李範允, 李奉雨, 李相龍, 李世永, 李承晩, 李始榮, 李鍾倬, 李沃, 文昌範, 朴性泰, 朴容萬, 朴殷植, 朴贊翼, 孫一民, 申檉, 申采浩, 安定根, 安昌浩, 任邦, 尹世復, 趙鏞殷(조소앙), 曺煜, 鄭在寬, 崔炳學, 韓興, 許爀, 黃尙奎 등으로 당시 해외에서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대부분의 명망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적으로 만주, 연해주, 미주, 중국 관내를 포괄하고, 정치, 사상적으로는 민주공화제와 사회주의를 아우르며, 종교적으로도 대종교와 기독교, 유교 등이 망라되어 있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서명을 했던 인물들과 당시 민족운동을 양분하였던 외교노선과 무장투쟁노선을 대표하는 인물들도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대한독립선언서」는 당시 민족운동을 이끌던 대부분의 운동가들이 동의하였던 독립 및 민족운동의 방향에 대한 거대한 합의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平均天下)는 국가 간의 평등을 국제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첫째, 민족평등을 전 세계에 베푸는 것, 둘째, 평균천하의 세상을 만드는 것, 셋째, 대동평화를 선전하는 것, 넷째, 남녀노소, 빈부 차별이 없는 동권동부의 이념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조선독립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독립선언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독립선언문」의 내용이다.

>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幷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며, **全人類 共存 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중략)……今日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아니하도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중략)……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아닐 뿐 아니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의 主軸 四億萬 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를 갈수록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 全局이 共倒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여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한 感情上 問題리오.……"[144]

「독립선언문」의 경우 「대한독립선언서」와 같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역시 평등과 평화를 위해 한민족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평등과 평화의 강조는 '3.1 독립선언'을 주도한 천도교가 '인내천'이라는 근대적 개념의 평등사상을 핵심 사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문에 반영한 것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던 인물들이나 천도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던 인물들이 모두 대동소이한 평등관과 평화관을 표방하였다는 것은 대종교 역시 동학사상이 주도한 한국적 근대의 영향을 받은 수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의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는 언급은 「대한독립선언서」가 언급한 민족평등과 상통한다. 「독립선언문」은 한민족의 독립이 일제를 파괴하거나 증오의 감정으로 일제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정당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민족의 독립을 동양평화, 세계평화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하되, 독립의 과정과 그 연장의 과정에서 평등에 기초하여 동양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룩하자는 평등과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적인 세계관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단결이 민족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는 인식은 1917년 해외에 망명한 14인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작성한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대동단결선언」의 앞부분이다.

> "夫合則立分則倒난 天道의 原理오 分久欲合은 人情의 律呂라 撫念하건대 久로난 三百年儒者의 黨論이 李朝滅亡史의 太半을 占領하엿고 近에 至하야 난 十三道志士의 墻鬩이 新建設의 中心을 攪亂하난도다 如斯한 三分五裂의 悲劇을 目睹하고 分門立戶의 苦痛을 備嘗한 吾人은 情律에 依하야 大合同을 要求함이 自然의 義務오 또 道理에 據하야 總團結을 主張함이 當然의 權利로다 非但吾人의 主論이 如是라 一般同胞의 聲이오 時代의 命이니 滿天下傷心志士에 誰가 獨히 同感치 안으리오……"[145]

---

144) 최남선 등, 「독립선언문」, 1919. 3. 1. 해외에서 선포된 여러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은 민족운동세력의 분열을 가장 큰 내부의 모순으로 인식하였고, 지역감정에 기반한 민족운동세력의 내부분열을 민족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으로 보았다. 분열이야말로 나라가 망한 원인이자, 나라를 되찾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인식하였고, 따라서 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대합동'과 '총단결'을 통해 민족의 '대동단결'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대동단결선언」에서 제시된 민족독립의 전제인 '대동단결'을 실천하기 위한 방략 또한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당시 민족운동세력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지도이념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이 걷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개인의 평등(계급해방), 민족평등(민족해방), 평균천하(세계해방)를 추구하자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동학의 시천주, 사연여천, 인내천 사상의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 사상 모두 한국 전통의 평등사상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동학이 가장 이른 시기 이러한 평등사상을 혁명사상과 후천개벽 사상의 근원으로 제창하였기 때문이다.

1919년 3.1혁명이 폭발하기 이전까지 민족운동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선언문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독립정신'의 대체적인 윤곽은 민족의 '대동단결'을 통해 민족독립의 기반을 이룩하고, 개인적, 민족적, 국가적 평등을 실천함으로써 세계평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한민족의 독립론이자 세계관이며, 민족운동 전략이었다. 이는 동학이 제시한 한국적 근대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3.1혁명은 독립정신을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였다. 3.1혁명의 영향으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나 그밖에 민족운동단체들이 3.1혁명 이전의 '독립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살펴볼 것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에 선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강」과 「헌장」이다. 「정강」에는 역시 앞에서 확인된 독립정신의 핵심요소인 '평등'과 '평화'가 강조되어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포한 「정강」[146]이다.

一. 民族平等 · 國家平等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二.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三.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四. 外國에 對한 權利 義務난 民國政府와 締結하난 條約에 一依함
五. 絶對獨立을 誓圖함
六.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난 者난 敵으로 認함

「정강」의 1항에는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고 하여 3.1혁명 이전 '독립정신'의 핵심요소인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장」[147]이다.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에 我 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145) 申聖·趙鏞殷·申獻民·朴容萬·韓震·洪煒·朴殷植·申采浩·尹世復·曺煜·朴基駿·申斌·金成·李逸, 「大同團結之 宣言」, 1917, 7.
146) 대한민국임시정부, 「정강」, 1919. 4. 11.
147)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1919. 4. 11.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 · 言論 · 著作 · 出版 · 結社 · 集會 · 信書 · 住所 · 移轉 · 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資格이 有한 者는 選擧權及 被選擧權이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야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의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난 國土恢復後 滿 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장」에서 주목할 것은 '제1조'와 '제3조', '제7조'의 내용이다. 다른 조항이 형식과 절차를 나타내는, 시기별로 변화가 가능한 가변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반면, 이들 조항은 임시정부가 지향하는 이념적, 사상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체의 국가임을 선포하고 있다. 제3조의 경우 대한민국이 빈부나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한다고 표방하였는데, 이는 앞서 「대한독립선언서」 등에서 표방된 '독립정신'의 핵심 가치인 '평등'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시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7조의 경우 역시 앞서 표방된 '독립정신'의 핵심 가치인 평화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시 중요한 이념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3.1혁명의 민족적 요구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강」 및 「헌장」을 통해 3.1혁명 이전에 민족운동 세력 대다수가 합의한 '독립정신'을 공유,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1930년 1월 상해에서 설립된 한국독립당(이하, 한독당)은 임시정부 민족주의 계열의 인물 대다수가 참여한 정당으로 당시 임시정부 주도세력의 지향점을 「당의」와 「당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독당 설립 당시 발표된 「당의」의 내용이다.

> 우리는 5천 년 獨立自由하여 오던 국가를 異族 일본에게 빼앗기고 지금 정치의 蹂躪과 경제의 破滅과 문화의 抹殺 아래서 사멸에 직면하여 민족적으로 自存을 得하기 不能하고, 세계적으로 共營을 圖하기 末由한지라. 이에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 일본의 모든 침략세력을 撲滅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주국을 건설하여서, 안으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 생활을 확보하며, 밖으로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世界一家의 進路로 향함.[148]

역시 개인의 평등, 민족의 평등, 국가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리하여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부터 한독당과 임시정부는 비교적 분명한 이념적 색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한독립선언서」에서 공개되었던 '독립정신'의 개략적인 내용이 '삼균주의'를 통해 단계별 전술과 전략으로 구분되어 보다 구체화 되었고, 이로써 삼균주의는 정치이념으로써 일정한 이론적 뼈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종교 계열의 정치인들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삼균주의를 통해 정치이념을 이론화한 것과 달리 국내가 주 무대였던 천도교는 3.1혁명 이후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는 천도교의 평등, 평화 사상이 현대적 정치이념으로 발전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다. 다음은 한독당의 「당강」이다.

---

148) 삼균학회, 앞의 책(『素昂先生文集』 上), 337쪽.

1. 대중에 대하여 혁명의식을 환기하고 민족적 혁명역량을 총집중할 것
2. 엄밀한 조직하에 민중적 반항과 무력적 파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3. 세계 피압박민족의 혁명단체와 연락을 취할 것
4. 보선제를 실시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평등하게 하고 기본권리를 보장할 것
5. 토지와 대생산수단을 국유로 하여 국민의 생활권을 평등하게 할 것
6. 생활상의 기본지식과 필요기능을 수학하기 위해 충분한 의무교육을 공비로써 실시하여 국민의 수학권을 평등하게 할 것
7. 민족자결과 국제평등을 실현할 것
8. 세계일가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149]

한독당의 「당의」, 「당강」은 기존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전술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독당이 이전에 표방된 '독립정신'에서 볼 수 없었던, 민족 평등을 위한 필수 조건인 한민족 독립을 위해 '일제 침략세력을 박멸'하는 민족혁명의 단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민족혁명론이 대두된 것은 1917년이나 1919년 당시에는 민족운동 세력이 외교론 등 무장투쟁 외에도 다른 전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1930년이 되면 이런 수단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 외에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삼균주의'는 '독립정신'을 체계화한 매우 뛰어난 정치사상이지만, '독립정신'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독립정신'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전략적 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보아야 한다. '독립정신'은 민족의 독립, 민족의 통일과 발전, 평등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전략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 정치, 사회, 경제, 사상적 가치가 '독립정신'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위해 하나로 화합하고 대동단결할 수 있다. 동학사상 역시 독립정신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독립정신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는 점은 삼균주의와 다를바 없다. 다만 동학사상이 '독립정신'의 근원 가까이에 있는 사상이라면 삼균주의는 동학혁명, 3,1혁명 등의 과정을 통해 축적, 발전된 '독립정신'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독당의 「당강」과 「당의」를 통해 전술적 구체성을 확보한, '독립정신'을 대표하는 정치사상의 하나인 '삼균주의'를 독립과 민족의 발전, 세계평화를 위한 전략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1931년 4월에 발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에서도 반복적으로 표방된다.[150] 주목할 것은 '삼균주의'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지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임시정부의 구성원들 역시 '삼균주의'의 이념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며, 독립된 조선에 그간 논의되어온 '독립정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다시 광복 후 한반도에 건설할 신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건국강령」의 총장 6항에서는 1931년 4월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에서 언급한 '삼균주의'를 건국한 새로운 국가에서 확대하고 발양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3장에서는 건국된 국가에서 삼균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삼균주의'에 입각한 각종 제도를 실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151]

이처럼 3.1혁명 이후에도 이전부터 논의되어온 '독립정신'의 골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고, 이러한 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원활하게 실천하기 위해 보다 구체

149) 노경채, 『한국독립당연구』, 신서원, 1996, 86~87쪽.
150)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民國臨時政府資料集』 22, 국사편찬위원회, 2008, 59~65쪽.
151)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 72號」(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 2006, 250~254쪽).

적인 전술과 방략들이 첨가되었다. 광복 이전 '독립정신'의 주요 실천과제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혁명, 즉 민족의 독립이었고, 광복으로 독립국가가 건설된 이후에는 개인, 민족, 국가의 평등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주도하는 것이었다.

4. '3.1정신'과 '천도교정신'

'3.1정신'은 동학혁명, 의병전쟁, 독립운동 및 각종 민족운동의 과정에서 확인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오늘날 제도에 반영하고 실현함으로써 보국안민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통합, 대동단결을 함으로써 독립정신과 세계평화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를 확보하는 실천 전략이다.

동학의 창시와 함께 시작된 한국의 근대는 동학사상의 변천 및 발전과 함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동학의 평등사상은 조선의 신분질서에 타격을 가하였고, 시천주, 사인여천의 평등사상과 보국안민, 제폭구민, 축멸왜양 등의 시대정신을 기치로 봉기한 동학혁명은 조선의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민족의식을 성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천도교 지도부는 '3.1독립선언'을 통해 '3.1혁명'을 견인하였고, 동학의 평등사상을 한국적 근대의 전략이자 '독립정신'과 '3.1정신'의 핵심 구성요소로 관철시켰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정신'은 동학이 표방한 평등, 평화, 반외세 등의 가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정신'과 그 실천 전략인 '3,1정신'은 천도교정신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1860년대 평등사상을 제기하며 한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였던 동학의 사상과 각종 구호들은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기된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상과 구호들은 각종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통해서 제기되거나 표방되었던 가치들이다. 또한, 1920년 독립전쟁에 참여한 단체들이나 1920년대 초중반 만주지역에서 성립된 여러 민족운동 단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들을 표방하며 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평등에 기반한 평화와 이를 위한 전제로 대동단결을 제시하는 '독립정신'과 이를 실천하고 통합하는 전략으로서 '3.1정신'은 이미 초기의 동학과 천도교 사상에서 제기되었다. 다만 시천주-사인여천-인내천으로 평등을 지향한 핵심 사상이 점차 직설적이고, 근대적인 수사로 바뀌어 갔던 것은 점차 서구의 영향이 한반도에 깊숙이 침투하고, 민란과 동학혁명 등으로 민중들의 인식과 요구가 급격히 높아졌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학사상의 창시부터 3.1혁명의 주도까지 동학과 천도교는 일관되게 평등사상을 주장하며 근대 민족운동을 주도하였고, 동학사상을 독립정신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시켰다. 결국, 독립정신과 3.1정신의 근원에는 동학사상과 천도교사상이 있고, 이들은 서로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3.1혁명은 동학 세력을 축으로 전개된 근대의 거대한 여정, 혹은 동학적 기획의 결과물이었다고 보아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근대 초기 한국의 정신과 사상을 주도하면서 한국적 근대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 동학은 한국 근대의 서막을 열었을 뿐 아니라 근대민족으로서 한민족을 탄생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근대 초기를 주도한 동학의 사상과 실천이 바로 역사적, 사회적 의미의 천도교 정신일 것이라 확신한다.

최근 탑골공원이 주목을 받는 것은 탑골공원이 3.1혁명을 상징하는 기념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탑골공원이 가진 지리적, 역사적 요소가 3.1혁명의 상징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탑골공원은 상징물이자 공간일 뿐 결코 '독립정신'이나 '3.1정신'을 대표할 수 없다. '3.1혁명'의 정신이나 '독립정신'을 대표하는 것은 마땅히 그 사상의 기원이 되었거나 형성에 기여한 사상이나 인물이어야 한다. 동학사상이 성립된 순간부터 일관되게 3.1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흐름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천도교가 가지는 상징성은 단지 기념물로 존재하는 탑골공원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

다. ‘독립정신’과 ‘3.1정신’은 동학과 천도교에서 비롯된 정신이자 사상으로 오늘날 ‘독립정신’과 ‘3.1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상적, 정신적 상징도 동학과 천도교 외에는 없다고 본다. 탑골공원이 3.1혁명으로 인해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사성을 근거로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 역시 ‘독립정신’과 ‘3.1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천도교 종단뿐이다.

한국의 근대는 동학의 평등사상과 함께 시작되었다. 또한, 근대민족 한민족을 완성한 3.1혁명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주도하였다. 근대의 시작점부터 3.1혁명까지 한국의 근대의 초기를 관통한 핵심 사상과 가치, 운동의 중심에 동학과 천도교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천도교가 그간 혁명의 역사를 통해 축적한 도력과 공력에 어울리는 사회적, 사상적, 종교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근대를 주도한 동학의 사상과 가치를 계승하여 현대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보국안민’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며, 평화의 사상으로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천도교의 선한 영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천도교가 주도한 3.1혁명이나 근대 시기의 여러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그간의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 종단 주도로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고, 천도교의 가치와 결합시켜 천도교와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 모색들이 교단의 정책과 방침으로 실천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근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천도교가 한국사회의 주요의제를 선도하는 종교와 사상으로서 커다란 사회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토론 2

근대 시기 천도교와 3·1혁명-근대를 관통한 천도교의 '독립정신' 토론문

김 영 진 (경희대학교)

본 발표문 "근대 시기 천도교와 3·1혁명-근대를 관통한 천도교의 '독립정신'"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 불리는 19세기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근대 시작점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근대와 그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사학에서 근대의 기점으로 상정하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비판하면서 한반도 최초의 근대 혁명인 동학혁명의 근대적 의미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근대 초기의 궤적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학혁명은 조선 민중의 의식을 근대로 견인하였으며, 이 근대의 흐름이 대동단결과 평등·평화라는 한국적 근대의 가치를 표방하며 근대 민족으로서 한민족이 탄생한 3·1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발표문 2장에서는 1860년대의 양반, 유생들의 위정척사는 실패한 것이며, 최제우에 의해서 창시된 동학의 侍天主 사상은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를 거부하는 혁명적, 사회적 사상이며, 輔國安民을 우선한 실천적 구국사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학은 2대 교주 최시형의 事人如天, 3대 교주 손병희의 人乃天 사상으로 발전하여 한국적 근대의 전략적 가치인 평등, 평화의 이념으로 정착되었고, 최종적으로 3·1혁명을 통해 근대적 가치와 전망인 '독립정신'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발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 동학혁명에서 농민군이 천명한 폐정개혁안의 조목들 속에서 평등개념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병희에 의해서 1905년 동학이 천도교 변경하고 1919년 1월부터 독립운동으로 대대적인 3·1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혁명의 중대한 의의는 전 민족이 하나의 가치와 목소리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내의 농민, 노동자, 청년, 학생 등 거의 모든 계층의 민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천명하였고, 중국, 러시아. 일본, 구미의 한인들 역시 이러한 '대동단결'의 흐름에 동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자는 동학에서 시작된 조선 민중들의 근대적 자각은 일제의 수탈과 함께 진행된 근대적 모순들과 부딪히면서 평등과 해방, 조선의 독립이라는 확고한 근대의 지향점으로 수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독립정신의 근원은 동학의 평등과 평화사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1918년 11월(음력) 조소앙 등이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와 최남선이 작성하여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낭독된 「독립선언문」에는 개항 이후 한민족의 과제로 부상한 '독립정신'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일부로 '독립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평등', '평화'에 대한 인식이 언급되어 있음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본 발표문을 읽으면서 동학, 천도교, 그리고 3·1 혁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관통할 수 있었으며, 동학과 천도교에 내재된 종교적 성격을 넘어선 가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19세기 서양의 근대가 동아시아로 올 때 점잖게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랬고, 일본 또한 그랬습니다. 서양문명을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만이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겨 서구 근대문명의 힘을 증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역사발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는 곧 서양문명의 근대는 곧 서양의 승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식에서 볼 때 동학에서 주장하는 사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동학의 근대성이라 불리는 평등개념은 서양의 평등 개념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그 개념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과도 어떤 유사성과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2. 19세기 조선의 역사를 규정할 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대 이행기, 민란의 시대, 동학의 시대, 19세기 위기론, 자본주의 맹아론(자맹론), 그리고 내재적 발전론, 뒤이어 식민지 근대화론(식근론) 등.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3. 19세기 조선은 서양문명의 충격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양반 유생들의 위정척사, 위로부터의 갑오개혁 등이 있었지만 동학혁명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대변한 농민들이 또 다른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이들의 사상적 기치는 분명 혁명적이었지만,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본 발표문에서 위정척사론, 위정척사사상, 위정척사운동 등이 나오는 데 용어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발표 3

동학과 천도교: 이념적 계승성을 중심으로

안 외 순 (한서대학교)

1. 서론

주지하다시피 천도교(天道敎)는 1860년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에 의해 창도된 동학(東學)이 1905년 3대 교주 의암(義庵) 손병희(孫秉熙 1861-1922)에 이르러 그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종교이다.[152] 동학과 천도교는 근대에 성립된 한국 자생적 신생종교이기는 하나 특히 1860-1920년대까지 70여년 간은 그 활동과 활약에 있어서 종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는 물론 및 외교사, 사회운동사, 민족운동사, 나아가 심지어 동아시아사의 판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동학을 창도한 지 4년만에 교주 수운이 혹세무민한다는 죄명으로 조선정부로부터 사형을 당할 정도로 민중적 호응을 끌었고,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대에서는 교세의 전국화와 정부를 상대로 한 동학혁명뿐만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한 동학전쟁을 수행했으며, 동학으로 입교하여 천도교 교주를 지낸 3대 손병희와 4대 교주 춘암(春庵) 박인호(朴仁浩)는 모두 반일 독립운동 등 당시 민족운동의 중심에 위치하였었다. 1919년 천도교가 3·1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천도교의 언론문화운동과 학교교육운동 등으로 교인들의 전국적 확산세 덕분이었다.[153] 백암(白庵) 박은식(朴殷植)에 따르면 천도교 "신도가 날마다 증가하여 300만을 헤아린다. 그 발전의 신속함은 거의 고금의 종교계에 일찍이 없는 일"[154]이라고 할 정도로 교인수가 압도적이었다. 당시 한민족 총인구 2천만 가운데 천도교도가 300만이었다고 하니 7명에 1명이 천도교도였다는 얘기다. 어느 정도 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당시 천도교의 교세를 가늠케 한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이후 천도교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특히 최린(崔麟 1878-1958)이 5대 교주를 맡은 이후 천도교 지도부의 성격은 이전과 달리 친일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어 천도교세는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천도교내 구파를 비롯한 여러 분파들에 의해 종전의 동학과 천도교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이전의 영광과 규모는 역사화된 측면이 강하다. 이 글은 이 가운데 동학 창도시기부터 1920년대 박인호 시기까지의 동학과 천도교의 정신적/이념적 계승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양자의 종교적 측면보다는 이념적 측면, 곧 정치/사회 사상적 측면에서 그 계승 관계를 살펴본다는 말이다.[155]

---

152) 의암은 다음 수운의 '천도' 설명에 입각하여 교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東經大全』 <論學問>. "夫天道者 如無形而有迹 地理者 如廣大而有方者也 故 天有九星 以應九州 地有八方 以應八卦而 有盈虛迭代之數 無動靜變易之理 陰陽相均 雖百千萬物 化出於其中 獨惟人 最靈者也(무릇 천도란 것은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고, 지리란 것은 넓은 것 같으나 방위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울에는 구성이 있어 땅의 구주와 응하였고 땅에는 팔방이 있어 팔괘와 응하였으니, 차고 비고 서로 갈아드는 수는 있으나 동하고 정하고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느니라. 음과 양이 서로 고루어 비록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마는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

153) 이에 대해서 임형진, 「천도교의 성립과 동학의 근대화」 『동학학보』 16권 2호, 2008 참조.

154)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 서문당, p.126.

2. 인간존중/만민평등 이념

수운의 창도 당시 동학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상은 '시천주(侍天主)' 이념이다. 동학의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주문인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156]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은 '시천주'적 존재로서 존엄하기도 하고 스스로든 타자에게든 이를 잘 지키기만 하면 최고의 경지인 조화(造化)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이자 존엄한 존재이다. '시천주'의 '시(侍)'는 "내유신령(內有神靈)하고 외유기화(外有氣化)하여, 일세지인(一世之人)이 각지불이자야(各知不移者也)"[157] 혹은 "(천주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한단 말가"[158]에서 의 존재이므로 신분이나 지식 여부와 관계 모두 '지존인 한울님을 공경하는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나아가 수운은 "인의예지는 선성(先聖: 공자-필자)이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守心精氣)는 내가 다시 정하는 바이다"[159]라고 하여 유교적 만민의 본성론을 인정한 위에, 그렇지만 주자학적 유교의 격물치지적 주지주의는 비판하면서[160] 누구나 자신의 마음과 기를 지키고 정갈히 하기만 하면 도덕이 성립된다는 '도성덕립(道成德立)'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만민평등사상을 확립하였다. 요컨대 수운의 '시천주' 사상은 모든 사람은 각각 '개별적으로 천주를 모시는 존재'로서, 모든 인간 존재는 시천주의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와 '시천주' 신앙을 통하여 비로소 인격적 존엄성을 얻게 된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해월에게서 이것은 '양천주(養天主)', '인시천(人是天)' '사인여천(事人如天)'·'이천식천(以天食天)', '물물천사사천(物物天事事天)'의 주장과 범천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 인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한편 서민들의 생업, 곧 농사·장사 등 상공업을 신성시하게 해 주는 범천론을 전개하였다. 첫째, 해월은 남녀를 포함한 만민평등사상은 시천주 논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능동화한 '양천주'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곧 '천주를 모시는 주체'에서 '천주를 기르는 주체'로 전환하여 말 그대로 절대인격체인 한울을 스스로 기르는, 절대 능동성을 요구하였다. "한울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아느니라. 한울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마치 種子의 생명이 種子 속에 있음과 같으니, 種子를 땅에 심어 그 生命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道에 의하여 한울을 養하게 되는 것이라. 같은 사람으로도 한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種子를 물속에 던져 그 生命을 멸망케 함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한 평생을 마치도록 한울을 모르고 살 수 있나니 오직 한울을 養한 사람에게 한울이 있고, 養치않는 사람에게는 한울이 없나니, 보지 않느냐, 種子를 심지 않는 자 누가 곡식을 얻는다고 하더냐.[161]"또 해월은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로 집약되는 삼경(三敬)을 주장하였는데,[162] 이에 입각하여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소위 반상(班常)의 구분은 사람의 정한 바요 도(道)의 직임은 한울님이 시키신 바니, 사람이 어찌 능히 한울님께서 정하신 직임을 도로 걷을 수 있겠는가. 한울은 반상의 구별이 없이 그 기운과 복을

---

155) 이념(ideology 혹은 political thought)의 한자어 '理念'의 '理'는 '(정치적으로) 다스리다'는 뜻이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재세이화(在世理化)'는 하늘의 아들 환웅이 천상에는 관심이 없고 지상에 내려와 정치로 다스려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결과하기 위해 삼위태백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해서 후일 단군세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이다.

156)『東經大全』<論學問>.

157)『東經大全』<論學問>.

158)『용담유사』<교훈가>

159)『東經大全』<修德文>

160) "삼년불성되게 되면 그 아니 헛말인가"라고 하여 주자학적 유교의 주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161)「海月神師法說」, <養天主>.

162)「海月神師法說」, <三敬>.

준 것이요,....이제부터 우리 도 안에서는 일체 반상의 구별을 두지 말라."[163] "우리나라 안에 두 가지 큰 폐풍이 있으니 하나는 嫡庶의 구별이요, 다음은 班常의 구별이라. 嫡庶의 구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요 班常의 구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이니라. .....이 세상 사람은 다 한울님이 낳았으니, 한울 백성으로 공경한 뒤에라야 가히 태평하다 이르리라."[164] 어린이도, 부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해월의 만인평등의 한울론은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165]하듯이 현실태에서는 나의 스승이기도 한 것이다. 이 역시 오늘날 소수자 혹은 노약자의 인권론과 상통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만인의 평등도 되지만 소위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배려적 평등론이다. 또 해월은 다른 문답에서도 당시까지의 사회가 여성들을 억압해왔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그래서 여성의 모든 일은 사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여성의 수도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학의 앞날이 여성의 수도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하였다.[166] 그는 궁극적으로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라고 말할 만큼 적극적인 여성인식을 행하였다. "부인은 한 집안에 주인이니라. 음식을 만들고, 의복을 짓고, 아이를 기르고,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을 부인이 감당하니, 주부가 만일 정성없이 음식을 갖추면 한울이 반드시 감응치 아니하는 것이요, 정성없이 아이를 기르면 아이가 반드시 충실치 못하나니, 부인 수도는 우리 도의 근본이니라. 이제로부터 부인 도통이 많이 나리라. 이것은 일남구녀를 비한 운이니, 지난 때에는 부인을 壓迫하였으나 지금 이 운을 당하여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리니, 이것은 사람이 다 어머니의 胞胎속에서 나서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167] 라고 하여 아기 한울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 '슈퍼대디'라는 용어가 어렵지 않게 들리는 것도 해월의 혜안을 증명하는 바이리라. 가정사는 인류사와 우주사를 건설하는 최초의 기초가 맞고, 여기에 남녀가 없으며, 상호 배려해야 하는 배려적 양성주의가 있을 뿐이다.[168] 〈내수도문〉 1조는 내용면에서 볼 때 이 삼경사상의 실천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만물에의 경(敬) 사상이 내포되어 있고, 그런 만큼 그것은 삼경론에 나탄난 만민평등사상이 부인의 처지에서 보는 실천윤리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해월의 동학에서는 녹색민주주의 혹은 에코민주주의적적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구정물 등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가래, 침, 코 등을 땅에 함부로 뱉지 말고 혹시나 땅에 떨어져 있으면 청소해야 한다고 하는 행위는 오늘날 함부로 가래침을 뱉으면 벌금을 매겨서라도 금하는 정신과 같다고 하겠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침이나 가래 등을 당에 뱉는 행위는 천지 부모님의 얼굴에 뱉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면 우주의 생명본체인 한울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주의 생명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천지 자연을 부모와 같이 대하고 보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월의 가르침은 바로 우주의 생명은 한울님의 영기로 가득하여 인간, 생물, 무생물이 서로 조화롭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연·인간 생명계의 상호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에코페미니즘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169]

셋째, 새로운 심고법 제시를 통해 기존의 권력관계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인식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잘 때 잔다고 하고, 일어날 때 일어난다, 물길을 때 물

---

163)「海月神師法說」, <布德>.
164)「海月神師法說」, <布德>.
165)「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166)「海月神師法說」, <明心修德>.
167)「海月神師法說」, <婦人修道>.
168) 안외순,「김천과 〈내수도문〉, 그리고 동학의 배려적 양성주의」『경상도 김천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7.
169) 정정숙,「海月思想의 에코페미니즘的 解釋」『동학연구』16, 2004. p.122, pp.128-129 참조.

긷는다, 몇 말 몇 되 방아 찧었다 등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울님께 고하는 심고 행위는 자칫 평범한 일상행위에 대한 의미부여 혹은 존중으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혹은 양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점은 각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남성중심, 공적영역 중심의 일종의 심고법 영역을 해체하고 일상영역 및 여성영역을 그 자리에 대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기존의 남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과거시험을 볼 때, 관직에 출사할 때 등 나름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거나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일들을 수행하기 전에 사당(祠堂)에 가서 고하는 것을 여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기존에 매우 사소한 일로 치부되면서 행해왔던 모든 가정사 및 일상 행위에 관해 일일이 한울님께 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기존의 부당한 가치 부여 행위 관습에 대한 일방적인 의미부여 관행 타파와, 다른 하나는 일상 세속행위의 가치 부여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기존에 남성 중심의 행위영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치나 권위를 부여하던 방식을 탈피한다는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여성의 일상 세속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행한다는 점이다.[170]

의암의 천도교에 오면 이것은 '인내천(人乃天)'의 인간존중 이념으로 나타났다. 천도교 선포 이후 의암은 앞의 두 교주의 사상을 '인내천'의 종지로 교의화하였다.[171] 즉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여 인간 존엄의 성격을 더욱 단언적으로 즉자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근대 시민적 평등사상의 기초가 대인관계에서 상하·주종의 지배·복종관계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횡적인 인간평등관계를 가르쳐 줌으로써, 동학과 천도교가 모두 동학혁명이나 전쟁에서, 3.1혁명이나 임시정부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3. 근대 민주주의 이념

이념적 차원에서 볼 때 천도교는 동학의 근대 민족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더욱 확장시켰다. 사실 근대 민족주의 이념은 대내적으로는 시민/민중주의를, 대외적으로는 반외세적 자주독립 국가를 의미한다. 요컨대 민족주의가 혈연적인 정치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편으로는 시민에 의한 국가건설 이념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제국주의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동학의 수운 이래 동학의 슬로건이 된 '보국안민(輔國安民)[172]'은 여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개념이다. 이 역시 밖으로는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안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민족주의 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보국안민은 원시유교부터 존재하던 유교의 오래된 슬로건이다. 하지만 이것이 동학에 근대적 슬로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것이 종래와 달리 보국안민의 주체가 기존의 국왕 혹은 성인이 아니라 민중 혹은 국민이라는 피지배층이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민족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민족주의 개념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국내 학계의 경우에는 이 양자를 분리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기서도 전자와 후자로, 곧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주의 이념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1860년 4월 5일 수운이 창도한 동학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이미 반외세적 근대적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동학은 서학/서교의 대항마로서 출범했다. 아울러 이 시기 동학의 위대성은 지도부의 실천만이 아니라 동학교도 스스로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였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예컨

170) 안외순(2017) 참조.
171) ≪天道敎創建史≫.
172) '보국안민(保國安民)'으로 쓰기도 한다.

대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 취회(取會)에서 최대로는 약 2만명이 운집하여 이미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한 통고문을 보은 관아에 게시했고, 그 세력이 워낙 커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선무사(宣撫使) 어윤중(魚允中)과 충청 병사 홍재희(洪在羲)에게 300명의 군사 파병하면서 각자 귀가하여 생업에 종사하라는 고종의 윤음(綸音)을 전달하는 상황까지 결과했다는 사실이다.[173]

이듬해인 1894년에는 동학교도이자 접주인 전봉준의 주도하에 동학민중혁명이 발생하여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역시 각종 근대 민족주의적 성취를 많이 이룩한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예컨대 고부 백산(白山) 대회에서 혁명의 대오를 갖춘 후 전봉준이 동도대장(東徒大將)으로 추대된 전봉준은 손화중 · 김개남 총관령(總管領)의 보좌하에 창의의 뜻을 ①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②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③ 일본오랑캐를 내쫓아 성도(聖道)를 밝힐 것, ④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권귀(權貴)를 모두 죽일 것 등 4개항을 선포한 점에서도 근대적 민족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학도들의 민주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의 정부의 정책의 상태를 폐정이라고 진단하고 혁파할 것을 요구했다. 동학농민군의 폐정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동학농민군의 정치적 구상은 당연히 단계별로 변화, 발전하였다. 사안이 진전되면서 의식과 더불어 변화되고 구체화되었다.[174] 그리고 자치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도 컸다.

1.도인(道人)(:초고본-동학교도)과 정부 사이의 오랜 감정을 없애고 서정(庶政)에 협력(協力)할 것.(: 인명을 남살(濫殺)한 자는 목을 벨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일일이 엄징할 것.(: 탐관오리는 거근(祛根)할 것)
3.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동일)
4.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엄징할 것.
5. 노비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6. 칠반천인(七盤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립(平壤笠)을 벗 게 할 것.
7.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가할 것.(: 없음)
8. 무명잡세를 거두지 말 것.
9. 관리의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외적과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는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할 것.[175](: 11조로 가고, 여기서는 대신 '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것)

동학혁명 당시 민주주의 이념의 실천은 집강소를 통한 민관협치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하겠다. 동학의 경우는 특히 혁명과정에서 전주성 점령 및 정부와 화약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의 요청으로 전주감영에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하고 전봉준을 대도주(大道主)를 맡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체에 53개 군현에 집강소(執綱所)를 두어 관민상화(官民相和)의 협

173) 채길순,「동학혁명의 전개과정과 보은 취회」, 『동학연구』13호, 2003 참조. 기타 각종 동학의 취회에 대해서는 박대길, 「동학의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전북사학』37, 2010 참조.
174) 김신재,「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국가형태 지향」,『동학연구』17, 2004, p.95
175) 愼鏞厦,『東學과 甲午農民戰爭硏究』, (서울: 일조각, 1993), p.266. ()은 오지영 초고의 내용임

치기구인 거버넌스 체제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집강소에는 분장을 나누어 집강 밑에 서기 · 성찰(省察) · 집사(執事) · 동몽(童蒙) 등 임원을 두어 행정사무를 분담케 하였다. 그의 감영으로 초치하여 치안의 복구와 관민의 화합에 대한 방책을 상의하였다. 동학교도가 각 읍의 집강이 되어 지방의 치안과 행정은 사실상 이들이 담당했던 것이다. 이는 슬로건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176]
이것이 천도교에 이르면 몇 차례의 근대식 의회제도, 곧 총인원(叢仁院)과 의정회(議正會) 시도로 계승되었다. 특히 1908년 교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립한 총인원은 창립 당시 총인원의 의사원은 정원 12명에 불과하였으나, 1914년에는 35명으로 증가하였다. 총인원의 의사원은 중앙총부의 사장, 관장, 관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議事提案, 탄핵, 조사 등을, 중앙총부 밖에서는 巡諭와 교섭 등의 권한을 가졌다. 그렇지만, 교규의 제정,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사정 등 의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 후 홍병기, 오지영 등이 을 제정하여 3권이 분리된 형태의 종의원·종무원·종법원의 삼원제를 실시하여, 그 중에서도 대의기구인 종의원을 강화하면서 종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교권 분쟁을 와중에서 다시 유야무야 되었다가 천도교의 의회기구는 1925년에는 종리사·종법사·포덕사가 참여하는 법회, 1940년에는 교구장, 도훈, 교훈 중심의 총회로 변모하였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일반교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여, 교칙을 제정하고 예산의 제정과 결산의 사정을 담당하며, 교회의 중요사업을 결정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천도교의 민주적 대의기구인 의회는 해방이 되어서야 부활되었다. 천도교중앙총부는 1945년 10월 반포하여, 공론의 장으로서 대회, 연원회, 교구회, 전교실회 등을 조직하였다. 이 중 선거로 뽑힌 대의원으로써 구성된 대회는 일반규약의 의정, 예산 및 결산, 교무 상 중요사항 의결, 교화원장·교무원장·경리원장·감사원장을 선출하였다. 대회는 일반교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기구였으나 상설조직은 아니었다.[177]

4. 근대 민족주의 이념

동학농민군의 1차기포(起包)는 조선의 지방정부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조선정부를 상대로 폐정개혁(弊政改革)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혁명'의 성격이었다. 2차기포는 제국주의 일본(日本), 그리고 그의 공수동맹국(攻守同盟國)이 된 조선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곧 '전쟁'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민상화의 집강소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동학농민혁명 시기였다면 그 이후는 동학농민전쟁 시기였다고 하겠다.
일본의 주장대로 동학농민군의 기포 때문에 청/일군이 조선에 들어온 것이라면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맺었으면 청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기포는 빌미였을 뿐 처음부터 이를 기회로 조선과 청국을 침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일본은 청국의 철수제안을 무시하고 철군하는 청군의 후미를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정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경복궁을 난입하여 고종을 핍박, 내정간섭을 행하고, 심지어 이 땅에서 타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강제로 조선정부로 하여금 자신들과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체결하도록 만든 일본[178] 앞에서 '척왜척양'과 '보국안민'을 기치로 걸었던 동학농민군에게 관민상화의 집강소는 포기해야 할 꿈이었다. 청도 조선정부도 못지켜주는 국가와 민족 앞에서 동학도는 다시한번 무장을 했다. 일본과 결전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권국가

176) 안외순, 「동학농민혁명과 전쟁 사이, 집강소의 관민협치」, 『전라도 전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9, pp. 109-132.
177) 조규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의회제도 도입과 운용」, 『한국사연구』 164, 2013.
178) 趙宰坤, 「청일전쟁의 새로운 이해: 한국내에서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p.57 참조.

이기에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 "금년 시월 개화간당이 왜국과 체결하고 밤을 타고 서울로 들어와서 군부(君父)를 핍박하고 국권을 천자(擅恣)하니 방백수령(方伯守令)이 모두 개화당(開化黨) 소속으로 인민을 무휼하지 아니하고 살육을 좋아하며, 생령(生靈)을 도탄에 빠뜨렸다. 이에 이제 우리 동학도들이 의병을 들고 일어나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하며, 조정을 깨끗이 평정하고, 사직을 편안히 보전하고자 하였다. … 조선사람끼리 도(道)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척왜(斥倭)와 척화(斥化)하는 뜻은 한 가지인지라 두어 자 글로 의혹을 풀도록 하게 하노니 …"[179]

2차 기포의 이유였다. 즉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걸고 기포하였던 동학농민군인 만큼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조국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정부와 화약을 맺고 집강소정치를 하던 동학농민군은 결국 재기포(再起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혁명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하는 '동학농민전쟁'이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이 불법으로 국권과 국토를 유린하는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점은 곳곳에서 증명된다. 다음은 그의 재판기록인 공초문들 속에 나온 내용들이다. "(공: 전봉준의 답) 작년 시월(十月) 나는 전주에서 기포하고 손화중은 광주에서 기포하였다. .....'귀국(貴國: 일본)이 개화(開化)라 해놓고 처음부터 일언반구도 없이 민간에게 공포한 바도 없이, 또 글 한 줄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의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초야(草野)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분개심을 금치 못하고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일본인과 접전(接戰)하여 이 사실을 묻고자 함이었다."[180]

> "(문) 2차 기포는 일본병이 궁궐을 침범하였다고 하므로 재봉기 하였다고 하니 재봉기 한 후에는 일본병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가?
> (공) 궁궐을 침범한 연유를 꾸짖고자 함이다.
> (문)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일본병들과 각국인들 모두 구축(驅逐)하려 하였는가?
> (공) 아니다. 각국인들은 통상만 하는데 일본인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서울에 진(陣)을 치고 체류하는 까닭에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81]

위에서 보듯이 전봉준이 무조건 문호개방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국제교류와 달리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침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조국의 주권이 유린당하는 침략자들 앞에서, 조선 땅에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싸우는 전쟁 앞에서, 동학농민군이 혁명 이후에 쟁취한 새로운 정치체제인 관민상화지책 집강소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제도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불가능한 구조 앞에서 그 한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182]

---

179) 『東學亂記錄』下 , p.379.
180) 이광린, 신용하 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 일지사, 1984, pp.151-152.
181) 이광린, 신용하 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 일지사, 1984, pp.156-157.
182) 안외순(2019) 참조.

동학의 민족주의적 동학 이념에 대한 천도교의 계승 측면에 대해서는 3.1혁명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소개할 묵암 이종일의 인식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5. 한 천도교인의 동학관과 그 계승 의식

이번에는 당대 천도교도에 입교하고 천도교인으로서 활동했던 주요인물의 한 명인 묵암(默菴) 이종일(李鍾一, 1858~1925)의 동학과 천도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그 계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동학교도나 천도교도가 아니었다가 천도교가 동학을 계승한 종교라는 이유로 입교하여 누구보다 강하게 천도교가 동학정신과 이념을 더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183]

1) 비천도교인이었을 때의 동학관

이종일은 주지하다시피 3.1혁명 당시 천도교계 인사지분으로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이자 〈독립선언문〉을 인쇄한 보성사 사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184] "일찍이 《황성신문(皇城新聞)》보다 먼저 창간한 《제국신문》을 운영할 때만 해도 보람을 느끼고..... 제국신문사 사장 10년 동안 나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185] 느끼면서 대한제국 초기 개화파시각에서 왕성한 민족언론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활동했지만, 이미 압력을 숱하게 당하던 민족지들이, 대한제국 후기, 특히 공식적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을 전후해서 일본의 제재로 각종 단체활동을 못하게 된 그가 유일하게 활로를 찾은 곳이 천도교였다고 하겠다. 같은 해 의암은 동학의 교명을 천도교로 변경했다.
먼저, 여기서는 비천도교도였을 때 묵암의 동학 인식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도 천도교의 동학의 계승성이 확인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첫째, 무엇보다 그는 수운과 해월의 동학사상의 핵심을 보국안민(輔國安民)하고 제세구민(濟世救民)하는 정치이념적 성격에 주목했고, 이 이념을 주창한 수운과 해월을 숭배한다고 고백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독립협회에서 연설할 적에도 다산의 실학사상과 더불어 동학의 이 이념을 강조하곤 했으며, 아울러 대한제국의 정부인사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곤 했다.[186]

> "동학사상은 우리나라 민중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수운(水雲) 선생의 이념은 다름 아닌 민중을 제도(濟度)하고 보국안민(輔國安民)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나 또한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대한제국-필자)이 이해하지 못하니 애석하다

183) 물론 당시 천도교 내부는 통일된 인식을 공유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종일은 보성사 사장으로서 『천도교회월보』를 발간하고 있었지만 1906년 천도교에서 발간하여 다음 해 종간된 일간지 『萬歲報』의 경우 동학의 동학혁명이나 전쟁 정신에 대해 유보하면서 대의제, 자치제, 국정개혁 등을 준비 혹은 추진하면서 점진론을 주장하였다. 여기는 이인직이 편집주간, 오세창이 사장이라는 점도 관련되겠지만 1910년 이전이라는 시기적 문제도 관련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만세보』를 통해서 본 천도교의 정치개혁론」『동학연구』 13.

184) 사실 3.1혁명에서의 그의 역할은 이보다 훨씬 큰 것을 넘어 주도적이었던 것은 천도교가 3.1혁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같다.

185) 『沃坡備忘錄』 1919년 3월 5일자. (『沃坡備忘錄』 3卷, (沃坡紀念事業會, 『沃坡李鍾一先生論說集』 1984))

186) 사실 당시 국가관료들만이 아니라 독립협회 주요인사들도, 이종일을 제외하고는, 동학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사실 독립협회 인사 대부분이 정부 요직인물이기도 했다. 정부가 만민공동회 등 독립협회 해체를 주장하자 쉽게 해체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187]

"나도 또한 강력히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다산의 실학사상과 수운의 동학의 보국안민(輔國安民) 사상을 고취하고 특히 동학의 교리는 제세구민(濟世救民) 하는 정신으로 가득한 교리임을 인식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내가 특히 이 교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88]

"동학도가 여전히 교조의 신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며, 동학도의 사기가 충천(沖天)하여야 한다. 나도 동학의 교리에 호감을 갖고 있으며 또 수운(水雲)과 해월(海月)을 숭배하는 바이다."[189]

둘째, 그는 동학의 민중주의적 성격, 특히 갑오동학혁명과 그 민중주의적 개혁정치 지향의 이념을 높이 평가하였다. 입교 전 손병희와 수시로 이에 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의 기록에 의하면, 후일 그가 3.1혁명 식의 거사를 수시로 의암에게 제안할 때 예시도 바로 이 동학혁명/전쟁 정신이었다.

"동학이란 무엇인가 하면 민중의 종교요 또 내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개혁하려 하는 것으로 갑오의 동학운동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손병희 교주를 찾아가 갑오년 동학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풍모는 반짝이면서도 동안(童顔)으로 역시 평온한 기상이었다."[190]

셋째, 이종일은 또한 과거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1898년 당시에도 동학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일본에 대해 투쟁하는 반일(反日)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 때문에 깊이 감화를 받고 있는데, 이점은 수운이나 해월만이 아니라 3대 교주 의암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동학도의 항일세(抗日勢)가 여전하니 손 교주의 지도하는 역량의 영향 때문이라 한다."[191]

"손병희 교주와 동학운동의 방향에 관해서 논의했다. 손 교주께서 말하기를 '우리 당의 애국심은 다른 무리들에게서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학은 바로 애국 종교임이 분명하다."[192]

넷째, 그는 이미 동학에 대해서 실질적 민중의 삶과 이익의 개선과 민중의 의식구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권과 민주의 혁명성을 온축하고 보존하는 이념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동학의 전도가 민중 생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식구조부터 개조하려 하니 동학이야말로 민권과 민주의 혁명성을 온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193]

---

187)『沃坡備忘錄』1898년 1월 16일 자.
188)『沃坡備忘錄』1898년 3월 28일 자.
189)『沃坡備忘錄』1898년 3월 6일 자.
190)『沃坡備忘錄』沃坡記念事業會 編. 1984.『沃坡李鍾一先生論說集』의 권3. 1898년 1월 31일 자.
191)『沃坡備忘錄』1898년 2월 24일 자.
192)『沃坡備忘錄』1898년 3월 19일 자.

다섯째, 자신도 여성의 권리신장 관련 논설을 썼던 그였기에 동학의 여성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자세와 권리 신장과 여성 근대화에의 기여에 공적이 크고 깊다고 평가하였다.

> "동학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길을 터 왔기 때문에 …동학이 우리나라의 개화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적은 실로 크고 깊다. 또 동학군의 봉기는 봉건제에 반항하는 울부짖음이다."[194]

> "…여성 개화의 시초를 말한다면 동학사상에 기인한다. …이것은 또한 동학사상에서 기원한 것이며 또 이것이 (여성의: 필자) 내부적 발전사관을 제시하는 것이다."[195]

이와 같이 동학에 대한 묵암의 신뢰는 오래된 것이었다. 이미 1898년부터 의암(義庵) 손병희와 교류해 왔고 동학에 대해 높이 평가해왔었다. 그리고 그것은 의암의 영향이 컸다. 그의 일기에는 이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학에 대한 우호적 평가, 계승 의지, 의암과의 관계 등이 서술되고 있다.

2) 천도교 입교 이후 행보와 인식

이렇게 이미 1898년부터 자신의 일기와 연설 등을 통해 동학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묵암은 1906년 마침내 천도교(天道敎), 곧 1년 전에 의암에 의해 동학(東學)으로부터 명칭 변경한 천도교에 정식 입교했다. 그에게 정치적 언론/집회들이 금지당하고 오직 종교단체와 학교만 존재할 수 있었던 당시 천도교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이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이전까지는 민족으로서 동학사상의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이제는 종교인으로서도 동학인(천도교인)의 정체성을 실천해야 하는 그에게 이제 천도교인은 동덕(同德)이자 동지(同志)였다.

이종일에게 천도교는 여전히 종교단체 이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끝까지 저항하면서 전쟁을 벌였던 동학의 후신으로서의 위상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총독부도 마찬가지였다. "데라우치 총독이 손병희를 직접 불러 천도교의 교회 헌금 방식인 성미제를 트집 잡아 협박과 회유를 시도하는 등 천도교는 일제기간 내내 총독부의 주요 감시 대상인 민족운동 집단"[196]으로서 규정하고 조선총독부도 천도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성을 띤 유사종교로 분류, 경무국 관할 하에 관찰 주시했던 것이다.

첫째. 1910년 국권 강탈을 기점으로 그는, 더욱 강하게 국권 회복 노력을 동학의 구국적 실천행위에서 찾았다. 국권을 박탈당한 지 한 달 되던 시점에 그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자결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결 대신에 살아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동지들, 곧 천도교인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지 벌써 한 달. 탈국에 분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그러나 기왕에 죽는 목숨이면 차라리 살아서 나라를 찾는 일에 신명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 …내가 간행하던 《제국신문》도 《황성신문》과 같이 문을 닫게 되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 구국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나는 신념으로 알고 동지들도…"[197]

---

193) 『沃坡備忘錄』 1898년 3월 31일 자.
194) 『沃坡備忘錄』 1899년 3월 12일 자.
195) 『沃坡備忘錄』 1899년 5월 31일 자.
196) 임형진, 2009. '묵암 이종일과 3 · 1운동', 『민족학연구』 8, 175.
197) 『沃坡備忘錄』 1910년 9월 30일 자.

둘째, 한민족의 언로를 대변하던 민족신문이 모두 폐간당한 1910년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맡은 천도교회의 월보를 통해 민중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후일 동학에서 실천했던 1894년의 '대중봉기'의 선례를 현실에서 국권 회복의 실천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 "나라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신념이 강하면 이것이 곧 나라를 찾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대중봉기운동을 동학운동의 계승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198]

> "…이럴 때일수록 민중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문은 전부 폐간당하고 말았으니 말이다."[199]

넷째,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미 1910년 말부터 천도교가 갑오년의 동학혁명을 모델로 삼아 민중봉기와 국권회복의 요람이자 터전으로 재현해야 하며, 이것은 신앙적 차원으로 구국운동을 일으켰던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일본 침탈에 분개하고 자결하는 인사들이 또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죽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서 죽을 때까지 침략자와 투쟁하다가 산화하는 것이 더 보람 있지 않을까 … 천도교 동지 김홍규와 장효근이 찾아왔다. …나는 입을 열었다. '대중 시위를 위해 우리 천도교가 주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오'. …그것은 동학운동과 갑진년의 개화신생활운동의 재현으로서였다. 민족운동은 그 연결인 것이다. …역시 민중운동의 선봉은 종교인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적 차원으로 구국 운동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200]

실제 그는 현실적 실천을 위하여 그는 1911년 1월 16일 의암을 만난 자리에서 갑오년의 혁명과 갑진년의 개혁을 계승한 거족적인 민주주의 민중시위 운동을 발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아침에 성사(聖師)를 찾아뵙고 '갑오동학운동과 갑진개화신생활개혁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천도교가 선도가 되어 또 다시 거족적인 민주주의 민중시위 운동을 일으켜서 일본의 불법적 침략을 타도하고 우리도 당당히 완전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201]

1912년에는 불교계와의 연합을 시도하다가 좌절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험으로 그는 동년 10월에 천도교 단독으로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民族文化守護運動本部)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의암을 총재로, 자신은 회장에 취임하여 후일 종교계의 연대기지를 구축할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3·1만세운동 훨씬 이전부터 종교계의 연대를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이러한 구상은 3·1만세운동 때 종교계가 연합하여 민족대연합전선을 구축한 배경"[202]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914년에는, 1911 이미 제기했다가 외면당한 주장을 다시 펼치되, 당해 연도가 간지(干支) 상으로 '갑(甲)'자가 들어가는 1914년 갑인년임을 감안하여 '갑(甲)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3번의 해에 벌이는 운동'이라는 뜻의 '삼갑운동(三甲運動)'의 명칭을 붙이고 대규모 민중운동을 전개하

198)『沃坡備忘錄』1910년 10월 7일 자.
199)『沃坡備忘錄』1910년 10월 31일 자.
200)『沃坡備忘錄』1910년 12월 10일 자.
201)『沃坡備忘錄』. 1911년 1월 16일 자.
202) 박걸순, 1997,『이종일. 생애와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77쪽.

고자 하였다. 즉 당해 연도가 1914년 갑인(甲寅) 해인 만큼 '1894년의 갑오동학혁명운동(甲午東學革命運動)'과 '1904년의 갑진신생활개혁운동(甲辰新生活改革運動)'[203]을 계승하여 대대적인 민중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장이었다.[204] 이 역시 동학의 전통을 활용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한 방식이다.

마침내 1918년이 되자 국내외 정세에 변화가 오면서 드디어 의암과 천도교 내부의 기류에도 변화가 왔다. 5월이 되자 드디어 의암은 결단을 내렸고 민중 시위의 방침(대중화 · 일원화 · 비폭력)도 정하였고,[205] 그러나 여전히 우여곡절 끝에 민중시위는 결국 1919년 3월 1일로 연기되었다. 고종이 갑자기 승하함으로써 민중 봉기 가능성은 극대가 되어 2월 초부터 천도교 내부는 민족대연합전선(民族大聯合戰線)을 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민중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중의 신망을 받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구 관료로 윤용구(尹用求), 한규설(韓圭卨), 박영효(朴泳孝), 윤치호(尹致昊), 김윤식(金允植) 등과 접촉하여 민족대표로 추대하려 했지만 이들은 모두 유보 또는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민족대표를 종교계 연합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족대표에 관료가 빠지고 기독교와 불교계와만 연대하게 된 배경이다.

거사 하루 전인 2월 28일은 민족대표 서명자들이 확정되어, 33인 가운데 대리 서명하는 이를 제외한 29인 모두 서명을 위하여 의암의 집에 모였다. 이 전 모임에 인쇄하느라 빠졌던 묵암도 이 날은 서명을 위하여 참석하였다.

> "나도 오늘 저녁 손의암 댁에 갔다. 우리는 33인 명의로 선언서에 각자가 서명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나눈 대표도 있다. 얼굴들이 모두 긴장해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의 운동은 동학운동의 재현임을 천도교인들은 결연히 다짐했다. 기독교나 불교 측의 가담은 대중화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2.8선언, 헌병경찰통치의 염증, 경제적 착취, 노동 착취 압박이 내일 민중계층을 총망라해서 드디어 민중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다. 준비 상태는 물론 만점이다. 내일만은 실수 없이 신명을 바쳐 거사에 성공해야 한다. 꿈을 잘 꾸자."[206]

거사 후 묵암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투옥되었다. 묵암은 투옥 생활 중 투쟁 방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왔다. 더 이상 평화적 민중 시위만으로는 국가 독립을 성취하기는 어렵고 확실하게 동학혁명 혹은 동학전쟁과 같은 갑오년의 투쟁 방식을 통한 투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 "이제는 이런 무장 독립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독립할 어떤 단서를 얻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앞선다. 사실상 우리 민족은 평화적인 항쟁을 계속한 민족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장 항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풍토를 나는 개탄하고 있다. 역시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전멸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성사(聖師: 의암) 등 모든 동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추악한 우리 한국인의 고질적인 매국 행위를 뿌리째 뽑아야만 우리의 사업이 성취될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야 천도교의 신문화운동도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207]

---

203) 박걸순, (1997) 81쪽 참조.
204) 『沃坡備忘錄』 1914년 8월 31일 자.
205) 『沃坡備忘錄』 1918년 5월 6일 자.
206) 『沃坡備忘錄』 1919년 2월 28일 자.
207) 『沃坡備忘錄』 1920년 8월 8일 자

아울러 천도교는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를 유일한 민주 정통 정부를 인식하면서 임정과의 연계를 도모했다.[208] 묵암의 경우 천도교의 자금으로 임정의 재정을 해결하는 것이 수운대신사의 복지국가 건설론과 통하고 수운과 해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 "듣건대 임정(臨政)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지난번에도 손의암 성사의 지원으로 군자금 일부가 상해 임정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다시금 송금하도록 성사께 상의할까 한다. 결국 천도교의 자금이 나라 구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수운대신사의 복지국가 건설론이 이제 다시 재현되는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7월에 인구세 부가세 징수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군자금 즉 재정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기도하였던 고육책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임정 청사 집세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구차할 때 부호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야 할 텐데 자진성이 결여되어 있다."[209]

> "듣건대 상해 임정에서는 임시법률기초위원회장정을 공포한다고 했다. 우리는 모름지기 임정이 유일무이한 합법 정부요 정통 정부임을 국민적인 자부심으로 밀고 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일본에 압박·탄압·고문을 받고 있으나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우리의 민간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지 아니한가. 새삼 그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미 우리 천도교에서 수천 원의 군자금을 송달한 것은 그만큼 이 정부가 우리의 정부요 또 우리가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민주 정통 정부 때문인 것이다. 자랑스러운 이 정부에 우리 천도교가 재정적 지원을 쏟는다는 것은 곧 대신사님과 신사님 두 어른의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싶다."[210]

Ⅴ. 결론

수운에 의한 창도 당시 동학은 '시천주'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시천주'의 존엄한 존재, 곧 만민평등 이념이 내포되고, 이를 통해 결국 '보국안민'의 근대적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까지 제시되었고 실제 인간은 그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것은 해월에 이르러 '양천주(천주를 기른다/부양하다)'와 '인시천(人是天)' 및 '사인여천(事人如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섬기듯이 한다)'는 인간존중정신은 물론 더 나아가 모든 자연의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한울에 내재한 것으로 보는 '물물천 사사천(物物天事事天)'의 범천론적사상(汎天論的思想)으로 확대되어 이른바 오늘날의 녹색주의 이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아울러 신앙으로서의 동학은 해월 단계에 와서 근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되고 생활로 심화되면서 전국적 교세 확산은 물론 동학혁명과 동학전쟁으로까지 실천되었다.
이러한 동학의 이념은 의암의 천도교에 이르러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으로 제시되는 한편 지식인과 하층민이 함께 실천하는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근대화, 곧 갑진개화운동의 모더니즘으로 계승되었다. 아울러 동학혁명과 동학전쟁으로 실천되었던 동학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은 천도교 단계에 와서 3.1혁명 주도와 상해임시정부 지원 및 춘암의 멸왜운동(滅

---

208) 천도교와 임정의 관계 및 여러 정황에 대해서는 조규태, 「천도교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호, 1999 참조.
209)『沃坡備忘錄』1920년 8월 13일 자.
210)『沃坡備忘錄』1920년 8월 27일 자.

倭運動),[211] 총인원 혹은 의정회 등 근대 의회제도 등의 시도로 찬란하게 계승되었다.
아울러 천도교의 동학 이념 계승성을 더 잘 엿보기 위해 천도교로의 전환 직후 천도교에 입교한 묵암 이종일의 관련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는 동학 창도 이래 행적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면서, 특히 동학혁명과 동학전쟁 행보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냈고, 천도교가 이러한 동학의 후신이라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도교의 당대적 실천을 수 없이 촉구하였다. 물론 천도교의 분열이 보여주듯이 당시 동학에 대한 천도교인의 인식이 모두 이종일과 같지 않았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천주교단의 분열과 이로 인한 교세의 축소, 기성권력에의 타협 등의 양상은 근대 동학과 천도교가 쌓은 가치로운 이념과 업적을 부정하는 양상의 측면도 있었으니,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후광에만 의존하는 데 머물기 마련이다.

211) 조극훈, 「춘암 박인호의 동학 이해와 근대성: 천도교 개편과 민족문화운동을 중심으로」『동학학보 』 29권3호, 2013 참조.

토론 3

송 봉 구 (영산대학교)

자료 별첨

발표 4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과 그 종교적 측면: 교리 체계화 과정을 중심으로

박 병 훈 (원광대학교)

<目次>

Ⅰ. 머리말
Ⅱ. 천도교의 초기 교리서와 그 내용
1.『대종정의(大宗正義)』
2.『천도교전(天道敎典)』
3.『성훈연의(聖訓演義)』
4.『천약종정(天約宗正)』
5.『천도교지(天道敎志)』
Ⅲ. 초기교리서에서의 철학(哲學)과 영적(靈蹟)
1. 철학(哲學)
2. 영적(靈蹟)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道則天道 學則東學이니 則古之東學이 今之天道敎. 宗旨는 人乃天이요 綱領은 性身雙全·敎政一致요, 目的은 輔國安民·布德天下·廣濟蒼生·地上天國이요, 倫理는 事人如天이요, 修行道德은 誠敬信이라 ”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1861~1922)는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와 해월 최시형의 죽음 이후로 1905년 12월 1일 동학(東學)을 재건하여 위의 인용문과 같이 광고를 실어 널리 천도교(天道敎)란 이름을 알렸다. 그리하여 이듬해 서울에 천도교중앙총부를 설립하고 「천도교대헌」과 「종령」을 발표하며,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기존 선행연구는 이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의 종교적 측면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건호는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신에 대해 이를 동학의 종교화 선언이며, 근대적 의미의 종교가 탄생했다고 본다. 그리고 천도교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대를 가졌으며, 천도교가 첫째, 동학이 아니며, 둘째, 자유로운 종교이며, 셋째, 문명과 도덕의 종교라

는 점이 '종교'로서의 자기 인식에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 신종교의 종교 모델 구현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212]

임형진은 천도교가 새롭게 종교의 틀을 갖추며 운동방향을 근대화, 개화 계몽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며, 천도교대헌, 교빙, 교회조직과 운영방안 등의 조직의 근대화, 주문, 기념가, 축문, 오관 등의 의례와 의식의 근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에 있어 종교적 측면을 기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213] 또한 천도교 교리의 근대화에 대해 인내천의 종지화를 이룸으로 근대적 종교의 중심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천도교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곧 기존 운동단체 성격의 동학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 종교단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이론과 제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성리학적 해석에 머물렀던 교리를 합리적 사고에 입각한 해석으로 변화시켜 근대적 종교 전환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214]

조규태는 문명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동학을 천도교란 명칭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단지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배우는 집단인 '학단(學團)'에서 '가르치는 집단'인 '교단(敎團)'으로 마음의 자세와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지적한다.[215]

박맹수는 근대적 의례의 제정, 성미운동의 전개, 근대적 교리서의 보급 및 교리강습회를 통한 중견 지도자의 양성 등으로 천도교는 그간의 인적·재정적 고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근대적 체제를 갖춘 종교로서의 확립에 성공했다고 보며, 교리서 등을 통해 천도교와 동학사상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216]

위에서 거론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동학에서 천도교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종교적 측면이 의례, 사상, 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본고는 종교의 사상적 측면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지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최시형은 동학의 2대 교주로서 수운탄신기념, 구성제 등등의 의례를 고안하고, 향아설위 등의 법설을 펼치며, 교조 수운 최제우가 탄생시킨 동학사상을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최제우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최시형이 발간하여, 비로소 교인을 비롯하여 일반으로 동학사상이 퍼져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경전 그 자체에 대한 각자의 이해에 그쳤을 뿐이다. 교단의 통일된 경전의 해석을 위해서는 교리에 대한 천착과 그를 인쇄물로 발간할 수 있어야 했으나, 관의 지목을 피한 은거와 도망,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등으로 이러한 교리 체계화는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천도교가 탄생하여 의암 손병희가 양한묵 등으로 하여금 초기 교리서 등을 저작하여 발간케 한 이후 교리체계화는 가능해졌다.[217] 동학은 물론 처음부터 종교사상이었으나, 천도교라는 후기동학교단이 성립되고 나서야 초기 동학사상을 체계적으로 종교교리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이 당시는 '종교'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한 때로, 천도교의 개신 역시 그 개념을 활용한 것이기도 하다.[218]

---

212) 고건호, 「천도교 개신기 `종교`로서의 자기 인식」, 『종교연구』38, 2005.
213) 임형진, 「천도교의 성립과 동학의 근대화」, 『동학학보』16, 2008.
214) 임형진, 「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정치이념」, 『동학학보』, 2011.
215) 조규태, 「손병희의 근대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확산」, 『동학학보』62, 2022.
216) 박맹수, 「동학계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의 시대적 변화-동학과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국종교』37, 2014.
217) 최기영, 「한말 천도교와 양한묵-그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47, 1995, 112쪽. "또 이같이 1906·7년에 교리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던 것은 그간 동학이 주로 『東經大全』이나 『龍潭遺詞』의 경전과 교주의 降書나 通文 등에 국한되어 논의되어온 교리의 정리가 시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바로 교리의 새로운 정리와 해석을 통하여 천도교의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18) 다음과 같이 천도교로의 전환에 있어 종교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 "天道敎란 名稱의 由來는 東經大全에 道則天道란 데서 따온 것이며 敎字만은 義菴 선생이 마음대로 宗敎란 뜻에서 붙인 것이다. … 이 敎字를 붙인 연유에 대하여 의암 선생은 '敎라 함은 宗敎라는 敎字를 의미한 것이니 只今 世界를 당하여 文明各國이 信敎의 자유를 허락한다 하는 法界에 의하여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교리 체계화 과정을 허수는 1905년 천도교의 선포부터 1924년 이돈화의 『인내천요의(人乃天要義)』 출간까지의 과정을 '천도교 종교사상의 형성'이라 하여 동학이 천도교라는 근대적 종교로 전환한 이후의 교리체계화 작업 시도를 표현하였고, 이를 이돈화의 인내천 논증을 통해 이 작업을 일단락지었다고 평하고 있다.[219] 여기서는 양한묵의 논의를 전사(前史)로 여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한묵이 깊이 관여한 초기교서를 통한 교리체계화 과정을 통해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에 있어 그 종교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천도교의 초기 교리서와 그 내용

천도교가 대고천하하며 자신의 종교사상을 밝히기 위해 교리서들을 보문관에서 적극적으로 펴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교리서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220] 이는 종교적·교리적 측면이 너무 강해 학술적 접근이 어렵다고 여기거나, 천도교 사상이 아직 맹아단계라 뚜렷이 그 사상의 특징을 언급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변화에 있어 이들 교리서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자료들이며, 본고에서는 미흡하게나마 이러한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초기 교리서들로 『천도태원경(天道太元經)』(1906), 『천도교지(天道敎志)』(1906), 『천도교전(天道敎典)』(1906), 『교우자성(敎友自省)』(1906), 『대종정의(大宗正義)』(1907), 『관감록(觀感錄)』(1907), 『삼수요지(三壽要旨)』(1907), 『성훈연의(聖訓演義)』(1907), 『동경연의(東經演義)』(1907)[221]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교리서들은 손병희의 저작으로 천도교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양한묵이 이 저작들에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손병희의 영향이 컸기에 천도교의 그러한 인식은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여타 연구들은 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천도교 자료들의 집대성인 『한말 천도교 자료집』의 해제에서도 "천도교측에서는 그것을 모두 손병희의 저술로 밝히고 있지만, 교리서의 편찬에는 양한묵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양한묵의 주도로 만들어진 교리서들이 손병희의 추인을 받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총부의 명의로 발간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여겨진다."[222]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용휘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통적 교단적 이해를 따르고 있다.[223]

다만 최기영의 경우 양한묵의 역할이 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기영은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敎會史草稿)』를 근거로 들어 『성미편(誠米篇)』, 『천도교문(天道敎門)』, 『성훈연의

밝혔다."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203쪽. 허수, 「1905~1924년 천도교 종교사상의 형성과정-이돈화의 '인내천 논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12, 2004, 195쪽 주24번에서 재인용.

219) 허수, 「1905~1924년 천도교 종교사상의 형성과정-이돈화의 '인내천 논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12, 2004, 187-188.

220) 초기 교리서 각각 혹은 전반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며, 인내천사상과 관련하여 「대종정의」에 주목한 연구가 몇몇 보인다. 허수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221) 한편 『만세보(萬歲報)』에도 『천도교지(天道敎志)』, 『천도태원경(天道太元經)』, 『교우자성(敎友自省)』, 『현기문답(玄機問答)』, 『천도교문(天道敎門)』이 연재되기도 하였다. 최기영, 「한말 천도교와 양한묵-그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47, 1995, 111쪽 참조.

222) 최기영, 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1, 국학자료원, 2-3쪽.

223) "그러나 양한묵의 천도교 입교가 2년도 채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교리서적의 출판을 통해 근대적 종교 체제를 갖추고 싶었던 손병희가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갖춘 엘리트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하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大宗正義』는 손병희의 명에 따라 천도교의 교리를 정리하는 사업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므로, 내용은 손병희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김용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내천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25, 2005, 219-220쪽, 주 15번.

(聖訓演義)』, 『삼수요지(三壽要旨)』, 『관감록(觀感錄)』, 『도경(道經)』, 『체리 종적(體理 宗的)』, 『현야(玄野)』, 『정자공부(定字工夫)』, 『대종선후 후(大宗先後 候)』, 『이일록(二一錄)』, 『대종정의(大宗正義)』, 『교지(敎志)』, 『교사과요의(敎四科要義)』, 『신언(神言)』 등 15종의 교리서를 손병희가 양한묵에게 명하여 내도록 했다 밝히고 있는 한편, 『천도교회사초고』에서는 양한묵의 저술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교우자성(敎友自省)』, 『동경연의(東經演義)』, 『천약종정(天約宗正)』, 『천도교전(天道敎典)』, 『현기문답(玄機問答)』, 『천도태원경(天道太元經)』 역시도 양한묵이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무체법경(无體法經)』도 실제로는 양한묵의 저술이라 보고 있다.[224] 그리고 이 저술 과정에 있어 손병희가 지시하고 추인한 역할을 인정하여 교단이 이를 모두 손병희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25] 다만 단순히 손병희의 견해를 대변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손병희의 지시에 따라 저술하였더라도 천도교 초기 교리를 정리·체계화·정착시킨 것은 양한묵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26] 이러한 지적은, 전통적으로 손병희의 저작으로 여겨져 왔던 교리서들에 대해 원전비평적 입장에서 텍스트 형성과정과 그 저자에 대해 앞으로 교단 및 연구자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양한묵이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에 있어 교리체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각 교리서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표로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227]

표1. <천도교 초기 교리서>

연번	제 목	간행연도	설명	출판
1	천도교전(天道敎典)	1906	天道, 人性, 神運, 靈覺, 立敎, 博愛, 敦行, 恢勇, 安命, 致誠, 福應, 還元의 12장 구성	보문관
2	천도교지(天道敎志)	1906	1편 세보, 2편 진리, 3편 성명으로 구성.	보문관
3	천도태원경 (天道太元經)	1906	도전체도, 도연구도, 개인자격도 세 도를 제시한 뒤 각각 설명. 뒤에는 세계종교에 대한 설명.	
4	관감록(觀感錄)	1907	국한문 혼용 21쪽 분량.	보문사
5	대종정의(大宗正義)	1907	'인내천(人乃天)' 용어 나옴.	보문사
6	동경대전(東經大全)	1907	최초의 활자 인쇄본 동경대전. 계미중추판을 저본으로 하며, 손병희와 김연국의 발문이 있음.	
7	동경연의(東經演義)	1907	동경대전 내용의 체계적 해석.	보문사
8	삼수요지(三壽要旨)』	1907	천에 대한 해석서.	보문사

224) 최기영, 「한말 천도교와 양한묵-그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47, 1995, 109-112쪽.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윤석산이 『무체법경』은 「후경(後經)」, 「각세진경(覺世眞經)」. 「천도태원경(天道太元經)」 등과 함께 사경(四經)으로 일컫는 의암의 대표적 교리서로, 『동경연의』가 본문과 연의 부분으로 되어 있듯, 『무체법경』도 본문과 정의(正義)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의암이 정의는 양한묵이 쓴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다음의 글 참조. 윤석산, 「의암 손병희 선생의 주요 저술과 천도교 사상」, 『동학집강소』(2022.12.13.) https://blog.naver.com/zipgangso/222953988656(23.12.10. 확인.)

225) 최기영, 「한말 천도교와 양한묵-그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47, 1995, 110쪽.

226) 최기영, 「한말 천도교와 양한묵-그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47, 1995, 110-111쪽.

227) 본 표에서의 교리서 차례와 설명은 『한말 천도교 자료집』의 해제를 활용하였다.

9	성훈연의(聖訓演義)	1907	영통, 철학, 신앙의 3편 구성.	보문사
10	천약종정(天約宗正)	1907	동학의 역사에 관한 책.	보문사
11	교우자성(敎友自省)	1906	박애, 돈행, 성의, 경심, 수신, 입법, 지치, 지악을 다룸.	보문관
12	천도교문(天道敎門)	1907	총론, 인부, 수부, 인문, 수문, ᄉᆞ룸부, 수부로 구성.	보문사
13	현기문답(玄機問答)	1907	문답식으로 교리를 소개.	보문사
14	도경(道經)	1912?	손병희 설법 중 4天(形天, 氣天, 理天, 神天)과 4地(公地, 産地, 法地, 利地) 설명.	보서관
15	무체법경(无體法經)	1912	박인호 편술. 1910년 손병희가 양산 통도사 내원암에서 49일 수련을 마치고 발표. 양한묵이 대필하였다고 함. 천도교 수행방법.	보서관
16	후경(後經)1,2	1912	박인호 편술. 상중하편으로 이뤄져 있음.	보서관

위의 교리서들 중 『대종정의(大宗正義)』, 『천도교전(天道敎典)』, 『성훈연의(聖訓演義)』, 『천약종정(天約宗正)』, 『천도교지(天道敎志)』만 택하여 대략의 내용을 서술하고 다음 장에서 그 내용상의 특징을 함께 보려고 한다. 이들 책들은 3장에서 분석할 '철학(哲學)', '종교(宗敎)', '영적(靈蹟)'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에 선택하였다.

1. 『대종정의(大宗正義)』

『대종정의』[228]는 인내천(人乃天)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9] '宗敎의 發展', '吾敎의 神人時代', '吾敎의 顯明時代', '吾敎의 新思想時代', '吾敎의 要旨'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천도교경전에도 편입되어 있다.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대종정의』의 내용>

장	내 용
宗敎의 發展	-종교는 天의 대정신이며, 人은 이 정신범위 내에서 생성하는 자. -다신(多神) 시대에서 일신(一神 숭배로의 변화. 천은 그 추상적 대범위임. -대신사의 사상의 요지는 인내천(人乃天)이며, 이는 인간계에서 처음 창명된 대종정의(大宗正義)임.
吾敎의 神人時代	-대신사에게는 철학(哲學)으로 미뤄 알 수 없는 영적(靈蹟)이 있었음. -이 영적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오기 어려운 것이며, 천의 대표로 천의 능력을 행하는 자연적 활기임. -천은 인간세계를 굽어보아 천과 인간 사이를 잇는 자격이 있는 자를 골랐으니 이는 대신사이며, 해월신사는 그 굳건함[武] 계승하였기에 천이 명하여 대종주(大宗主)의 위치를 점함. -천과 스승은 일체이위로, 그 능력의 발휘에는 구별이 있으나 모두 한 기틀임.

228) 중앙총부편찬, 『대종정의』, 보문사, 1907(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자료집』1, 국학자료원, 1997.)

229) 허수, 「1905~1924년 천도교 종교사상의 형성과정-이돈화의 '인내천 논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12, 2004, 197쪽.

	-천은 대신사에 있어 해월신사를 이어 내려 보충케 함.
吾教의 顯明時代	-하늘이 성인을 내어 원시 시대의 사람에게 제도와 면목을 나타내 밝힘. -의암은 해월신사의 근본을 이어 받음. -천도교는 신앙, 철학, 제도 셋으로 표준을 정함.
吾教의 新思想時代	-천도교의 오늘날은 옛 사상을 사상과 문명을 통해 새로이 바꿔야 함. -영식(靈識)은 유(儒)의 지성(至誠), 선(仙)의 고표(高標), 불(佛)의 정각(正覺)을 겸유하지만 사상이 선천에 배회하면 대계(大界)의 공인을 얻을 수 없음. -큰덕을 펴고 베푸는 것이 먼저 착수할 것이며, 만법을 깨닫는 것이 이른바 신사상임.
吾教의 要旨	-신앙을 통해 인과 천이 교통하는 길을 얻으며, 그 다음 천의 환희하는 마음을 만나고, 그 마지막은 천인합일의 진경에 들어섬. -진경에 들어서면 천의 위임을 받아 조화와 복록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됨. -신앙심은 객체의 도움을 바탕으로 주체를 충실케 하고 건강케 하는 것. 버드나무 생장과 물고기의 비유 -천을 믿어 객체의 효력을 얻으면 영의 다리를 따라 지혜와 총명과 수명의 복과 영광과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게 됨. -신앙심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욕이 방해함. 정욕은 천의 원수. -사람은 또한 심(心)이 확연하더라도 성(性)과 신(身)의 영향 하에 진퇴하는 자. -세상을 문명하는 일에만 종사하면 안 됨. -청수와 주문을 하지 않고 유혹에 끌려다니면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임. -신앙은 천이 천을 만난 것. 철학은 인이 천을 본 것. 제도는 인이 인을 본 것.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아름다운 나무라도 재목으로 쓸 수 없음. -유교, 선교, 불교의 역할. 이 세 종교의 높은 경지를 천이라 함. -마음을 신앙에 두는 사람은 철학과 제도에 힘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함께 닦아야 함.

2.『천도교전(天道教典)』[230]

천도(天道), 인성(人性), 신운(神運), 영각(靈覺), 입교(立教), 박애(博愛), 돈행(敦行), 회용(恢勇), 안명(安命), 치성(致誠), 복응(福應), 환원(還元)의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3. <『천도교전』 내용>

장	장명	내 용
1	천도(天道)	천이 신이며, 신은 유일하며, 도의 근원하는 바. 천의 속성 설명.
2	인성(人性)	인은 신령하니, 생을 천으로부터 받음. 인성은 선도 악도 없음.
3	신운(神運)	그 묘함의 운용이 건행(健行)하여 만물을 합하여 하나로 한다 함. 천도와 연관됨.
4	영각(靈覺)	사람이 하늘이기에, 성(性)이라 하는 것은 도(道)임. 영각은 성의 느낌이며, 축적하면 심(心)이 되고, 발하면 정(情)이 되며, 그 향할 바를 정하면 지(志)가 됨. 인성과 연관됨.
5	입교(立教)	천도에 있어 신(神)은 인성에 있어 영(靈)임. 사람과 하늘이 하나임. 교(教)라는 것은 사람으로 성품에 따라 도에 합하게 하여 천과 더불어 하

230) 중앙총부편찬, 『천도교전』, 보문관, 1907(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자료집』1, 국학자료원, 1997.)

		나게 되는 것임. 천도교의 사강(四綱)인 박애, 돈행, 회용, 안명을 하라 함.
6	박애(博愛)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함. 박애의 근본은 인정(人情)을 통하는 데 있음.
7	돈행(敦行)	사람은 본디 같지만 관계에 따라 그 분(分)이 있음. 부모(慈), 자식(孝), 윗사람(禮), 아랫사람(義), 사람간(信)의 예의 조목을 밝힘.
8	회용(恢勇)	자립, 자유를 강조하며,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함.
9	안명(安命)	인명이 하늘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 환원과 연관됨.
10	치성(致誠)	지성(至誠)은 천에 있으면 도이고, 인에 있으면 성임. 망상(妄想), 허언(虛言), 벽행(僻行), 타용(惰容)을 하지 말라 함.
11	복응(福應)	선을 향하여 바름으로 돌아가면 일신에 백가지 복이 이를 것임. 선을 행할 것을 강조.
12	환원(還元)	신(神)은 천, 영(靈)은 인이다. 영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까닭에 신은 영의 근원이다. 살아있을 때 닦아 성을 도에 합한 것을 소환(小還)이라 하며, 죽어 화하여 영이 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환(大還)이라 한다고 함.

3.『성훈연의(聖訓演義)』

『성훈연의』는 제목으로 볼 때 성사의 가르침[聖訓]과 그에 대한 양한묵의 부연설명으로 이뤄져 있는 듯하다. 목차에 성훈「원본」이라 하여 영통(靈通)·철학(哲學)·신앙(信仰)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 뒤 영통도(靈通圖)·철학도(哲學圖)·신앙도(信仰圖)를 제시하였다. 실제 본문을 보면 영통·철학·신앙 내용 뒤에 성훈필성(聖訓必省), 신심필독(信心必篤), 철학필정(哲學必精), 영통필요(靈通必要), 부설(敷說)이 더 이어진다. 아마도 성훈필성부터 부설까지는 양한묵의 '연의' 부분으로 보인다. 각 내용을 간단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4. <『성훈연의』 구조>

성훈	영통(靈通)	정(靜)에 들어갈 때의 방해하는 적들을 열거. 사람이 천을 만나기 위한 과정.
	철학(哲學)	천이 형태가 있는 것이 인, 형태가 없으면 천. 그러므로 천과 인은 하나면서 둘. 천안(天眼)과 인안(人眼), 성(性)과 리(理), 기(氣)와 신(身) 등을 통해 이를 논구.
	신앙(信仰)	성경신법(誠敬信法)을 지켜 수명위록(壽命位祿)을 구하면 명예와 이익을 그 사람의 소유임.

연의	성훈필성(聖訓必省)	신앙으로 사람의 방황하는 발걸음을 멈추며, 철학으로 사람의 미혹되고 어두운 뿌리를 뽑으며, 영통으로 성의 원통력을 얻게 하는 삼구(三區)를 정함. 신앙은 상행계(常行界), 철학은 묘행계(妙行界), 영통은 원행계(圓行界). 사람의 신력(神力)과 정력(正力)이 이 삼계에 있음. 신앙은 개인의 좋은 재주[良術], 철학은 천과 인간 간에 있어 넉넉히 이롭게 함[饒益]을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 것, 영통은 천임.
	신심필독(信心必篤)	믿음에 거하여 하늘의 총애를 받을 것인가 불신에 거하여 하늘의 재앙을 취할 것인가. 믿음과 응보에 대해 논함.
	철학필정(哲學必精)	천의 대흡기(大吸氣)로 만물을 아래로 접하며 만물은 흡기하에 달린 천과(天果)라 표현. 천과 만물 사이의 연결관계에 대해 설명.
	영통필요(靈通必要)	천(天), 인(人), 세(世)의 관계 설명. 사람이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
	부설(敷說)	의암의 지위와 영향을 강조.

4.『천약종정(天約宗正)』

『천약종정』은 동학역사서인데,『최선생문집 도원기서(崔先生文集 道源記書)』[231](1880. 이하『도원기서』) 이후 천도교와 시천교 등의 동학교단을 통틀어서 무척 이른 시기에 펴낸 동학역사서이다. 오상준(吳尙俊)의『본교역사(本敎歷史)』가『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에 1910년 8월부터 1914년 11월호까지 연재되었고, 시천교총부는『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와『회상영적실기(繪像靈蹟實記)』를 1915년에, 시천교본부는『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祖遺跡圖志)』와『시천교역사(侍天敎歷史)』를 각각 1915년과 1920년에, 박인호의『천도교서(天道敎書)』가 1921년에, 이돈화가『천도교창건사(天道敎創建史)』를 1933년에, 오지영의『동학사(東學史)』가 1940년 등등인 점을 감안하면 1907년 발간된『천약종정』은 교단에서 발간한 동학역사서로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천약종정』 구성은「천약종정서(天約宗正序)」,「범례(凡例)」 및 본문의「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해월신사(海月神師)」,「의암성사(義菴聖師)」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본문은 주요내용 및 그에 대한 세부설명인 집설(集說)로 이뤄져 있다. 이는 기왕의 동학역사서인『도원기서』 등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다만「의암성사」는 천도교가 대고천하한 당시의 상황을 바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운, 해월, 그리고 의암으로 승계되는 교의 종통의식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의암성사」는 손병희가 지은 저술, 손병희의 설법, 천도교와 관련한 일들 위주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의암성사」 부분에서 집설은 제외하고 주요내용만 살펴본다.

231) 이에 대해『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수운문집水雲文集』 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었다. 이에 대해 상술하지는 않으려 한다. 다음의 논문 참조할 것. 조성환,「동학 문헌『도원기서』와『대선생주문집』의 선후 관계: 최제우 전기의 성립연대에 관한 비판적 고찰」,『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94, 2022. 박상규,「근대 한국 신종교의 조직 연구: 연원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18-75쪽.

표5. <『천약종정』「의암성사」주요내용>

	번역	원문	비고
1	성사가 『각세진경』을 지었다.	聖師作覺世眞經	『의암성사법설』 수록
2	성사가 말했다. “땅의 자전은 그 땅 가운데 불이 있기 때문이다.”	聖師曰地之自轉以其地中有火也	
3	요망한 잔나비 슬프게 울어 어진 손님이 흩어지고, 사람 닭이 처음으로 울어 함곡이 열린다. 달리는 개가 화살을 만나니 형세가 가련하고, 숨은 돼지 놓임을 얻으니 기운이 양양하도다. 쥐가 노적 가운데 들었으니 짐승의 무리가 아니요, 소를 진두에 놓았어도 전단이 아니더라. 날랜 범이 숲에서 나오니 때는 구월이요, 옥토끼가 정을 머금으니 달은 삼경이라. 용이 물기운을 얻으니 가장 재미가 좋고, 새가 푸른 숲에서 노래하니 처음으로 사람이 놀래더라.	聖師降書曰 妖猿哀啼賢客散 人鷄始鳴函谷開 走狗逢箭勢可憐 隱猪得放氣揚揚 鼠入積中非獸徒 牛放陣頭非田單 猛虎出林時九秋 玉兎含情月三更 龍得水氣最可味 鳥啼靑林始驚人	『의암성사법설』 「시문」 수록.
4	성사가 『명리전』을 지었다.	聖師著明理傳	『의암성사법설』 수록
5	성사가 말했다. “성경신법은 우리 도의 으뜸되는 근본이다.”	聖師曰誠敬信法吾道之宗本	
6	성사가 문도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배 속에서 말 달리며 전쟁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문도가 답하는 자가 없었다.	聖師謂門徒曰汝聞腹中有馳馬戰爭之聲乎 門徒無答之者	『의암성사법설』 「시문」 에 “腹中有馳馬戰爭之聲” 구절 수록.
7	성사가 말했다. “시·정·지 3자는 천지무궁의 근본이다.”	聖師曰侍定知乃天地無窮之根本也	『의암성사법설』 「수수명실록」 에“以侍定知三字 以明天地無窮之根本”구절 수록
8	성사가 북접대도주가 되었다.	聖師爲北接大道主	
9	성사가 대도주의식을 행했다.	聖師行大道主儀式	
10	성사가 박인호에게 춘암, 이종훈에게 정암, 홍병기에게 인암이라는 호를 내렸다.	聖師賜朴寅浩號春菴李鍾勳號正菴洪秉箕號仁菴	
11	성사가 김연국을 신도주로, 손천민을 성도주로, 박인호를 경도주로 임명하였다.	聖師以金演局爲信道主以孫天民爲誠道主以朴寅浩爲敬道主	
12	성사의 강서에, 훈도하심을 입은 것은 일월의 광명이요, 전발하신 스승님의 은혜는 도통의 서로 주심이라. 선천 용도는 호탕한 넓은 정사요, 금일 설법은 기강을 세우는 절의로다. 참을 지키고 뜻을 원만히 하여 맑은 덕을 버리지 말라. 날이 가고 달이 옴에 음양이 덕을 합하고, 봄에 나고 가을에 결실하니 조화의 성공이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내 마음을 길이 지키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는 큰 도를 창명하라.	聖師降書曰 荷蒙薰陶 日月之光明 傳鉢師恩 道統之相授 先天用道 浩蕩之廣政 今日說法 立綱之節義 守眞志滿 勿捨淸德 日去月來 陰陽合德 春生秋實 造化成功 無去無來 吾心永守	『의암성사법설』 「강서」 에 수록. 경전에는 ‘무형유적(無形有)跡’이라 하였으나, 『천약종정』에는 ‘무형무적(無形無跡)’으로 되어 있다.

	무엇을 알랴, 무궁하고 무궁한 것을. 한울님은 반드시 정성 마음 한 조각에 감응하느니라. 일이관지는 공부자의 성덕이요, 공계송심은 석씨의 도통이요, 무형무적은 우리 도의 조화니라.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을 받들고 평생동안 참뜻을 지키라. 하였다.	不遷不易 大道粉明 何何知知 無窮而無窮 天必感應 誠心而一片 一以貫之 夫子之聖德 空界送心 釋氏之道通 無形無跡 吾道之造化 侍天奉天 永世守志	
13	성사가 어육의 금지를 느슨히 하였다.	聖師弛魚肉之禁	
14	성사가 일본에 외유하였다.	聖師遊日本	집설 철학 용어 등장.
15	성사가 『삼전론』을 지었다.	聖師作三戰論	
16	성사가 문도 60여 명을 선택하여 세상학문을 가르쳤다.	聖師選門徒六十餘人教以人界之學	
17	성사가 대한의 정치가 날로 잘못되는 것을 걱정하여 대한정부에 글을 보냈다.	聖師優韓政日非致書于韓政府	
18	성사가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고쳐 천하에 널리 알렸다.	聖師改東學名爲天道教廣告天下	
19	성사가 『천도태원경』과 「대헌」을 지었다.	聖師著天道太元經及大憲	
20	성사가 대한에 이르렀다.	聖師至大韓	
21	성사가 천도교중앙총부를 세웠다.	聖師建天道教中央總部	
22	성사가 김연국을 대도주로, 박인호를 차도주로 임명하였다.	聖師以金演局爲大道主以朴寅浩爲次道主	

5. 『천도교지(天道教志)』

『천도교지』는 세보, 진리, 계명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천도교지』의 구성과 내용>

편	편명	내 용
1	세보(世譜)	수운, 해월, 의암에 대해 약술함.
2	진리(眞理)	천도대원(天道大原), 성령수련(性靈修煉), 육신보호(肉身保護), 진리강해(眞理講解), 율례게명(律例揭明), 사회문명(社會文明), 교단면목(教團面目), 교인자격(教人資格), 성경연구(聖經研究), 교육방침(教育方針)
3	계명(誡命)	주애(主愛), 주겸(主謙), 정념(正念), 정기(正氣), 천언(踐言), 천행(踐行), 금욕(禁慾), 금포(禁暴)

교인들에게 간단히 교조 수운, 해월, 의암에 대해 설명하여 교의 역사를 알리는 한편, 천도교의 교리를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는 천도교라는 교단의 성립으로 인해 교에 대해 알리는 한편,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1편 '세보'에서 의암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암선생이 청나라로부터 돌아왔다. 해월선생이 또 해를 입었으니, 대도가 캄캄하게 막힘

을 탄식하였다. 또 일본에 외유하여 다년간 서생 60여 인을 양성하였다. 선생은 교문의 범위를 세계로 하여 여러 민족을 동포와 같이 널리 사랑하였다. 정계에 이른바 국가라는 것은 선생의 범위 가운데에서는 단지 한 작은 분자(分子)일 따름이었다. 대도주의 교문에 있어 주장이 되는 뜻은 사람의 정신을 끌어들여 수련토록 하여, 학문을 통해 사람을 개발하고 실업을 베풀어, 사회규칙을 따르게 하고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교를 살리는 큰 으뜸이다. 교문의 서류에 포덕 연호를 기록한 것은 그 대도가 창시됨을 기념한 것이니, 무릇 교외의 교섭에는 이러한 예를 쓰지 않는다.[232]

의암의 도량과 배포에 대해 찬탄하며, 천도교[敎門]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문, 실업 등에 힘써서 대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포덕 연호는 교 안에서만 천도교가 창시됨을 기념하는 뜻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교 밖에서는 포덕 연호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교인들에게 일반상식적인 내용도 전달하고 있다. 세보에 의암을 수운과 해월 다음으로 위치시킨 것은 천도교의 종통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Ⅲ. 초기교리서에서의 철학(哲學)과 영적(靈蹟)

1. 철학(哲學)

초기교리서들에는 몇 가지 주제들을 통해 구분하여 기존의 동학사상을 새로운 시대와 문명에 맞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겠는데, 우선 『대종정의』에서 「吾敎의 顯明時代」에서는 신앙, 철학, 제도로 삼분하여 설명하는 모습이 보인다.

信仰과 哲學과 制度를 三區에 分ᄒᆞ야 人心傾向의 準的地를 定ᄒᆞ니 信仰은 人이 天에 粘着ᄒᆞ야 其身의 自由를 忘ᄒᆞ며 哲學은 性의 本來天과 身의 衆生相을 兩段分定ᄒᆞ야 性身久暫의 別로 性界榮譽ᄂᆞᆫ 三光同壽ᄅᆞᆯ 期ᄒᆞ며 身界利益은 百年一夢으로 認ᄒᆞᄂᆞᆫ 大旨義ᄅᆞᆯ 揚明ᄒᆞ며 制度ᄂᆞᆫ 天人合一的 要點을 抽得ᄒᆞ야 性靈人의 正的과 肉身人의 正軌ᄅᆞᆯ 定ᄒᆞ니 鮮新ᄒᆞᆫ 面目이 一大素天國을 構成ᄒᆞᆫ 者ㅣ니라[233]

이러한 삼분법에서 보이는 점은 천과 인, 성과 신과의 관계에서 신앙, 철학, 제도의 차이점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신앙은 인이 천에 점착되어 결국 그 몸이 자기로 말미암음을 잊는 것이며, 철학은 성에 있어서의 천의 요소, 신에 있어서의 인의 요소를 나누고, 성과 신을 구별하여 성에 보다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제도는 천인합일의 요점을 얻어 천과 인의 각각의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吾敎의 要旨」에서는 다시금 천과 인의 관계에서만 신앙, 철학, 제도를 규정하여, 신앙은 천이 천을 만난 것. 철학은 인이 천을 본 것. 제도는 인이 인을 본 것이라 설명하며,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아름다운 나무라도 재목으로 쓸 수 없다 하여 그 모두가 필요함을 비유를 들고 있다. 이렇듯 개념상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철학적 사고의 영향이라 볼 수 있겠고, 철학의 강조는 동학사상이 단지 신앙상에만 그치지

232) 『天道敎志』 "義菴先生自淸國還 海月先生又害 歎大道晦塞 又遊日本多年養書生六十餘人 先生敎門範圍以世界等族汎愛如同胞 而政界所謂國家者 先生範圍中一小分子耳 大道主敎門旨義 引人精神 入於修鍊 開人學問 施其實業 遵社會規則 守國民義務 此活敎大宗也 敎門書類記布德年者 紀念其大道創始也 故凡於敎外交涉不用此例"

233) 『대종정의』(『한말 천도교 자료집』1, 90-91쪽)

않고 나름의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천약종정』과 같은 역사서에도 철학 용어가 나타나는데, 의암이 일본에 외유를 간 것에 대해 집설을 달기를 "성사가 철학의 으뜸이 되며, 널리 듣고 널리 보는 것이 철학에 도움이 된다[聖爲哲學之宗, 而廣聞廣見爲哲學之助]"라 하여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성훈연의』 역시 영통(靈通), 철학(哲學), 신앙(信仰)으로 삼분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천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영통이며, 하나이면서 둘인 천과 인을 설명하는 논리체계가 철학, 성경신법을 지켜 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훈(聖訓)에 다시 자신의 설을 붙여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경문에 주석을 다는 전통 성리학의 저술방식인데, 이를 철학 등의 현대적 학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양한묵에게는 성리학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철학 용어를 사용하고, 논리적 체계를 구사하지만 양한묵에게 있어 철학은 다소간 간접적이고, 생경하게 사용되는 느낌이다. 본격적으로 철학적 사고 혹은 기존의 철학체계를 사용하기보다는 '철학'이라는 용어 사용에만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허수는 그가 교리의 합리적 해석을 하도록 한 근대철학의 영향이 외재적·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고, 전면화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이의 원인으로 첫째, 전통 동학교리에만 익숙한 대다수의 보수적 교인들을 의식하였으며, 둘째, 양한묵이라는 인물 자체가 성리학적 교양을 체화하였기에 근대적 가치의 내면화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234] 조성환 역시 『천약종정』에서 사용되는 철학개념은 "성품의 세계를 추구하는 활동"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자기수양[修己] 혹은 마음공부[心學]에 가까운 개념이며, 이를 전통적 '도학(道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235]

2. 영적(靈蹟)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탄생은 전적으로 손병희로 인한 것이며, 손병희의 그러한 정통성은 초기 교리서에도 반영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앞서 보았듯 교단사를 서술함에 있어 수운, 해월 다음으로 손병희를 배치시켜 그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천약종정』, 『천도교지』에 잘 드러난다. 한편으로 『대종정의』「吾敎의 顯明時代」에서도 의암이 해월신사의 근본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동경대전연의』에서 기존 『동경대전』과 같은 경문에 뜻을 해설하듯, 『성훈연의』에서는 의암의 말씀에 양한묵이 설명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도 하다. 이들 교리서들은 손병희가 동학을 개신한 천도교의 지도자이며, 수운, 해월로부터 종통을 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교리서에서는 철학을 통해 기존의 동학을 합리화, 체계화시키려 하나, 전통적 종교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역시 잔존하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신이한 영적(靈蹟)에 대한 믿음,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화가 내린다는 복선화음(福善禍淫) 관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념인 환원관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대종정의』「吾敎의 神人時代」에서는 대신사에게는 철학(哲學)으로 미뤄 알 수 없는 영적(靈蹟)이 있었다 하여 철학과 구분하여 영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적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나오기 어렵다고 부연하고 있다. 영적은 천도교 창건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구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종정의』「吾敎의 要旨」에서는 신앙을 통해

---

234) 허수, 「1905~1924년 천도교 종교사상의 형성과정-이돈화의 '인내천 논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12, 2004, 199-200쪽.

235) 조성환, 「1910년 전후 천도교의 '철학' 담론-천도교의 철학화 과정-」, 『한국종교』50, 2021, 73-74쪽.

진경을 얻으면 조화와 복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영적관을 보여주고, 천이라는 객체를 통해 효력을 얻어 지혜, 총명, 수명의 복·영광·은총이 내린다는 일종의 복선화음 관념도 보여준다. 게다가 세상을 문명하는 일에만 종사해서는 안 되며, 청수와 주문을 하지 않고 유혹에 끌려다니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하여 청수와 주문과 같은 전통적인 동학의 종교적 측면 역시 강조되고 있다. 한편으로 『천도교전』에는 '복응(福應)'과 환원(還元)' 항목을 따로 두어 교인들의 복선화음에 대한 믿음에 죽음에 대한 관념에 대해 나름대로 부응하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는 철학을 통해 교리의 체계화, 합리화 과정을 거치지만, 천도교라는 교단 초기의 과도기에 있어서 전통적 동학에 있어서의 관념들 역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게 해준다. 이는 손병희가 종통을 이어받음에 있어 강필(降筆)이라는 신비성을 띠는 동학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다.[236] 곧 영적이라는 종교적인 신이함의 자취는 철학을 통한 합리적 사고와 체계화에도 여전히 초기 교리서들에 남아서 독자들에게 기존 동학의 종교적 요소들을 계속하여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Ⅳ. 맺음말

동학이 천도교로 개편되며 '종교'라는 이름에 맞는 새로운 교리의 체계화 과정이 요구되었다. 손병희는 이러한 역할을 당대의 철학사조에 밝았던 양한묵에게 맡겼으며, 양한묵은 '철학', '종교' 등등의 당시 대두되었던 학술키워드를 활용하여 기존 『동경대전』, 『용담유사』 경전 읽기에만 멈추었던 일반 민중들의 이해를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끌어올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다. '철학'이란 용어는 기존 성리학적 학습수련 과정을 거쳤던 양한묵에게 있어 그렇게 몸에 잘 맞는 옷은 아니었던 듯하다. 교리 전개상에 있어 '철학' 용어가 활용은 되지만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고, 영적(靈蹟)이라는 기존 동학관념 역시 강하게 작동하였다. 결국 양한묵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교리서들의 영향력은 후대로 긴밀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종교와 철학의 화학적 결합은 독학을 통해 철학을 치열하게 공부하였던 이돈화라는 걸출한 사상가에 의해 비로소 이뤄지게 되었고, 이의 무대는 교리서가 아닌 『천도교회월보』와 같은 기관지였다. 그러나 양한묵이 이끈 교리체계화 과정은 동학이 종교로서 내딛는 최초의 발걸음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이들 교리서에 대해 앞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참고문헌

<원전류>
『한말 천도교 자료집』Ⅰ

<논문류>
고건호, 「천도교 개신기 `종교`로서의 자기 인식」, 『종교연구』38, 2005.
김경재, 「종교적 입장에서 본 현도 100년의 천도교」, 『동학학보』10, 2006.
김용휘, 「한말 동학(東學)의 천도교 개편과 인내천(人乃天)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25권, 2005.
박맹수, 「동학계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의 시대적 변화-동학과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국종교』37, 2014.

23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박병훈, 「동학 강필 연구」, 『종교연구』80-1, 2020, 247-249쪽.

박병훈,「동학 강필 연구」,『종교연구』80-1, 2020.
임형진,「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정치이념」,『동학학보』, 2011.
임형진,「천도교의 성립과 동학의 근대화」,『동학학보』16, 2008.
조규태,「손병희의 근대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확산」,『동학학보』62, 2022.
조성환,「1910년 전후 천도교의 '철학' 담론-천도교의 철학화 과정-」,『한국종교』50, 2021.
최기영,「한말 (韓末)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한국학보』20권3호, 1994.
최기영,「한말 천도교와 양한묵-그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역사학보』147, 1995.
허 수,「1905~1924년 천도교 종교사상의 형성과정-이돈화의 `인내천 논증`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12, 2004.

토론 4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과 그 종교적 측면: 교리 체계화 과정을 중심으로 “를 읽고

김 남 희 (카톨릭대학교)

논평에 앞서 먼저 박병훈 교수님(이하 논자로 칭함)의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과 그 종교적 측면: 교리 체계화 과정을 중심으로“를 읽고 많은 점을 배웠고 앞으로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동학에서 천도교로 전환 개신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단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의 체계화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천도교 교리의 체계화 과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논자는 양한묵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가 간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즉 논자께서는 “1905년 천도교의 선포부터 1924년 이돈화의 『인내천요의(人乃天要義)』 출간까지의 과정을 ‘천도교 종교사상의 형성’이라 하여 동학이 천도교라는 근대적 종교로 전환한 이후의 교리체계화 작업 시도를 표현하였고, 이를 이돈화의 인내천 논증을 통해 이 작업이 일단락되었다”는 논의에 동의하시면서 “양한묵이 깊이 관여한 초기교서를 통한 교리체계화 과정을 통해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에 있어 그 종교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변화에 있어 이들 교리서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자료들로 『천도태원경(天道太元經)』(1906), 『천도교지(天道敎志)』(1906), 『천도교전(天道敎典)』(1906), 『교우자성(敎友自省)』(1906), 『대종정의(大宗正義)』(1907), 『관감록(觀感錄)』(1907), 『삼수요지(三壽要旨)』(1907), 『성훈연의(聖訓演義)』(1907), 『동경연의(東經演義)』(1907)” 등16편을 을 지목하셨고 이들 중에서 5편인 “『대종정의(大宗正義)』, 『천도교전(天道敎典)』, 『성훈연의(聖訓演義)』, 『천약종정(天約宗正)』, 『천도교지(天道敎志)』만 택하여 대략의 내용을 서술하고 다음 장에서 그 내용상의 특징을 함께 보려고 한다. 이들 책들은 3장에서 분석할 ‘철학(哲學)’, ‘종교(宗敎)’, ‘영적(靈蹟)’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에 선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논자의 연구 의욕과 성과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점을 질문드릴까 합니다.

1.

논자께서는 양한묵의 교리 체계화 작업이 초기 천도교의 정체성과 교리체계의 확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토로하시면서 이 작업이 이돈화로 이어지면서 정리가 완결되었다는 논의에 동의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논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2.

『대종정의(大宗正義)』, 『천도교전(天道敎典)』, 『성훈연의(聖訓演義)』, 『천약종정(天約宗正)』, 『천도교지(天道敎志)』를 택하여 대략의 내용을 서술하시고, 다음 장에서 그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책들을 '철학(哲學)', '종교(宗敎)', '영적(靈蹟)'이라는 키워드로 고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III장에서는 '철학(哲學)'과 '영적(靈蹟)' 항목을 설정하셨습니다. 종교 신앙은 철학 항목 속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논자께서 밝히셨듯이, 본 논문의 주 논점은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에 있어 종교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항목이 빠지면서 중요한 논의가 사라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상 부족한 질문을 마치면서 논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 5

‘봉황각 49일 특별기도’ 를 중심으로 본 천도교의 3·1운동 준비과정

성 주 현 (청암대학교)

1. 머리말
2. 일제강점과 봉황각의 건립과정
3.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와 독립의식의 강화
4. 특별기도 참여자와 지방 3.1운동의 확산
5. 맺음말

1. 머리말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전개되었지만, 그 준비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직접적인 요인은 고종의 승하와 일본에서 전개된 2·8독립운동이었지만, 멀리 그 연원을 본다면 일제강점 이후 각 계층에서 꾸준히 준비한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천도교는 강점 직후 일제의 침탈을 반대하였고,[237] 천도구국단의 비밀결사를 민중운동을 기획하였다.[238] 이 고자어에서 천도교는 우이동 봉황각에서 49일 특별기도를 가졌으며, 3·1운동 직전 전교인들에게 역시 49일 특별기도를 갖도록 하였다.[239]

삼각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우이동 봉황각은 1912년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는 적지 않다. 천도교단에서는 ‘의창수도원’으로 수련도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천도교 제3세 교조이며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인 의암 손병희가 1912년 보국안민을 내세우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다시 찾기 위해 천도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된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봉황각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의암(義庵) 손병희(孫秉熙)가 1911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우이동이었던 이곳 27,900여평을 매입하여, 보국안민(報國安民)을 내세우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천도교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1912년에 세운 건물이다.[240]

또한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2호로 등록[241]된 봉황각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

---

237) 『황성신문』 1910년 9월 3일자.
238)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18~221쪽.
239) 성주현, 「우이동 봉황각과 3·1우동」,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가의 삶-』, 도서출판 아라, 2014.
240) 인터넷 다음 위키백과,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02425.

하고 있다.

> 1912년 의암 손병희 선생이 세운 것이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천도교 지도자를 훈련시킨 곳으로 의창수도원이라고도 부른다. 봉황각이란 이름은 천도교 교조 최제우가 남긴 시에 자주 나오는 '봉황'이라는 낱말을 딴 것이다. 현재 걸려있는 현판은 오세창이 썼다. 손병희 선생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천도교의 신앙생활을 심어주는 한편, 지도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수련장으로 이 집을 지었다. 1919년 3·1운동의 구상도 이곳에서 했으며, 이곳을 거쳐 간 지도자들이 3·1운동의 주체가 되었다.[242]

앞의 인터넷 백과사전과 안내문에 의하면, 우이동 봉황각은 3.1운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민족지도자를 양성한 수도원'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이동 봉황각과 3·1운동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이동 봉황각이 건립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 우이동 봉황각에서 민족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했는가를 49일 특별기도틀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제 강점과 봉황각의 건립과정

봉황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건립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무단통치'라는 일제의 지배정책으로 한민족을 강압과 억압으로 통치하였다. 그중에서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겪은 일제는 천도교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미 통감부 시기부터 "종교는 국가의 기축"이라고 하여 천황제 국가이념을 요구하였던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이후 종교정책은 자율적 활동보다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다.[243] 더욱이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종교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천도교에 대해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여 '취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244] 이와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 천도교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한국의 강점을 발표하자, 천도교에서는 곧바로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당시 천도교는 일제 강점 직전인 1910년 8월 15일 기관지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하였다. 이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한 천도교회월보사는 일제강점을 반대하는 서한을 각국 영사에게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천도교회월보』발행의 주무를 맡고 있던 김완규를 비롯하여 오상준, 이종린, 이교홍, 김건식 등이 일경에 체포되었다.[245] 그리고 20여 일 만에 석방되었다.[246]

이처럼 천도교가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지적하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천도교를 노골적으로

---

241) 봉황각이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2호로 등록된 것은 1969년 9월 18일이다.
242)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VdkVgwKey=21,00020000,11.
243) 성주현, 「일제의 동화정택과 종교계 동향」,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2003, 174쪽.
24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 1911, 77쪽.
245) 『천도교대종사일기』;「何事被捉」, 『매일신보』 1910년 9월 3일자.
246) 「天道敎員의 蒙放」, 『매일신보』 1910년 9월 18일자.

탄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미제의 폐지였다. '성미'는 교인들이 교단에 기부하는 성력으로 교단 운영의 근간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총독부는 천도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성미제를 강압적으로 폐지토록 하였다. 당시 상황을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경성 제2 헌병분대장 村田多忠씨가 천도교주 손병희 씨를 초치하여 일반교인에게 誠米收捧하는 事에 관하여 엄절히 설유함은 已報하였거니와 손병희 씨는 지방 교인에게 통지하고 收捧하던 誠米는 從今 이후로 일체 폐지하라 하였다더라.[247]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압력이 있었지만, 천도교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는 상황에서 내적 결집력을 강화해 나갔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강점 직전인 1910년 8월 중앙총부 임직원과 서울 시내 주요 교역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곧 식민지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마치 머리 없는 사람 같이 되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주권과 토지와 인민이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나라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주권이 없는 나라이니 머리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아니야.
>
> 일본이 몇 해를 두고 우리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보호한 것이 무엇이냐. 토지를 보호하였단 말인가. 재산을 보호하였단 말인가. 주권은 司法이요 사법은 주체인데, 사법을 보호하였단 말인가. 사농공상을 보호하였단 말인가. (중략) 내가 일본 사람에게 보호 사실을 질문한다면 한국의 토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토지를 보호한 것이요, 한국의 주권과 인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권과 인민을 보호한 것이요, 한국의 농상공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농상공업을 보호한 것이라 하리라.[248]

즉 의암 손병희는 당시를 '한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또한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보호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만을 위한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흑심 즉 '침략'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암 손병희의 예지력은 이미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인식하였다. 그래서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통해 민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무능한 정부와 일제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249]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암 손병희는 천도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담당할 것인가. 우리는 다 같이 천부의 고유한 성품을 받아 天權을 소유하였으니 천도교로 天賦의 성품을 삼고 천도교로 天權行使의 목적을 삼아 만분지 일이라도 천권행사에 해이한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 통유의 보호국은 반독립국이라 하나 오늘 우리 나라는 일본의 領地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 이 세계와 국가와 내 몸뚱이는 나의 腦髓에 달려 있는 것이니, 내 몸을 위하는 마음이 뇌수를 떠나지 않으면 몸이 반드시 윤택할 것이요, 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뇌수를 떠나지 않으면 나라가 반드시 흥왕할 것이요, 세계를 위하는 마음이 뇌수를 떠나지 않으면 세계가 반드시 평화할 것이다. 뇌수는 곧 사람의 요소이다.[250]

즉 지금은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지만, 교인 개개인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종교적 감화'를 통해 천도교가 가

---

247) 「天道敎의 誠米廢止」, 『매일신보』 1911년 4월 23일자.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8) 조기주, 『동학의 원류』, 보성사, 1979, 296-297쪽.

249) 의암 손병희는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04년 '黑衣斷髮'로 상징되는 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창, 『동학·천도교단의 민회설립운동과 정치세력화 연구(1896~1906』,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를 참조할 것.

250) 조기주, 『동학의 원류』, 297쪽.

야 할 길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천도교는 두 가지 방안을 통해 독립을 준비하였다. 하나는 강습소 설립을 통한 교리교육의 강화이었고,[251] 다른 하나는 종교적 심성을 강화하는 수련이었다. 전자는 1910년대 교리강습소 설립과 운영으로, 후자는 우이동 봉황각 건립으로 각각 구현되었다.

천도교는 무엇보다도 '종교의 감화'를 받기 위해 수련을 강조하였다. 즉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무슨 큰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감화를 받아야 만사가 무위이화의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다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요 감화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수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난 체하는 사람이라도 한울님의 감화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큰일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니라"고 하여, 큰일을 성공시키려면 수련을 통한 종교적 감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천도교는 수련할 만한 공간 즉 수도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강점 이후 천도교인의 독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수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에 의암 손병희는 1911년 8월 중앙총부 임직원을 대동하고 우이동을 답사하였다. 당시 우이동은 깊은 계곡으로 원족회나 탁족회 등으로 유명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우이동을 들러본 후 금융관장 윤구영에게 우이동 일대의 밭과 임야 등 3만평을 가격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함께 같던 임직원들은 이런 심산유곡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면서 그 영문을 잘 몰라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의암 손병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우이동 일대 밭과 임야 등 27,946평을 매입하였다.[252] 의암 손병희가 삼각산의 정기가 살아있는 우이동 일대를 매입한 것은 앞서 강조하였던 '종교적 감화'를 위한 수련 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장차 천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략이었던 것이다.

우이동 일대를 매입한 천도교는 이듬해 1912년 3월 7일 이곳에 연원 두목과 지방 교역자의 수련을 위한 도장으로 봉황각을 기공하여 6월 19일 준공하였다. 봉황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본전 木造 瓦葺平家 건평 28평 2합
내실 木造 瓦葺平家 건평 18평 2합
부속 건물 洋瓦葺 건평 8평 3합[253]

그리고 봉황각의 현판의 '鳳'자는 중국의 명필 안진경, '皇'자는 역시 중국인 회소, '閣'자 역시 중국인 미불의 필적을 3·1운동 민족대표의 한 분인 오세창이 모사한 것이다.

3.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와 독립의식의 강화

251) 의암 손병희는 교리강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가 교리강습을 하는 것은 교리에 대한 지식을 넓히어 장래의 교역자가 되어 교회를 확장할 준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만도 않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세 가지의 큰 희망이 있으니 첫째는 자기를 위한 행복이요, 둘째는 국가 민족을 위한 경륜이요, 셋째는 교회와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이니, 자기 개인의 행복은 결국 국가사회를 위하는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니라. (중략)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첫째로 마음이 굳어야 하다. 교리를 연구하여 그대로 실행하면 현인군자는 될 수 있으나 성인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라. 대신사 말씀과 같이 요순공맹이 다시 살아와도 어절 수 없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우선 요순공맹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5만년 大道事業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먼저 굳은 신념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이라."
252) 조기주, 『동학의 원류』, 307-308쪽.
253) 조기주, 『동학의 원류』, 309쪽.

우이동에 수련 도장으로 봉황각을 건립한 의암 손병희는 전국 각 지방의 주요 두목급 지도자를 불러 49일 특별기도를 실시하면서 매 수련 때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지는 법설을 남겼다. 본절에서는 49일 특별기도 과정과 의암 손병희의 법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암 손병희는 1910년 8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부터 '국권회복'을 그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러기 때문에 3.1운동의 목적은 '국권회복과 한국의 독립'이었던 것이다.[254] 따라서 의암 손병희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그 순간부터 국권회복과 한국의 독립은 천도교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폭력적 수단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였다.[255]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극적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종교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암 손병희는 앞서 강조하였던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과 종교적 수양을 통한 수련으로 정신적 무장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천도교에서 행한 49일 특별기도는 독립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문 ; 천도교는 본년(1919년, 필자) 1월부터 2월까지 기도회를 열 것을 각 교도에게 시달하고 실행한 일이 있는가.
> 답 ; 나는 해마다 기도를 올리는데, 천도교에서는 협의상 1월부터 2월까지 기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 문 ; 그 일을 각 교구에 문서로 배포 전달하였는가, 교구장을 모아서 시달하였는가.
> 답 ; 그것은 교주가 문서로 발표하였다.
> 문 ; 그 기도는 어느 때부터 조선독립을 성취할 시기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 답 ; 그렇다.[256]

즉 의암 손병희는 49일 특별기도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의암 손병희는 일제 강점 직후 수련도장을 건립할 곳을 물색하였고, 그 장소로 우이동을 답사한 것이다. 그리고 우이동에 3만여 평을 매입한 후 곧바로 49일 특별기도를 시행할 수련 도장으로 봉황각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봉황각 건축과 동시에 우이동에서 49일 특별기도를 모두 일곱 차례 진행되었다. 일곱 차례의 49일 특별기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 실시 현황[257]

회수	일시	장소	참여인원	주요 법설
1	1912.4.15-6.2	도선암	21	以身換性
2	1912.8.15-10.2	도선암, 봉황각	49	이신환성
3	1913.1.1-2.18	도선암, 봉황각	49	性靈出世

254)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73쪽.
255) 이병헌, 『3.1운동비사』, 81쪽. 이에 대해 의암 손병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 ; 피고는 장래나 또는 미래에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답 ;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을 할려는 나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폭력으로 수행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평화리에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폭력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기도 하였다.
256) 이병헌, 『3.1운동비사』, 86쪽.
257) 『천도교회월보』 30호에 의하면, 49일 특별기도를 제1회는 도선암, 제2회는 도선암과 봉황각, 제3회 역시 도선암과 봉황각에서 각각 진행하였다.(67쪽)

4	1913.4.6-5.24	도선암, 봉황각	49	夫和婦順
5	1913.10.1-11.18	도선암, 봉황각	105	이신환성
6	1913.12.18-1913.2.7	도선암, 봉황각	105	이신환성
7	1914.2.5-3.25	도선암, 봉황각	105	

흔히 봉황각 49일 특별수련은 일곱 차례로 알려져 있지만,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여섯 차례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도선암에서 실시한 1회는 봉황각 건립과 동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황각 특별수련은 49명에서 105명까지 참가하였기 때문에 1회 특별수련을 하였던 도선암을 활용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전국 지방의 핵심 교역자를 불러 도선암과 봉황각에서 49일 특별기도를 실시하면서 매번 법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신환성'이었다. 법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및 제2회

연성의 묘법은 以身換性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有形한 '나'이니 이 유형한 나를 無形한 나로 바꿀 것이요, 身邊世事의 나를 性中天事의 나로 바꿀 것이다. 그대들이 만일 육신의 나로부터 생기는 모든 인연을 끊는다면 본연한 性靈의 나는 자연히 나올 것이다. 사람은 평소에 견실한 수양을 쌓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나니 이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꼭 수련을 해야겠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결심은 쉬우나 평생을 통한 결심으로 수양하기는 어려우니라.

◆ 제3회

(의암 손병희와 참여자 간의 대화)

지동섭 : 대신사께서 다시 출세하신다 하니 사실입니까?

손병희 : 성령으로 출세하실는지 육신으로 출세할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다시 출세하실 것만은 분명하니라.

지동섭 : 그러면 누구나 뵐 수 있습니까?

손병희 : 정성이 지극하면 뵈올 수 있느니라.

지동섭 :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손병희 : 이번 49일 기도를 마치는 날쯤이면 출세하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육신으로 다시 출세하는 것은 천하에 없는 일이니 육신 출세야 바랄 수 있겠느냐마는 설사 육신으로 출세할지라도 그대의 수련이 부족하면 대신사를 뵈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사의 출세 여부는 그대들의 수련 독실 여부에 있는 것이니라.

◆ 제4회

道는 家道和順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先師께서 역설하신 것이니, 수도의 극치는 夫和婦順이다. 天下大事는 다툴지언정 가정에서야 다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은 아무리 聖人이라도 죽기 전에는 그 인격과 명예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큰 성인은 큰일을 당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 첫째는 思想生活이요, 둘째는 學問生活이요, 셋째는 勞動生活이다. 그 중에서 사상생활 하는 사람은 능히 학문생활 하는 사람과 노동생활 하는 사람을 부릴 수 있으나, 노동생활 하는 사람은 학문생활 하는 사람과 사상생활 하는 사람을 부릴 수 없는 것이다. 난세에는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민생이 도탄에 드는 것이니라.

◆ 제5회

내가 以身換性에 대하여 말하였거니와 성령은 不生不滅하므로 氣數가 능히 制御하지 못하나니 진실로 오는 禍를 免하고자 하면 성령과 육신을 바꾸어 믿는데 있느니라. 성령과 육신을 바꾸어 믿는 방법은 육신관념을 끊어야 하나 육신관념을 끊으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니, 육신관념을 끊으려고만 생각지 말고 일거일동에 누가 능히 나로 하여금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하고 이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공부를 계속하면 자연히 성령이 주체가 되고 육신이 객체가 되어 위로는 대신사와 같이 대각이 될 것이요, 아래로는 가히 육신의 화를 면할

것이니라. (중략)

오늘의 일은 국가의 일이거나 교회의 일이거나, 오늘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사람은 큰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수련이 있어야 하나니, 종교적 수련이 없으면 한울의 감응을 받기 어려운 것이니라. 한울님의 감응을 받으면 萬理萬事가 無爲而化로 되는 것이요 한울님의 감응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라.

지금 세상은 힘센 사람의 제일인데, 완력도 힘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힘을 겨루는 것으로 이러한 완력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나, 앞날의 세상은 도력으로써 많은 사람을 감화케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포덕이다. 우리 교회에서 포덕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 포덕은 하면 할수록 힘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니라.[258]

이상의 법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환성'이다. '이신환성'이란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것인데,[259] 이는 곧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제1회 및 제2회에서 언급한 "사람은 평소에 견실한 수양을 쌓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나니 이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꼭 수련을 해야겠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결심은 쉬우나 평생을 통한 결심으로 수양하기는 어려우니라"와 "사람은 아무리 聖人이라도 죽기 전에는 그 인격과 명예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큰 성인은 큰일을 당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것과 제5회 법설의 "사람은 큰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수련이 있어야 하나니, 종교적 수련이 없으면 한울의 감응을 받기 어려운 것이니라. 한울님의 감응을 받으면 萬理萬事가 無爲而化로 되는 것이요 한울님의 감응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라" 등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식민지 상황이지만, 이신환성된 자신을 희생하여 민족 독립의 길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것을 은연 중 각인시켰던 것이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강점 직후부터 수운 최제우의 가르침인 이신환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케 하여 '큰일' 즉 3.1운동을 준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지방에서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하였던 주요 교역자는 이신환성을 통해 민족 독립에 기여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49일 특별기도는 천도교인에게 있어서 민족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천도교를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교를 통한 천도교 교세의 확장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의 하나였던 것이다. 더욱이 49일 특별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그 결과 승전국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는 이신환성으로 무장한 천도교인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즉 독립의 기회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천도교는 이와 같은 특별기도를 통한 민족의식을 강화하면서 대규모의 민중운동을 준비하였다. 봉황각 49일 특별기도를 끝낸 이후 즉 1914년 8월 천도교 내에는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결사인 천도구국단을 조직하였다. 이종일은 천도구국단 조직에 앞서 기독교 또는 불교와 연합하여 민중운동 형태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917년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가

---

258) 조기주, 『동학의 원류』, 310-316쪽 참조.

259) 『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 1991, 646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것은 대신사의 본뜻이니라. 육신은 백년 사는 한 물체요, 성경은 천지가 시판하기 전에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니라. 성령의 본체는 원원충충하여 나지도 아니하며 멸하지도 아니하며 더하지도 아니하며 덜하지도 않는 것이니라. 성령은 곧 사람의 영원한 주체요 육신은 곧 사람의 한 때 객체니라. 만약 주체로써 주장을 삼으면 영원히 복록을 받을 것이요 객체로써 주장을 삼으면 모든 일에 災禍에 가까우리라. (중략) 무릇 안락의 말은 듣기에는 비록 좋으나 실은 안락이 하니라 도리어 險固하고, 험고의 말은 듣기에는 비록 싫으나 실은 험고가 아니라 곧 안락이니, 우리 교의 대신사는 성령으로 주체를 삼으신지라. (중략) 그러므로 육신을 성령으로 바꾸는 사람은 먼저 괴로움을 낙으로 알아야 가하니라."

까워지자, 이종일은 다시 민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의암 손병희에게 제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19년 3월 1일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원칙으로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260]

이러한 의미에서 1919년 들어 3·1운동을 앞두고 천도교는 앞에서 인용한 의암 손병희의 신문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이해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면서 3·1운동에 대한 정신적 무장과 마음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261]

4. 특별기도 참여자와 지방 3·1운동의 확산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선암의 두 차례 기도를 포함하여 우이동 봉황각에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였다. 앞의 <표 1>에 의하면,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한 지방의 주요 인물은 1차 21명을 비롯하여 모두 483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천도교 지방조직인 지방 교구의 핵심적인 지도자였으며, 3·1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1차에 참여한 홍기조, 임예환, 나인협, 박준승 등이 있다. 이들은 지방에서 활동한 중요 교역자였다. 홍기조는 평남 용강 출신으로 당시 道師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홍기조는 민족대표로 참가한 후 일경에 피체된 후 신문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면 일본 제국은 반드시 세계의 대세를 비추어 쉽게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 줄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262] 이는 3.1독립선언은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민족운동의 '점화'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홍기조뿐만 아니라 함께 민족대표에 참여한 평양의 임예환과 나인협, 임실의 박준승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263]

다음으로 3·1운동 '3대 항쟁'으로 널리 알려진 황해도 수안군과 평남 맹산군, 그리고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과 장안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수안군의 경우, 5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안봉하와 6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김영만이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수안교구장이었던 안봉하는 3월 1일 곡산교구장 이경섭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안봉하는 김영만 등과 함께 3월 3일 만세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관내 교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3월 3일 오전 6

---

260) 성주현, 「일제강점기 민족종교의 비밀결사와 독립운동자금모금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150-152쪽.

261) 「종령 제120호」, 1918년 12월 6일자; 『천도교회월보』 100호, 1918.12, 83-84쪽; 이동초, 『천도교회종령존안』, 219-220쪽. 당시 천도교에서 발송한 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吾敎의 主愛-必爲世오. 大願이 亦爲世라. 故로 我信者-愛를 發함에 爲身爲世의 差異가 無하며 願을 發함에 亦爲身爲世의 區別이 無함이 卽吾敎의 原理를 體行함이오. 吾師이 明訓을 服膺함이라. 今此 世族前途의 享福을 爲하여 慧眼의 所到와 願力의 所發이 自有不己라. 故로 特히 祈禱의 節次를 定하여 左記 佈明하노니, 惟我宗徒는 廣濟蒼生의 大願으로 天主와 兩位 神師께 至誠奉祈할지어다.

左記

一. 기도기간은 49일로 정하되 明年 1월 5일부터 소 2월 22일까지 함.

一. 기도시간은 매일 하오 9시로 함. 단 侍日에는 先히 侍日祈禱를 終하고 仍續 奉行함.

一. 기도의식 一, 淸水 一器를 奉奠함. 一, 白米 5合을 奉奠함. 단 白米는 기도기간 종료 후에 自家食料에 供하되 청결히 소비함을 주의함(예컨대 밥알이라도 땅에 함부로 버리지 못할 일). 一, 燭火 3個를 淸水卓前에 點함.

一. 기도심고는 畢히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大願으로써 함.

一. 기도심고를 필한 후 呪文(神師靈氣我心定無窮造化今日至)을 12회씩 細音으로 誦함.

一. 기도기간 내에 酒草를 금하며 家內 淨潔을 특히 주의함.

一. 敎區 及 傳敎室에 상주한 임원은 該敎區室에서 奉行함."

262) 「홍기조 신문조서」.

263) 「임예환 신문조서 」; 「나인협 신문조서」; 「박준승 신문조서」.

시경 수안교구에 집결한 교인들은 안봉하, 김영만, 한청일, 이영철 등이 태극기와 궁을기를 들고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군중을 이끌던 이영철은 금용조합 앞에서 “우리들은 오늘부터 일제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고, 조선국의 목적인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이에 군중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호응하였다. 이어 헌병대 앞에서도 만세시위를 하였는데, 헌병들의 발포로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였다.

맹산군의 경우, 2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방기창을 비롯하여 3차의 이관국, 5차의 방진원, 6차의 김치송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덕천교구 공성원 현성재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맹산교구는 교구장 문병로 외에 길응철, 방기창, 정덕화, 김치송, 이관국, 방진원 등이 주오하여 3월 6일 천도교인 6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3월 10일 일제 경찰이 만세시위 주동자를 검거 고문한 것을 항의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천도교인 다수가 희생되었다.

그리고 수원군 우정면과 장안면의 3·1운동은 7차 특별기도에 참가하였던 김흥렬, 3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한세교와 이성구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수원교구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중 일경의 급습으로 수원에서는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팔탄면의 백낙렬 등과 협의한 후 기독교, 유교와 연합하여 3월 31일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이때 우정면주재소 가와바다(川端) 순사가 살해되었는데, 이를 핑계로 일제는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대학살극을 자행하였는데, 당시 천도교인 30여 명이 희생되었다.[264]

이외에도 우이동 봉황각 특별기도에 참여하였던 교역자들이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지방의 3·1운동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2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황학도, 김수옥, 유계선과 3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이초옥은 평양의 3·1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평양교구장 우기주는 김수옥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받아오게 한 후 황학도의 집에서 김수옥, 유계선, 이초옥, 송영율, 김형국, 이기열, 이성삼 등과 함께 협의한 후 독립선언서를 관내 전교실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평양의 천도교인들은 3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독교인과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성천군의 만세운동 역시 49일 특별기도에 참가하였던 이돈하(2차), 나종선(3차), 한병순(5차), 김택서(5차), 김문홍(6차) 등이 중심이 되어 3월 4일 천도교인과 군중 4천여 명을 이끌고 성천읍 상부리 헌병대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20여 명이 사망하였다. 용강군에서는 1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홍기억이 중심이 되어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교구를 비롯하여 면전교실이 있는 곳마다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평남 안주군은 2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김안실과 3차에 참가한 김명준이 3·1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김안실 교구장은 당시 교회 간부였던 김광호, 김춘택 등과 의논하는 한편 보통학교 교사이며 천도교인 차신정을 평양교구로 파견하여 3·1운동의 실정을 파악케 하였다. 이어 3월 3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기독교측과 연대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3월 3일 오전 11시경 율산공원에서 5천여 명의 군중을 동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도교인 연성운, 이의범 등이 현장에서 일제의 총격에 희생되었고, 김춘택 연성도 유봉수 등이 검거되었다.

평북 의주의 만세운동 역시 특별기도에 참가한 최석련(2차), 최안국(5차), 안국진(3차), 김처길(3차), 김국언(4차)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선천교구의 김상렬(6차 특별기도에 참가)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후 최동오 등과 함께 3월 2일 남문 앞 광장에서 수천 명의 군중을 리더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황해도 지역의 만세운동에도 많은 천도교인들이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해도의 3.1운동은 4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바 있는 이경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경섭은 보성사 이종일

---

264)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에게서 독립선언서를 받아 황주, 수안, 곡산, 장연, 연백, 신천, 평산, 금천, 장연, 신계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외에도 국외인 만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7차 특별기도에 참여하였던 이성교가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지역 일부의 사례를 통해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참가한 인물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한 이들은 각 해당 지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천도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군중, 나아가 기독교 등과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이들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19년 3월 1일부터 전개된 3·1운동은 이해 6월까지 전국적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각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천도교인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2> 천도교 지방교구의 3.1운동 참여 현황

도별	3.1운동 참여한 천도교 교구	비고
평남	평양, 덕천, 양덕, 성천, 평원, 강서, 중화, 진남포, 맹산, 용강, 강동, 숙천, 순천, 은산, 안주, 영원, 개천	17
평북	의주, 선천, 용천, 철산, 구성, 정주, 운산, 창성, 강계, 자성, 초산, 벽동, 삭주, 위원, 영변, 태천	16
함남	함흥, 원산, 정평, 단천, 북청, 홍원, 이원, 풍산, 갑산, 삼수	10
함북	성진, 길주, 경성, 부령, 온성	5
황해	수안, 곡산, 사리원, 토산, 재령, 해주, 안악, 은율, 겸이포, 송화, 연백, 신천, 평산, 장연, 서흥, 황주, 신계, 옹진	18
경기	수원, 인천, 광주, 양주, 가평, 여주, 이천, 용인, 평택, 시흥, 부천, 강화, 양평	13
강원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정선, 삼척, 화천, 철원, 평강, 양구, 양양, 이천, 회양	13
경남	진주, 울산, 고성, 함양, 창녕, 영산, 창원	7
경북	대구, 경주, 안동, 김천, 성주	5
충남	대전, 논산, 부여, 청양,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아산, 공주	10
충북	청주,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7
전남	장흥, 완도, 진도, 강진	4
전북	전주, 임실, 남원, 순창, 강경	5
국외	집안, 장백, 화룡, 훈춘, 국자가, 해삼위	6
계		136

<표 2>에 의하면, 천도교인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례는 136개 교구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 만세운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지역 교구에서 전달받았으며, 이를 관내 지역 교구에 다시 배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대교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교구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것은 3월 1일로, 비교적 일찍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전주에 독립선언서의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전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은 인종익이 배포의 책임을 맡았다. 인종익은 신문조서에서 호남지역 독립선언서 전달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2월 28일 오전 7시경 보성사의 출판계장 이종일이 나에게 손병희 이하 33명의 조선민족을 대표한 독립선언서를 전주와 청주의 2개소에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265]

> 2월 28일 오전 11시 남대문발 남행 혼합열차를 타고 대전에 이르러 그곳에서 호남선 연결상의 형편으로 1박하였으며, 다음 3월 1일 오전 6시 대전발 호남선 제1번 차에 탑승하여 이리에 이르러, 오전 11시 그 역에서 전주행 경편철도를 갈아타 12시경 전주에 도착하였으며[266]

인종익은 2월 28일 오전 7시 이종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전주교구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독립선언서 2천 매를 받은 인종익은 오전 11시 남대문을 출발하여 대전에서 하루를 묵은 후 3월 1일 새벽 6시 호남선을 열차를 타고 이리에서 오전 11시 경편철도를 이용하여 12시경 전주에 도착하였다.

인종익은 전주 도착 즉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기 위해 전주역 앞 고사정(현 고사동)에 있는 천도교 전주대교구[267]로 갔다. 사전에 연락을 받은 교구장 김봉년(2회 참가)이 자리를 비움에 따라 금융원 김진옥에게 독립선언서 1천 8백 매[268]를 전달하였다.[269] 인종익은 독립선언서를 3월 2일까지 배포하고 3월 3일까지는 골고루 보급하라고 전달하였다.[270]

> 인종익이 손병희 외 32명 연명의 조선독립선언서 약 3천 매를 가지고 와서 3월 2일 밤까지 전주교구 관할 하 각 교구에 나누어 보내 3월 2일 밤에 사람 통행이 많은 거리에 살포하라고 하므로[271]

이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전주대교구는 대교구 관할 구역인 임실을 비롯하여 진안, 장수, 김제, 고산 등지의 천도교 교구에 전달하였다. 교구장 김봉년은 인종익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기로 하였지만, 고종 국장 참가와 서울에서 전개되는 만세시위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 출타 중이었다. 이에 앞서 김봉년은 부득이 자리를 비웠지만 구창근(1차 참가), 김진옥과 독립선언서 배포와 관련한 사전 협의하였고,[272] 김진옥은 이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관할 교구에 다시 배포하였다.

김진옥은 독립선언서 2백 매를 휴대하고 천도교 임실교구로 가서 교구장 한영태에게 전달하고, 3월 2일 밤중에 배포하라고 인종익의 지시 사항을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측에도 전달하였다.[273]

전주대교구가 관할하고 있는 각 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후 전주교구는 전주 시내와 인근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독립선언서를 받았던 김진옥은 민영진, 조성덕, 김성문,

---

265) 『인종익 및 신문조서』(1919년 3월 11일)
266) 『인종익 신문조서(제1회)』(1919년 3월 4일)
267) 인종익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천도교 전주교구는 당시 전주역으로부터 전주읍 입구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268) 인종익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김진옥은 2천 매가 아닌 3천 매였다고 하였다.(『김진옥 신문조서』)
269) 『김진옥 신문조서』(1919년 7월 2일) 김진옥은 신문조서에서 2월 27일 오후 3시경에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70) 『인종익 및 신문조서』(1919년 3월 11일); 『인종익 신문조서(제2회)』(1919년 3월 6일)
271) 『김진옥 신문조서』(1919년 7월 2일)
272) 「인종익 심문조서(제2회)」(1919년 3월 6일)
27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 삼일운동사 하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494쪽.

김영홍 등에게 3월 2일 밤중까지는 배포할 것을 당부하였다.[274] 전주교구는 시내뿐만 아니라 상관면, 소양면 등 인근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책임자를 선정하였다. 민영진은 3월 2일 12시 서호순에게 독립선언서 4매를 주고 상관면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서호순은 진영섭에게 1매를 전달하고 구장 이경운, 최년태, 박인숙의 문가에 살포하였다.[275] 민영진으로부터 9매의 독립선언서를 받은 김태경은 우선 3월 2일 저녁 7시 유원에게 4매를 교부하였고, 나머지 5매는 김태경이 한광진, 정문명, 채춘만, 유선일 등에게 배포하고 "다수 공동으로 독립 시위운동을 하자"고 선동하였다.[276] 유원은 소양면 신교리의 이달수, 유명선, 양영화, 그리고 용진면 공덕리 이완옥에게 배포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277] 유선태 역시 민영진으로부터 독립선언서 5매를 받아 시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포하였다.[278]

이상에서 살펴본 천도교 전주교구에 전달된 독립선언서의 전주지역 배포 상황을 정리하면 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천도교 전주대교구 독립선언서의 시내 배포 현황

전달자	매수	배포	비고
민영진		김태경, 서호순, 유선태	
김태경	9매	유원, 한광진, 정문명, 채춘선, 유선일	
유 원	4매	이달수, 유명선, 양영화, 이완옥	소양면, 용진면
서호순	4매	진영섭, 이경운, 최년태, 박인숙	상관면
유선태	5매		전주면

이처럼 독립선언서가 전주대교구에 전달되자, 전주대교구는 관할하는 관내 교구에 이를 전달하는 한편 전주 시내와 인근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한편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결과 3월 2일 늦은 밤을 이용하여 전주 시내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제 측에서 수집한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3월 3 일 오전 시중에서 독립선언서 1매를 발견하고 수사 중"[279]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의 3·1운동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우이동 봉황각 특별기도 참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천도교에서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이동 봉황각과 3.1운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이동 봉황각의 건립은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천도교와 함께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암 손병희는 삼각산의 정기가 살아있는

274) 『김진옥 신문조서』(1919년 7월 2일).
275) 『서호순 판결문』. 판결문 중 제2회 신문조서에는 "상관면 신리주재소 부근에 산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서호순은 4매보다 많은 독립선언서를 받았다고 불 수 있다.
276) 『김태경 판결문』.
277) 『유원 판결문』.
278) 『유선태 판결문』.
279)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原書房, 1967, 316쪽.

우이동 일대를 매입한 것은 '종교적 감화'를 위한 수련 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장차 민족의 동량을 양성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둘째, 우이동 봉황각은 천도교의 민족운동 지도자를 양성한 특별교육장이었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 강점 이후 독립이라는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종교적 수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1912년 우이동에 봉황각을 건립하면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지방의 중요 교역자를 불러 49일 특별기도를 통해 민족의식을 강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의암 손병희는 '이신환성'의 법설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셋째,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한 인물들이 지방의 3·1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일곱 차례에 걸쳐 특별수련에 483명이 참여한 이들은 3·1운동의 민족대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는 비록 3·1운동 이전에 실시되었지만, 참여자들은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교구'라는 조직을 충실하게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이동 봉황각 49일 기도 중 의암 손병희의 '이신환성'이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토론 5

성주현, 「 ‘봉황각 49일 특별기도’ 를 중심으로 본 천도교의 3·1운동 준비과정」에 대한 토론

조 성 운 (동국대학교)

본고는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의 3·1운동 준비 과정을 ‘봉황각 49일 특별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3·1운동이 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천도교를 비롯한 각 교단이 3·1운동을 어떻게 준비해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천도교의 3·1운동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발표자는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이하 특별기도)를 독립의식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1운동이 1919년에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기도를 3·1운동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특별기도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이병헌의 『3·1운동비사』는 발표자 스스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특별기도 법설의 핵심사상을 ‘이신환성(以身煥性)’이라 하였으나 ‘이신환성’은 발표자가 다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1, 2,5, 6회의 내용이었고, 제3회는 성령출세(性靈出世), 제4회는 부화귀순(夫和婦順)이었다. 이 법설 어디에도 ‘독립’은 나오지 않는다. 모두 종교적인 내용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 역시 “독립의 길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것을 은연 중 각인”시켰다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특별기도를 3·1운동을 비롯한 천도교의 독립사상 강화라는 방향으로 증명하려면 보다 확실한 사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발표자는 특별기도 참여자가 3·1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특별기도가 3·1운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홍기조, 임예환, 나인협, 박준승 등 민족대표에 서명한 인물, 수안(안봉하, 김영만)·맹산(방기창, 이관국, 방진원, 김치송)·수원(김흥렬, 한세교, 이성구)·평양(황학도, 김수옥, 유계선, 이초옥)·성천(이돈하), 나종선, 한병순, 김택서, 김문홍)·안주(김안실, 김명준)·의주(최석렬, 최안국, 안국진, 김처길, 김국언) 외에 다수 지역의 인물들이 3·1운동을 주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토론자가 아는 한 수원지역의 인물들은 주도자급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제의 심문 기록에 따르면 수원지역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백낙렬에 대한 기록이 도처에 나오지만 김흥렬, 한세교, 이성구 등에 대한 기록은 없거나 매우 소략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수원지역의 3·1운동에서 특별기도에 참여한 인물들의 영향을 발표자의 서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토론자는 1919년 특별기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天道敎慶州敎區沿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自59年1月8日至同年2月25日 49日間 3月 1日 獨立宣言式을 앞두고 中央總部에서 指名 特別祈

禱를 本敎堂에서 行하다.
晉州 申鏞九 慶州 朴仁桓 彦陽 郭海鎭 永川 李鍾遠

이 기록은 분명히 독립선언식을 앞두고 중앙총부에서 지병 특별기도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본고에는 이 특별기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3. 발표자는 논의의 초점을 특별기도에 맞추다 보니 천도교의 성미운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특히 1911년 일제가 성미제도를 폐지하라 강권하여 성미제가 폐지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성미제는 1914년 부활하였다. 토론자는 천도교의 3·1운동 준비 과정을 설명하려면 성미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일제측에 자료에 따르면 성미제도가 독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大正 8년 3월 1일 孫秉熙가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3월 15일 피고 鄭廣朝로부터 조선독립을 관철하려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신도들에게 응분의 돈을 내게 하여 운동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의 內命을 받았으므로 피고(정도영-인용자)는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인 京畿道 내의 각 敎區長에게 운동비용으로 수천 원을 모집하여 피고 鄭廣朝에게 주어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諸般의 직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1919년 4월 하순경에 水原·南陽·振威·安城·利川·驪州·始興·龍仁·廣州의 각 敎區長에게서 보내온 1천 수 백원을 天道敎의 金融觀을 통해 납부하였다.[280]

그러므로 특별기도보다는 1919년의 특별기도와 '성미'에 초점을 맞추어 천도교단의 3·1운동 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편이 천도교단과 3·1운동의 관계를 밝히는데 보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280) 「의견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발표 6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독립만세운동 전개(1919~1920)

조 규 태 (한성대학교)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천도교는 기독교·불교와 연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천도교의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등은 1918년 말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 한국의 독립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처음에 일본 정부에 자치를 청원하려다가 해외에서 독립운동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1919년 초 이들은 기독교 및 불교의 대표와 연계하여 민족대표를 선정하고, 독립선언서를 제작·인쇄·배포하고, 독립선언식을 개최한 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281]

천도교의 전라도 지역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사전 검거로 주목할 만한 형태로 전개되지 않았으나, 전라도의 천도교인은 전북과 전남의 각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전주의 천도교인은 1919년 3월 13일~14일 남문시장 주변에서 기독교인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이끌었다. 그리고 전라도의 천도교인은 3·1운동 후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여 1920년 3월 「읍궁사(泣弓辭)」, 「대한독립기념경고문」 등을 배포하고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만세운동에 기여한 역할이 작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있었다.[282] 그리하여 3·1운동 이전 천도교의 전남과 전북지역 교회와 그 주도인물, 천도교인의 전남·전북 지역 독립선언서 배포와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3·1운동 이전 전라도 지역의 천도교회와 천도교세, 독립선언서의 전달 및 배포, 독립만세운동 시 천도교인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또 전라도 천도교인의 대한국민회 조직과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된 제2차 독립만세운동은 아직 다루어진 바가 없기에 연구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독립만세운동 전개」라는 주제로 전라도 천도교인의 3·1운동을 다시 검토하려 한다. 먼저 3·1운동 이전 전라도 지역의 천도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 전라도 지역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독립만세운동 전개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천도교인의 제2차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여기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천도교인이 3·1운동 직후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281)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17-44쪽.
282) 조규태, 「전남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동학연구』 17, 2004.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성주현, 「전주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과 그후 동향」, 『숭실사학』 40, 2018.

연계하여 1920년 3월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 한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3·1운동 이전 전라도의 천도교세

1894년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가 큰 타격을 입은 전라도 지역의 동학인은 1898년 최시형의 사망과 손병희의 도통 계승, 손병희의 문명개화노선 추진과 천도교의 창시 등으로 인해 동요하고 분화하였다. 먼저 정읍·장성·고부·태인·무장·흥덕·고창·부안 일대의 동학인은 '英學'을 조직하였다. 조직의 지도부인 손병규·홍계관·최익서 등은 손화중포 소속이었다. 이들은 1898년 경 영국 계통의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英學'을 표방하고 기독교리를 전파하고, 예배와 교전모금을 행하며 교인을 모집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283] 또 강증산이 1901년 정읍에서 결사를 조직하고 문명개화노선을 반대하며 활동하였을 때[284] 이를 따르는 전라도의 동학인도 있었다.[285] 그리고 1898년 최시형의 갑작스러운 체포와 사망 후 손병희에게 도통이 전수되자 김연국의 연비에 속한 전라도의 동학인은 김연국과 행보를 함께하였다. 부안의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286]

그렇지만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교단이 1904년 진보회를 조직하고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였을 때, 전북 임실의 장선익(張先益)과 남원의 이병춘(李炳春) 및 그 소속 교인은 이를 지지하였다. 1904년 10월 500~600명의 동학인이 전북 익산의 황등리에서 진보회를 조직하였고, 임실·남원·순창·정읍, 태인·함열 등지에서도 수백 명의 동학인이 진보회를 개회하였다.[287]

1904년 11월 말 전북과 전남의 각지에서 진보회가 조직되고 책임자가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의 삼례에 본부를 둔 전주지회는 회장 유화인(劉化仁, 士人), 부회장 김일수(金日洙, 前議官)였고, 김제지회는 회장 이영하(李永夏, 사인), 부회장 조병하(曺秉夏), 득복리에 본부를 둔 임피지회는 회장 이통운(李通云, 사인), 부회장 최희덕(崔禧德, 사인), 석불리에 위치한 익산지회는 회장 김해생(金海生, 사인), 부회장 이규헌(李奎憲, 前進士), 여산지회는 회장 장남선(張南善, 사인), 부회장 민영일(閔泳一, 전도사) 등이 회를 주도하였다. 황등에 근거한 함열지회는 회장 이병춘(李炳春), 부회장 구창근(具昌根), 용두리에 근거한 태인지회는 회장 박재덕(朴在德, 사인), 부회장 김봉득(金鳳得, 사인), 원평에 근거한 금구지회는 회장 이일환(李日晥, 前主事), 부회장 정대형(丁大衡, 사인), 유교(楡橋)에 근거한 임실지회는 회장 박준신(朴準莘), 태인군 안계지회는 회장 황봉기(黃鳳起), 부회장 오준용(吳俊容, 사인)이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전라남도의 장성지회는 회장 박화생(朴花生, 사인), 부회장 김인환(金仁煥, 사인), 흥양지회는 회장 정영순(丁永詢, 사인), 부회장 송연섭(宋年燮, 사인)이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각 지회에는 평의원 5명을 두었는데, 사인 1명에 농부와 상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288]

진보회 본부에서는 ① 皇室을 존엄하게 하며 그 신성을 범하지 않을 것, ② 독립보전을 도

---

283) 이영호, 「영학의 조직과 기독교와의 관계」, 『한국기독교와 연사』 48, 2018. 162-176쪽.

284) 김정인,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202-203쪽.

285) 이 결사는 흠치교·태을교로 불리다가 1922년 보천교로 발전하였다. 차경석은 1909년 강일순의 사후 교구로 활동하였다.

286) 박맹수, 「김낙철계 동학농민군 활동과 갑오 이후의 동향」, 『동학학보』 17, 2009, 85쪽. 조규태, 「김낙철 형제의 동학과 부안도소 활동」, 『동학학보』 64, 2022, 12, 30-33쪽. 김낙철과 김낙봉은 1907년 김연국과 함께 시천교에 가서 활동하였다. 김낙철은 1917년 천도교에 합류하였으나 김낙봉은 시천교에서 활동하다 1925년 김연국의 시천교가 수운교의 이상룡과 합하여 만든 상제교의 법도주로 활동하였다.

287) 「진보회원이라 부르는 한민 집합 건에 관한 구보」(1904.10.15.), 「남부지방 일진회의 상황」(1904.12.05.),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권.

288) 「일진회 현황에 관한 조사보고」(1904.11.22.),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1권.

모할 것, ③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것, ④ 정치의 개선을 기할 것, ⑤ 재정을 정리할 것, ⑥ 기타 문명의 계발에 힘쓰며 교육의 보급, 농공업의 융성을 계획할 것, ⑦ 동맹국(일본)의 군사상에 방조할 것 등을 강령으로 하였다.[289] 그런데 전라도의 동학인들은 이것과 아울러 토지문제의 해결과 탐관오리의 제거를 지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는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방의 지회가 문명개화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크게 다르다.[290]

동학의 현도화(顯道化)를 이룬 동학교단은 1905년 12월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꾸었다. 이는 단순한 명칭만의 교체이 아니라 동학의 태도와 가치, 대외 정치노선, 이상사회론과 사회변혁관의 변경을 의미하였다. 천도교인은 '배우는 사람(學徒)'에서 '가르치는 사람(敎人)'으로 자처하였다. 천도교는 유·불·선 등 동양의 문화를 중시하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인내천(人乃天)과 동귀일체(同歸一體) 등 평등을 강조하던 종지(宗旨)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을 받아들여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자립'과 '자율'의 가치와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천도교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사상이 반영된 <천도교대헌>을 마련한 후 교회의 체제와 교리를 정비하고, 학교와 교리강습소 등을 통해 근대적인 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291]

천도교가 성립되어 중앙총부와 지방교구가 정비되던 1906년 12월 전라도 지역에도 대교구가 설치되고 그 책임자가 임명되었다. 전남 광주대교구장 박낙양(朴洛陽), 강진대교구장 김병태(金炳泰), 동 대리 김종태(金鍾泰), 전북 남원대교구장 이용문(李龍文), 전주대교구장 이병춘(李炳春), 동 대리 민식(閔湜), 익산대구장 오지영(吳知泳), 동 대리 변치운(卞致雲), 태인대교구장 임래규(林來圭), 동 대리 김영식(金永湜)이 그 교역자였다.[292]

그런데 전라도 천도교회의 발전은 순탄치 많은 않았다. 1910년 구례의 송기호(宋杞浩)는 소위 손병희와 중앙총부에 이른바 '오손'을 가하였고[293], 1911년 강진교구장 홍순은 신임교구장 정재수의 임명에 저항하기도 하였다.[294] 이에 천도교 중앙총부에서는 1910년 교구감독을 두어 몇 개의 교구를 관리·감독하게 하였다. 남원·운봉·구례군 교구감독 이기동(李起東), 지도·완도 교구감독 안병수(安炳洙), 광주·담양·장성·창평군 교구감독 박낙양(朴洛陽), 영광·나주·함평·무안군 교구감독 송두욱(宋斗旭), 영암·남평·장흥군 교구감독 윤세현(尹世顯), 강진·해남·진도군 교구감독 김병태(金炳泰), 곡성·순천·흥양·보성군 교구감독 정영순(丁永詢)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295]

1914년 7월 1일 전남에는 장성과 순천과 강진 3곳에,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2곳에 대교구가 있었다. 전남의 장성대교구 산하에는 장성교구 담양교구 광주교구 창평교구 남평교구 무장교구가 있었고, 순천대교구 산하에는 순천교구 고흥교구 광양교구 보성교구 구례교구 곡성교구 여수전교실이 있었으며, 강진대교구 산하에는 강진교구 해남교구 장흥교구 무안교구 진도교구 초도교구 완도교구 장산교구 영암교구가 있었다. 그리고 전북의 전주대교구 산하에 고산교구 전주교구 진안교구 장수교구 금구교구 임실교구 순창교구 남원교구가 있었고, 익산대교구 산하에 익산교구 은진교구 여산교구 함열교구 옥구교구 김제교구 만경교구 고부교구 태인교구 부여교구 논산교구 연산교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남에는 대교구 3개소에 교구 20개소,

---

289) 「일진회 현황에 관한 조사보고」(1904.11.22.),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1권.

290)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1, 1990, 88-89쪽.

291)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98-200쪽. 조규태, 「천도교 문화운동론의 패러다임과 내용」,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51-102쪽. 조규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의회제도 도입과 운용」, 『한국사연구』 164, 2014, 239-243쪽. 조규태, 「손병희의 근대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확산」, 『동학학보』 62, 2022, 53-62쪽.

292)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49쪽.

293) 『천도교회월보』 2호, 1910.9, 60쪽.

294) 『천도교회월보』 6호, 1911.1, 55쪽.

295) 『천도교회월보』 2호, 1910, 9, 54쪽.

전북에는 대교구 2개소에 교구 17개소가 있었다. 당시 천도교 대교구의 지역별 수가 경기도에 3개소, 충남에 1개소, 충북에 1개소, 평남에 6개소, 평북에 8개소, 함남에 3개소, 함북에 1개소, 황해도에 2개소, 경남에 1개소, 경북에 1개소, 강원도에 3개소였으니, 전라도의 천도교세는 평안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센 편이었다.[296]

1914년 7월 당시 전라도 지역의 천도교 교구장은 다음의 <표 1>과 같다.[297]

<표 1> 전라도 지역의 천도교 교구장(1914)

지역	교구	교구장	교구	교구장	교구	교구장	교구	교구장
전남	장성군	박준승	순천군	박낙양	강진군	김병태	무안군	송두욱
	해남군	홍순	장흥군	강봉수	고흥군	정영순	담양군	이경섭
	광주군	윤기섭	영암군	양빈	진도군	김의태	완도군	신명희
	곡성군 창평	황정욱	곡성군	김영학	나주군 남평	박인화	보성군	문장형
	무안군 초도	안병수	무안군 장산	이동필	광양군	황병수	구례군	강철수
전북	전주군	전봉년	익산군	장남선	남원군	박진경	김제군	공문학
	정읍군 고부	송대화	익산군 여산	정대원	옥구군	최순봉	장수군	임두홍
	고창군 무장	민영순	정읍군 태인	김연구	익산군 함열	민영순	순창군	지동섭
	임실군	김영원	진안군	형극민	전주군 고산	김현구	김제군 금구	김중화
	김제군 만경	전길호						

전라도의 천도교인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유사종교』에 따르면, 1906년부터 1919년까지 전라도의 천도교세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즉, 전라도의 천도교 교세는 천도교 성립 직후부터 1919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교인의 수는 1906년 4,808명에서 1918년 11,166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 1906-1919년 전라도의 천도교세[298]

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지역	남자	여자	합계	지역	남자	여자	합계	지역
1906년	1,837	971	2,808	14	1,200	800	2,000	6	3,037	1,771	4,808	20
1907년	1,914	944	2,858	14	1,200	800	2,000	6	3,114	1,744	4,858	20
1908년	2,105	1,058	2,163	15	1,304	912	2,216	6	3,409	1,970	4,379	21
1909년	2,110	1,073	3,183	15	1,337	938	2,275	6	3,447	2,011	5,458	21
1910년	2,840	1,355	4,195	16	1,337	938	2,275	7	4,177	2,293	6,470	23
1911년	2,881	1,381	4,262	16	1,337	938	2,275	7	4,218	2,319	6,537	23
1912년	3,246	1,571	4,817	17	1,337	938	2,275	7	4,583	2,509	7,092	24
1913년	3,500	1,602	5,102	17	1,337	938	2,275	7	4,837	2,540	7,377	24
1914년	3,272	1,497	4,769	17	1,337	938	2,275	8	4,609	2,435	7,044	25
1915년	3,094	1,425	4,519	17	1,505	1,052	2,557	9	4,599	2,477	7,076	26
1916년	3,247	1,625	4,872	17	1,505	1,052	2,557	9	4,752	2,677	7,429	26
1917년	3,009	1,600	4,609	17	1,505	1,052	2,557	10	4,514	2,652	7,166	27
1918년	3,710	1,873	5,583	17	3,595	1,988	5,583	10	7,305	3,861	11,166	27
1919년	3,884	2,403	6,287	19	2,640	1,557	4,197	11	6,524	3,960	10,484	30

296)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183쪽.
297)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188쪽. 이동초 편역, 『천도교회 종령존안』(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5), 209-210쪽.

이처럼 전라도의 천도교세가 신장됨에 따라 중앙총부에서 활동하는 인물도 증가하였다. 1906년 초 천도교의 중앙총부가 조직되고, 도사(道師)와 교장·교수·도집·집강·대정·중정의 6임을 선정하였을 때 해남 혹은 능주 출신인 양한묵(梁漢默)이 집강에 보임되었다. 양한묵은 천도교 중앙총부의 교무관서인 현기사(玄機司)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1907년 4월 4일 현기사의 사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1909년에는 법도사(法道師), 1910년에는 진리관장, 1911년부터 1919년까지 도사(道師)로 활동하였다.[299] 전북 임실 출신으로 장성군대교구장 겸 전라도순유위원으로 활동하였던 박준승은 1918년 도사에 임명되었다.[300] 장성의 송년섭, 순천의 김창문, 강진의 김의태, 익산의 정용근, 전주의 구창근은 1914년 천도교의 의회인 총인원(叢仁院)의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총인원의 정원은 35명이었는데 전라도 출신이 5명이나 되었다.[301]

한편 전라도의 천도교인들은 근대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천도교에서는 교인들에게 교리와 근대적인 사상과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1908년부터 교리강습소를 설치하여 1912년 말 전국에 700개의 교리강습소를 운영하였다. 전남에서는 해남 6곳, 무안 5곳, 진도 4곳, 나주 3곳, 장흥 2곳, 강진 1곳, 광주 1곳, 목포 1곳 등 10개 군에 25개소의 교리강습소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전북에서는 진안 3곳, 전주 2곳, 임실 2곳, 고부 1곳, 김제 1곳, 남원 1곳, 담양 1곳, 만경 1곳, 부안 1곳, 순창 1곳, 영암 1곳, 장수 1곳, 태인 1곳 등 13개 군에 17개소의 교리강습소가 운영되었다. 140개소가 운영된 평남과 264개소가 운영된 평북을 제외하면 전라도에 설치된 교리강습소의 수가 가장 많았다.[302]

3.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배포

3·1운동 당시 천도교의 민족대표 15인 중 전라도 출신으로는 천도교의 도사인 양한묵과 박준승이 있었다. 양한묵(1862-1919)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00년대 초 일본에서 손병희를 만나 동학에 입교하였다. 그는 천도교 창시 후 『천도교대헌』을 작성하고 현기사장(1907), 진리과장(1910), 도사(1910) 등 천도교의 요직을 맡아 활동하고 「천도교문」, 「대종정의」 등 천도교의 교리를 정리하였다.[303] 양한묵은 2월 21일 권동진으로부터 손병희 주도의 독립선언 계획을 듣고 이에 찬성하였다. 그는 2월 23일 권동진과 기독교·불교와의 연합을 논의하였고, 25일에는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27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오후 태화관에서 있은 독립선언식에도 참석하였다.[304]

또 전북 임실 출신으로 1890년 동학에 입교하였던 박준승(1866-1927)은 1894년 도접주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04년 갑진개화운동 시 임실에서 진보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천도교 창시 후 1907년 임실교구장, 1909년 의사원, 1914년 장성대교구장, 1917년 경도사(敬道師) 등 천도교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305] 그는 전주교구에서 49일 기도를 마친

298)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1935), 민속원 간, 『朝鮮の類似宗教』、1998.
299) 홍영기, 「지강 양한묵의 생애와 활동」, 『오세창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1995, 117쪽. 천도교 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11-166쪽. .
300)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417쪽.
301) 「총인원의사원」, 『천도교회월보』 50호, 1914. 9, 39쪽.
302) 조규태, 「전남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동아연구』 17, 2004, 227-228쪽.
303) 최기영, 「한말 천도교와 양한묵」, 『역사학보』 147, 1995, 97-114쪽.
304)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266-274쪽. 홍영기, 「지강 양한묵의 생애와 활동」, 『오세창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1995, 119-121쪽.
305) 김재계, 「故泚庵朴準承氏一生」, 『천도교회월보』 199호, 1927. 7, 31쪽. 오재식 편술, 『민족대표삼십삼인전』(동방문화사, 1959), 212-213쪽.

후 1919년 2월 24일 교무의 보고와 국장 참석의 명분으로 상경하였다. 박준승은 25일 중앙총부를 방문하여, 권동진으로부터 거사 계획을 들었으며, 참여를 권유받자 응낙하였다. 이어 그는 27일 권동진으로부터 김상규(金相奎)의 집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306]

전라도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사람은 보성사 인쇄소 사무원 인종익(印宗益)이었다. 인종익은 1919년 2월 28일 오전 7시경 보성사의 활판계장 이종일(李鍾一)로부터 독립선언서 2,000매를 받아 전주교구와 청주교구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오전 11시경 남대문발 열차를 타고 대전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1박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일 오전 6시 호남선 열차를 타고 이리에 도착한 후, 오전 10시 경 기차를 타고 정오 무렵 전주교구에 도착하였다. 그는 전주교구장 김봉년(金奉年)이 자리에 없자 배상근, 금융원 김진옥(金振玉), 김봉년의 사위 이원규(李元圭)에게 1,800매를 전달하고 전라도의 각지에 배포하라고 부탁하였다.[307] 이때 인종익은 임실군 청웅면 출신으로 천도교의 민족대표로 서명한 도사 박준승의 당부를 김진옥에게 전달하였다.[308]

전주교구의 배상근은 금융원 김진옥에게 독립선언서 600장을 주어 임실교구장 한영태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신임할 만한 교인을 시켜, 남원, 익산군 이리, 옥구, 함열, 김제, 무주, 정읍, 태인, 순창, 금산에 전달하게 하였다.[309] 금융원 김진옥은 3월 1일 밤 고사정(高砂町) 거주 민영진閔泳軫), 완산동(完山洞) 거주 조성덕(趙聖德)·김성문(金成文)·김영호(金永浩)에게 독립선언서를 주고 3월 2일 밤중에 전주읍의 도로에 살포하게 하였다.[310] 이에 민영진은 3월 2일 정오 경 고사정 소재 천도교 교구실에서 전주군 상관면 신리에서 주막업을 하던 서호순(徐鎬淳, 50세)에게 4매, 전주군 우림면 태평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유선태(柳先泰, 48세)에게 5매, 소양면 황운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김태경(金太京, 45세)에게 9매를 주어 거주 면리와 인근에 배포하게 하였다. 그 후 서호순은 3월 2일 자기가 거주하는 상관면 신리의 노상에, 유선태는 우림면의 각리에, 김태경은 소양면 신교리 유원(柳謜) 외 4명에게 9매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유선태로부터 독립선언서 4매를 받은 유원은 즉시 이를 동리 거주 이달수·유명선·양원화, 전주군 용진면 공덕리 거주 이완옥(李完玉)에게 각 1매씩 주고 독립선언의 사실을 전파하게 하였다.[311]

전주교구장 김봉연의 사위 이원규는 3월 1일 오후 인종익과 함께 이리의 익산교구장 이중열(李仲悅)을 찾아갔다. 이원규는 독립선언서 100매짜리 다섯 묶음 500매를 이중열에게 주고, 국장 전날인 3월 2일 밤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 산포하고, 부근의 군산, 함열, 김제, 논산 등지에도 전달하라고 부탁하였다.[312]

---

306)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422·423쪽.

307) 「인종익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11.0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15쪽.「조선독립을 선언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건」(전주경찰서장, 1919.03.06.).「인종익 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90.「김진옥 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7.2.)에는 박준승이 인종익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병헌의 『3·1운동비사』(시사시보사, 1959), 901쪽에는 김봉년과 천도교 도사 이병춘, 도훈 구창근은 서울에 올라가 있어서 전주교구의 직원인 金振玉과 裵祥根에게 전달하였고, 인종익이 배상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창근의 이름을 대었다고 하였다.

308)「김진옥 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7.2.)에는 박준승이 인종익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309)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901쪽.

310) 「인종익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11.0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15쪽.「김진옥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02.2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1994.

311) 「김태경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04.18.), 「서호순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04.16.), 「유원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16.), 「유선태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04.04.),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479-1481쪽.

312)「이형우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05.10.) 내 <이유란의 이중열 신문조서>.

익산교구장 이중열은 3월 2일 교당에서 송일성(宋一成)에게 2묶음을 주어 익산국 함열면 와리의 함열교구장 최재붕에게 전달하여 함열과 강경에 배포하게 하였다. 또 이중열은 이유상(李有祥)에게 1묶음을 주어 군산지역에, 전(前) 김제교구장 이풍이(李豊伊)에게 1묶음을 주어 김제에, 이현우(李賢雨)와 홍영섭(洪永燮)에게 각각 반 묶음을 주어 구(舊) 익산 읍내에 배포하게 하였다.[313]

익산군 함열면 와리의 천도교구장 최재붕은 1919년 3월 2일 송일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묶음 200매를 받았다. 그는 33매만 남기고 나머지를 민영순(閔永淳)에 전달하여 논산교구장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또 최재붕은 이형우(李亨雨), 김병호(金秉鎬), 전재만(田在滿), 유봉우(劉奉祐), 서성윤(徐成允)에게 각 5~6매씩을 주어 그날 밤에 용안, 여산, 함열, 웅포, 와리에 배포하게 하였다.[314]

전북 익산군 황화면 황화정리에 거주하는 박영진(朴永鎭, 64세)과 동소에 거주하는 정대원(丁大元)은 1919년 3월 2일 황화정리의 오덕인(吳德仁)의 집에서 익산군 함열면 와리의 함열교구장 최재붕(崔在鵬)의 부탁으로 왔다는 김병호(金秉鎬)로부터 독립선언서 7통을 받았다. 당일, 정대원은 독립선언서 1매를 황화정의 김영재(金永在)의 집 앞 도로에, 박영진은 그 6매를 여산 읍내의 각처에 산포하였다.[315] 전북 익산군 황화면 마전리 거주 고총권(高寵權, 56세)도 1919년 3월 3일 여산면 여산리 노상에서 독립선언서를 산포하였다.[316]

전북 익산군 웅포면 대붕리 거주 이형우(李亨雨, 35세)는 3월 2일 함열면 와리의 함열교구장 최재붕으로부터 독립선언서 5매를 받고, 그로부터 익산군 용안 읍내에 비밀리에 산포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웅포면 대붕리에 오는 도중 3개소에 3매를 산포하였고, 용안 읍내에 2매를 산포하였다.[317]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출신으로 옥구교구장으로 활동하던 이유상(李有祥)은 3월 2일 익산에 가서 익산교구장 이중열로부터 독립선언서 약 100매를 받아서 옥구에 돌아왔다. 그는 옥구교구실에서 최공훈(崔公勳), 노춘만(盧春滿), 신관순(申官順), 김종수(金鍾洙)에게 각각 독립선언서 20매를 주어 할당 구역에 붙이도록 하였다. 전북 옥구군 회현면 증석리에 거주하던 노춘만은 옥구 읍내에 독립선언서 20매를 산포(散布)하였고, 신관순도 옥구의 2개소에 배포하였다.[318]

김제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사람은 전 김제교구장 이풍이였다. 그는 3월 2일 익산교구장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김제면 옥산리의 김제교구장 공문학(孔文學)에게 전달하였다. 김제교구장 공문학은 3월 2일 김제교구실에서 안백균에게 독립선언서 3매를 주었다. 그러자 안백균은 죽산면 옥성리에 거주하는 김봉빈(金鳳彬, 鳳周, 27세)에게 1매를 주어 배포하게 하고, 자신이 노상에 1매를 배포하고, 부량면 면사무소에 1매를 투입하였다. 김봉빈은 죽산면에 갖고 와 죽산면의 교인들에게 독립선언의 소식을 알리고, 다음날인 3월 3일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조영필(趙英弼)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내어 그의 동참을 권유하였다.[319]

한편 전주교구의 금융원 김진옥은 3월 1일 오후 임실교구장 한영태(韓永泰)에게 독립선언서 200매를 전달하였다. 이에 임실교구장 한영태는 3월 2일 임실면 성가리의 천도교구에서 임실군 둔남면 대명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박판덕(朴判德)에게 독립선언서 2매를 주어 거주하는 마을에 게시케 하였다. 그리고 한영태는 임실 임실면 성가리에 거주하는 강계대(姜啓大, 36세)

---

313) 「이형우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05.10.) 내 <이유란의 이중열 신문조서, 송일성 신문조서>.
314) 「이형우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05.10.) 내 <이유란의 최재붕 신문조서>.
315) 「박영진·정대원판결문」(전주지청, 1919.04.18.). 「박영진·정대원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05.13.).
316) 「고총권판결문」(전주지청, 1919.07.04.). 고총권은 태90도를 받았다.
317) 「이형우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05.10.).
318) 「이유상수형인명부」(목포지청, 1919.03.07.). 「노춘만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05.12.).
319) 「김봉빈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06.05.).

에게 9매,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의 전교사 한준석에게 수십매, 청웅면 구고리의 전교사 최양옥(崔良玉)에게 수십매, 오천면 선천리의 전교사 우성오(禹成五, 40세)에게 18매, 성수면 오봉리의 황성진(黃成瑱)에게 8매를 배부하여 거주하는 면의 중심지에 배포하게 하였다.[320] 이에 박판덕은 둔남면 대명리 외 1개소에, 강계대는 임실면 성가리의 시장과 학교·경찰서·면사무소 앞 등에 게시하였다. 한편 한준석은 운암면 지천리의 전교실에서 운암면 선거리에 거주하는 전교사 김영원(金榮遠, 67세)에게 독립선언서 20부를 전달하여 운암면의 입석리, 선거리, 학산리의 한복판에 게시하게 하였다. 최양옥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청웅면 구고리의 박성근(朴成根, 59세)은 자신의 장남 박원엽(朴元葉)으로 하여금 청웅면 구고리의 면사무소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성수면 오봉리의 황성진은 면사무소 등 8개소에 부착하였다.[321]

전북 순창에서는 순창읍 출신으로 서울의 보성고보에 재학 중이던 우치홍이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전달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는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독립선언서 200장과 『독립신문』 150장을 갖고 열차를 타고 이리역에서 하차한 후 전주, 진산, 무주, 진안, 임실 등지의 천도교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에서 헌병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322]

남원지역에는 3월 2일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3월 2일 새벽 임실군 오수리에 거주하는 남원교구 전교사 이기동(李起東)은 남원군 임내면 사율리 거주 이기원, 황석현(黃錫顯), 황동주(黃東周)를 시켜 독립선언서를 남원교구에 전달하게 하였다.[323] 이에 이기원은 다른 한 명과 3월 2일 오전 9시 경 남원군 남원읍 금리에 위치한 남원교구에 가서 유태홍에게 독립선언서 40매를 전달하였다.[324] 남원교구장 유태홍은 독립선언서를 받은 그 날 오전 이백면 남계리 거주 유석(柳錫, 柳宗錫, 30세, 농업), 산내면 대정리 거주 김성재(金性在, 46세, 농업)외 6명에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알려주고 밤을 틈타 요소요소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유석과 김성재는 독립선언서 9매를 수령하여 최병현(崔炳鉉)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의 게시판 및 8개소에 각 1매씩 게시하였다.[325]

남원군 남원읍 외의 면·리와 인접한 군에는 인명 미상의 6명이 독립선언서 31매를 전달하였던 것 같다. 최병현은 유태홍의 지시를 받아 순창, 장수, 무주, 진안, 광주 등지의 천도교인에게 서울의 동향을 전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준비케 하였다고 한다.[326] 최병현은 남원군 대산면 옥율리에 거주하는 박기영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327]

전북 장수군 천도교구에는 남원군 보절면 성시리 거주 장경일(張京日)에 의해 전달되었다. 그는 3월 2일 오후 6시 경 장수면 장수리 소재 천도교구실에 가서 천도교인 최영식(崔永植, 21세, 농업)에게 독립선언서 12매를 전달하고 당일 밤 안에 읍내 요소에 붙이라고 지시하였다. 최영식은 장수리 거주 교인 신동문(辛東聞, 26세, 농업)·장재만(張在萬, 25세, 농업)과 함

---

320) 「박판덕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04.16.), 「강계대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04.), 「박성근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09.), 「우성오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30.), 「황성진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21.), 『독립운동사자료집』 5, 1486-1492쪽.

321) 「박판덕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19.04.16.), 「강계대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04.), 「박성근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09.), 「우성오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30.), 「황성진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21.), 『독립운동사자료집』 5, 1486-1492쪽.

322) 『독립운동사』 3, 1971, 514-515쪽

323) 『독립운동사』 3, 1971, 537쪽.

324) 「유태홍 외 2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919.04.08.),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508쪽.

325) 「유태홍 외 2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919.04.08.),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508쪽.

326) 윤영근, 「근대사의 파도를 온몸으로 실어낸 지도자-남원 항일운동의 선각자 유태홍」, 『남원항일운동사』(남원시, 1999),

327) 「비밀결사 대한국민회원의 검거」(1920.12.1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내지 10』

께 장수교구장 박영춘(朴永春, 61세)을 찾아가 독립선언서와 지시를 전하였다. 그러자 박영춘은 독립선언서를 살펴본 후 최영식에게 7매, 신동문에게 3매, 두산리에 거주하는 양일표(梁一杓)·빈영섭(賓永燮)에게 각 1매를 주어 중요지점에 게시케 하였다. 이에 최영식은 그 날 밤 장수면 용계리의 게시장 및 6개소에 첨부하였다. 신동문·장재만은 3월 3일 새벽 계내면 면사무소의 게시판 및 2개소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양일표·빈동섭은 천천면 면사무소의 게시판 및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한 곳에 이를 붙였다.[328]

남원교구장 유태홍은 사위인 김종웅(金鍾雄)으로 하여금 전남 구례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김종웅은 1919년 3월 2일 박흥래의 집에 가서 허탁, 박흥래, 강정택, 박성래, 서유종, 강철수, 김공현 등 7명에게 독립선언서 13매를 주고 배포를 부탁하였다. 이에 김공현과 허탁은 구례군 내산면 외산면, 박흥래와 강정택은 구례군 용방면과 광의면, 박성래와 서유종은 구례군 토지면과 구례면을 담당하도록 정하였다. 그 후 김공현은 2일 밤 내산면 면사무소 게시판에, 허탁은 신갑도와 임양순에게 말하여 외산면 면사무소와 원촌헌병주재소 게시판에 붙이게 하였다. 박흥래와 강경택은 광의면과 용방면의 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 박성래와 서유정은 구례군청과 토지면 면사무소 게시판, 구례면 봉북리 김윤승 소유의 바각, 동면 봉남리의 한인 가옥 대문에 독립선언서를 붙였다.[329]

전남 순천군에는 김종웅과 윤상윤에 의하여 3월 2일 밤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김종웅과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의 윤상윤(尹相鈗)은 3월 2일 밤 순천군 순천면 저전리(楮田里)의 천도교구에 도착하여 교구장 박낙양(朴洛陽)이 부재중이자 교구장 대리 강형무(姜瑩武)에게 독립선언서 35매를 주었다. 그리고 윤자환은 여수군 내, 윤상윤은 순천군 황전면 괴목리와 구례 군내, 김희로는 광양군 광양읍내, 강형무는 순천군 순천면 내에 배포하기로 정하였다.[330] 윤자환은 그날 밤 독립선언서 1매를 순천군 해룡면사무소에 붙였다.[331]

한편 윤자환은 3월 2일 독립선언서 1매를 여수읍 여수경찰서의 게시장에 붙이고, 나머지 3매를 여수군 율촌면 취적리 강석재(姜錫才)에게 주었다. 또 강형무는 3월 2일 밤 독립선언서를 순천군 순천면 면사무서와 순천헌병분대, 순천군청의 각 게시장, 기타 순천 읍내의 동서남북의 각 문통에 붙였다. 김희로는 동일 밤 광양군 광양보통학교와 광양면사무소의 게시장과 광양읍 서문 밖에 각각 1매를 붙였다.[332]

4.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만세운동 전개

1919년 3월 초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전파 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전주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3월 2일 오전 7시 경 이리에서 승차하여 대전을 거쳐 부강(芙江)에서 하차한 후 자동차로 오후 3시 경 청주에 도착한 인종익이 관헌에게 체포되어 사실을 진술한 때문으로 짐작된다.[333] 둘째 조선총독부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328) 「박영춘 외 5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919.04.08.),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508-1509쪽.
329) 「허탁 외 8인 판결문」(순천지청, 1919.04.04.).
330) 「윤상윤 외 5인 판결문」(순천지청, 1919.04.26).
331) 「윤상윤 외 5인 판결문」(순천지청, 1919.04.26).
332) 「윤상윤 외 5인 판결문」(순천지청, 1919.04.26).
333) 「인종익 신문조서」(1919.03.11.), 국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90.

거점인 전라도의 천도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3월 초 천라도의 지도자들이 대거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윤상윤은 3일 염현두(廉鉉斗)와 순천군 황전면 괴목리와 구례군 내에 독립선언서를 붙이려고 가던 중, 순천군 서면 동산리에서 일 관헌에게 검거되어 독립선언서 9매를 압수당하고 말았다.[334] 그리고 김제 천도교인 공문학 김봉빈 안백균 등은 죽산면, 부량면 등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3월 6일 검거되었다.[335] 또 정읍의 천도교인 박정규(朴正奎)와 이익겸(李益謙)도 3월 25일 일경에 체포되어 전주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한다.[336]

전라도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천도교인이 3월에 체포되었고, 이들이 계획한 시위가 소기의 경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은 다음 <표 3>의 1심 판결일시와 이들의 형량에서 추정된다. 즉, 전라도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천도교인은 대체로 1919년 4월,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1심 재판을 받은 점에서, 이들이 3월 독립선언서 배포 직후에 체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형량이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에 불과한 점에서 이들이 계획한 시위가 큰 시위로 번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전라도 3·1운동 참여 천도교인의 체포일시와 1심법원 재판일시[337]

이름	거주지	체포 일시	1심법원	1심 재판 일시	최종법원	형량
김태경	전북 전주 소양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04.18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
서호순	전북 전주 상관		전주지청	1919.04.16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
유원	전북 전주 소양		전주지청	1919.04.16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
유선태	전북 전주 우림		전주지청	1919.04.04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
박판덕	전북 임실 둔남		전주지청	1919.04.16		징역 10월
강제대	전북 임실 임실		전주지청	1919.04.04	고등법원	징역 1년
김영원	전북 임실 운암		전주지청	1919.04.07	고등법원	징역 1년
최양옥	전북 임실 청웅		전주지청	1919.04.09	고등법원	징역 10월
우성오	전북 임실 오천		전주지청	1919.04.07	고등법원	징역 1년
황성진	전북 임실 성수		전주지청	1919.04.21	고등법원	징역 1년
박영진	전북 익산 황하		전주지청	1919.05.12	대구복심법원	징역 8월
정대원	전북 익산 황하		전주지청	1919.05.12	대구복심법원	징역 8월
김봉빈	전북 김제 죽산		전주지청	1919.05.14	대구복심법원	징역 10월
안백균	전북 김제 부량		전주지청	1919.05.14	대구복심법원	징역 8월
유태홍	전북 남원 이백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919.04.08		징역 1년
유석	전북 남원 산내		남원지청	1919.04.08		징역 6월
박영춘	전북 장수 장수		남원지청	1919.04.08		징역 1년
최영식	전북 장수 장수		남원지청	1919.04.08		징역 6월
신동문	전북 장수 장수		남원지청	1919.04.08		징역 6월
장재만	전북 장수 장수		남원지청	1919.04.08		징역 6월
양일표	전북 장수 장수		남원지청	1919.04.08		징역 6월
윤상윤	전남 구례 구례	1919.03.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19.04.26		징역 6월
윤자환	전남 여수 화양		순천지청	1919.04.26		징역 6월
강형무	전남 순천 순천		순천지청	1919.04.26		징역 6월

다음 <표 4>의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 전북의 시위 중 천도교인이 주도한 것은 3월

334) 「윤상윤 외 5인 판결문」(순천지청, 1919.0-4.26).
33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530-532쪽.
336)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907쪽.
33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국가기록원 소장 판결문.

13일의 전주 시위였다. 전주의 천도교인은 학생, 기독교인과 1,500명의 군중을 이끌고 비폭력적인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338] 천도교인 배상근·김진옥 등은 3월 13~14일 전주 남문시장 주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전주의 천도교구에서는 독립선언서 3,000장을 등사하여 군중에게 배포하였다고 한다.[339]

<표 4> 전라북도의 지역별 3·1운동 관련 내용(1919년 4월 말 조사)[340]

일자	소요장소	폭행	무폭행	미연방지	소요인원	소요자별	검거인원	소요지관할	死傷
03.13	전주군 전주면		1		1,500	학,천,야,보	2	경	
03.14	전주군 전주면		1		300	학,야,보	16	경	
03.16	정읍군 태인면		1		150	보	36	헌	
03.17	임실군 청웅면			1					
	익산군 웅포면			1					
	김제군 금구면			1					
03.19	고창군 고창읍		1	1	200		2	헌	
	장수군 산서면								
03.21	전주군 봉동면			1					
	고창군 무장면		1		50	학,보	3	헌	
03.22	장수군 반암면			1					
03.23	김제군 김제읍			1					
	임실군 갈담시장			1					
	임실군 둔남면	1			1,500	보	54	경	상1
	금산군 금산면		1		150	보	2	헌	
03.25	금산군 제원면		1		200	보	2	헌	
03.28	고창군 흥덕면			1					
03.31	금산군 복수면		1		200	보	9	헌	
	진산군 진산면		1		200	보		헌	
04.03	남원군 사매면	1			500	보	9	헌	
04.04	익산군 이리	1			300	야,보	17	헌	사4, 상3
	남원군 남원읍	1			1,000	보	6		사5, 상5
04.06	임실군 신덕면			1					
04.07	임실군 성수면			1					

그리고 천도교인들은 3월 23일 임실군 둔남면 오수시장의 독립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날은 장날이었는데 천도교인들은 기독교인 및 보통학교 학생 등과 1,500명의 군중을 이루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당시 진압하는 일본 경찰은 총검으로 제지하고, 구타를 행하여 부상자가 1명이 발생하고, 54명이 검거되었다. 천도교인으로는 박영창(朴永昌)과 임한경(任漢京)이 구금되었다고 한다.[341]

정읍에서는 3월 23일 정읍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천도교인들이 기독교인과 합세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지역의 천도교인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여 교인 등에게 배포하던 중 3월 22일 발각되었지만 다음날 시장에서 100여명의 군중과 시위를 전개하였다.[342]

순창에서는 3월 20일 밤 천도교인들이 순창읍 뒷산에서 산상시위를 하였다. 노병화 등의 천

338)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901쪽.
33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496-500쪽. 이병헌, 『3·1운동비사』(시사시보사, 1959), 901쪽
340)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삼일운동편 其Ⅰ, 1977. 395-396쪽.
341)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905쪽.
34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511-512쪽.

도교인들은 일반 주민과 200명의 군중을 이루어 횃불을 들어 기세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 후 10여명의 천도교인이 구속되었다고 한다.[343]

전북 익산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던 박영진, 정대원, 고총권 등이 체포되었으나 다른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최제우의 순도일인 3월 10일(음력 2월 9일)에 여산읍의 헌병분견소 등지에서 '조선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휘두르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344]

전북 김제에서는 천도교인 공문학, 김봉빈, 안백균 등은 죽산면, 부량면 등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3월 6일 검거되었다. 3월 20일 김제군의 동남부 수류면 원평리의 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와 4월 4일 만경면 만경리 시장에서 전개된 시위에 천도교인들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북 부안에서는 3월 30일 부안읍에서 전개된 시위에 다수의 천도교인들 참여하였다고 한다.[345]

또 천도교인들은 4월 4일 남원읍의 광한루 앞 광장에서 기독교인 및 일반인과 함께 1,000명의 군중을 이루어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 군중이 남문으로 들어오자 헌병과 수비대가 발포하여 사상자 5명이 발생하고, 부상자 7명이 발생하였다.[346]

장수에서는 장수교구장 박영춘이 검속을 당했지만 교구 교인들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최영식·신동관·장재만·양일표·빈영섭 등은 산서면의 박화년·유동열 등과 협의를 하여 3월 26일 산서면 오성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347]

다음의 <표 5>와 같이 전남에서 천도교인이 주도한 시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천도교인은 일반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전남의 각 지역의 독립만세시위에 동참하였다. 전남 고흥에서는 3월 15일 천도교인 송연섭(宋年燮)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수백명의 군중과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일 전남 장흥에서는 김재계(金在桂)와 김재반(金在班)이 선두에 서고, 황생주(黃生周)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황업주(黃業周)가 연락을 취하며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고 한다. 또 4월 10일 해남에서는 천도교인이 기독교인 등과 읍내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348]

<표 5> 전라남도의 지역별 3·1운동 관련 내용(1919년 4월 말 조사)[349]

일자	소요장소	폭행	무폭행	미연방지	소요인원	소요자별	검거인원	소요지관할	死傷
03.10	장성군 사창			1					
	장성군 약수			1					
	광주군 광주		1		300	야,학	88	경	
03.11	광주군 광주		1		300	야,학	4	경	
03.13	순천군 순천읍			1					
	화수군 능주읍			1					
03.14	영광군 영광읍		1		120	학	5	경	
03.15	영광군 영광읍		1		550	학,보	13	경	
03.16	순천군 순천읍			1					
	함평군 함평읍			1					

34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512-513쪽.
34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512-513쪽.
34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530-532쪽.
346)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905쪽. 이 자료에서는 사상자가 방명숙 외 7명이고, 중상자가 10여인이라고 되어 있다.
34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545쪽.
348)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914-916쪽.
349)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삼일운동편 其Ⅰ, 1977. 397-399쪽.

03.18	담양군 담양읍			1					
03.20	무안군 외읍면		2		150	학,보	49	경	
03.26	곡성군 곡성읍			1					
03.27	영광군 영광읍			1					
03.29	광양군 인덕면			1					
03.30	영광군 법성포			1					
04.03	장성군 모현리		1		200	보	4	헌	
04.04	장성군 사가리		1		200	보	8	헌	
	강진군 강진읍		1		500	학,야,보	13	경	
04.06	해남군 해남시장			1					
04.07	완도군 완도면			1					
04.08	광주군 광주읍			1					
	함평군 문장	1			50	보	20	헌	
04.10	영광군 군서면		1		350	학,보	1	헌	
04.12	함평군 함평읍			1					
	화순군 동복			1					
04.13	순천군 약안시장	1			50	보	8	헌	상4
04.14	광양군 진월면			1					

5. 전라도 천도교인의 제2차 독립만세운동

3·1운동 후 전라도의 천도교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여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전북 남원의 박기영, 전주의 김영호·박양근·송영섭은 1919년 8월 서울에서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해 활동하였다. 특히 박기영 등은 1919년 12월 이량, 양재명 등과 고종황제의 제사 1주기를 맞아 '읍궁사(泣弓辭)'라는 격문 1,000매를 등사하여 경성부 내에 배포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 1920년 3월에는 <대한독립기념경고문> 20,000매 를 제작하여 경성부와 전국에서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려고 하였다.[350]

1919년 8월 초순 전북 남원의 박기영은 경성부 간동 75번지의 하숙집에서 이충모(李忠模), 김형준(金炯俊), 양재명(楊在明)과 회합하여 조선의 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를 조직하고 그 본부를 경성부(京城府)에 두었다. 그는 대표로서 총무부, 외교부, 재무부 등을 조직하고, 이량(李亮)과 이동욱(李東旭) 등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는 장병준(張炳俊)을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파견하여 연락을 취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보낸 문서를 동지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는 1919년 12월 17일 고종황제의 1주년 제사를 기하여 이량, 양재명 등과 '읍궁사(泣弓辭)'라는 격문 1,000매를 등사하여 제식이 집행되는 20일 경성부 내에 배포하였다.[351]

이어 박기영은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기념 시위를 전개하기 위하여 2월 24일 이동욱과 청량리 유진상(兪鎭商)의 집에서 「대한독립기념경고문」 20,000매를 제작하여 대한국민회의 일원인 김영호와 대전·대구·마산·목포 등지에 거주하는 동지에게 각 50매씩 보내어 3월 1일을 기하여 배포하게 하였다. 3월 1일 당일 그는 이동욱 외 동지와 축하경고문 천수백장을 경성부 내에 배포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무렵 1919년 가을 박기영의 권유로 대한국민회에 가입하여 전주군 전주면 다가산에서 이창수(李昌洙) 외 수명과 협의하여 대한국민회 지부를 전주에 설립하고 자신이 재무부장으로 활동 중이던 김영호는 박기영으로부터 우송된

350) 「박기영 외 4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22.02.15.).
351) 「박기영 외 4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22.02.15.).

「대한독립1주년기념경고문」 50매를 받아 1920년 3월 1일 전주시내에 배포함으로써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키려고 하였다.[35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던 박기영은 1920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보낸 군령과 애국금납입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는 간동 송영섭(宋寧燮)의 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보낸 군령과 애국금납입통지서를 김영호에게 주어 대한국민회의 독립운동 선전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김영호는 전주군 대화정에 거주하는 장봉한(張鳳翰)에게 동지 장막종(張千鍾)을 소개하고 군자금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장봉한은 1920년 10월 21, 22일 경성부 관훈동에서 애국금 850원을 제공하였다. 송영섭(宋寧燮)은 1920년 7월 28일 경 경성부 간동 13번지 조동승(趙東昇)의 하숙집에서 김영호의 소개로 박기영을 만나 대한국민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령과 애국금납입통지서 1매를 받아 애국금 모집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송영섭은 1920년 8월 경 천도교구실에서 친구인 박양근에게 권유하여 동지로 참여시킨 후 그와 함께 애국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353]

노춘만은 1921년 음력 3월 하순 경 전북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의 천도교구실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파견원이라는 신정산(申定山)을 만나 그의 권유로 독립사상을 선전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맹하고, 조선독립운동가맹서약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조선독립에 관한 취지서」와 「조선독립운동가맹서약서」를 받아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에 진력하였다. 그는 동월 옥구군 대야면 복교리의 김유중(金有重)을 찾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현금 40원을 수취하였다. 그리고 노춘만은 1921년 음력 4월 상순 김유중과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의 양문옥(梁文玉)을 찾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와 독립운동자금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 후 4월 하순 김유중은 천도교구실에서 양문옥에게 다시 권유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가맹 서약서를 받고 독립운동자금 50원을 출자할 약속을 받았다.[354]

6. 맺음말

동학농민운동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전라도의 동학인들은 1905년 12월 1일 천도교의 창시 이후 천도교구를 정비하고 포교활동을 벌여 교세를 신장하였다. 전남에는 장성·순천·강진 3곳에 대교구가, 주변 군과 면의 20곳에 교구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전북에는 전주·익산에 대교구가, 그 주변의 군과 면에 17곳의 교구가 설치되었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유사종교』에 따르면 1918년 경 전라도의 천도교인수는 전남이 5,583명, 전북이 5,583명, 총 11,166명이었다. 물론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에 박준승, 양한묵은 중앙총부의 도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3·1운동 당시 전라도 출신의 박준승과 양한묵은 천도교의 민족대표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전라도에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지침을 주어 전라도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되도록 하였다.

전라도에는 보성사 인쇄원 인종익에 의해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인종익은 1919년 3월 1일 정오 무렵 전주교구에 도착하여 배상근과 금융원 김진옥, 전주교구장의 사위 이원규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이들의 활동에 의하여 전북의 남원, 임실, 익산, 옥구, 함열, 김제, 무주, 정읍, 태인, 순창, 금산 등지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또 김종웅·윤상윤·윤자환·강형무 등의 활동에 의하여 전남의 순천, 여수, 광양 등지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352) 「박기영 외 4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22.02.15.).
353) 「박기영 외 4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22.02.15.).
354) 「노춘만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23.03.26.).

그러나 일제의 천도교회와 천도교인에 대한 감시로 인해 독립선언서의 배포 책임자가 조기에 체포되고 말았다. 전주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인종익이 3월 2일 오후 청주에서 체포됨에 따라 전모가 밝혀졌다. 그리고 구례의 윤상윤과 윤자환 등 전라도 천도교 지도자 20여 명의 검거가 뒤를 이었다.

그 결과 전라도에서는 3~4월 천도교 주도의 큰 시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3월 13일 전주에서는 천도교인이 학생, 기독교인과 1,500명의 군중을 이끌고 남문시장 주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또 전라도의 천도교인은 전북의 임실, 정읍, 순창, 익산, 김제, 남원과 전남의 고흥과 장흥과 해남 등지에서 기독교인 및 학생 등과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3·1운동 직후 전라도의 천도교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여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전북 남원의 박기영, 전주의 김영호·박양근·송영섭 등은 1919년 8월 서울에서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였다. 박기영 등은 1919년 12월 이량, 양재명 등과 고종황제의 제사 1주기를 맞아 '읍궁사(泣弓辭)'라는 격문 1,000매를 등사하여 경성부 내에 배포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 1920년 3월에는 <대한독립기념경고문> 20,000매를 제작하여 경성부와 전국에서 배포하고 제2차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토론 6

「전라도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독립만세운동 전개(1919~1920)」에 대한 토론문

박 대 길 (전북대학교)

「동학 천도교 그리고 3·1운동 학술대회」에 함께할 기회를 주시고, 특히 조규태 교수님의 발표 글에 토론을 맡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정이 있듯이, 조규태 교수님께서 이 글을 작성하시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조 교수님께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의 제목(주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다 알다시피 호남이라고도 하는 전라도는 현재의 전남과 광주, 그리고 전북과 제주도를 포괄하는 지명이었습니다. 1018년 전주와 나주에서 취한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이후 1896년까지 876년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89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공식적인 행정지명은 아니고, 전통적인 정서에 따라 1896년 이전 상황을 가리키는 지명이자 용어입니다. 따라서 조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글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제주도가 아예 제외된 지역적 범위와 시기를 놓고 볼 때, 「전북지역 천도교인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독립만세운동 전개」로 하는 것이 적당할 듯 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1894년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새삼스레 운동이냐 혁명이냐 전쟁이냐를 두고 논쟁할 것은 없습니다. 1894년 대사건의 시기를 1894년 1월부터 주요 지도자들이 순국하는 1895년 3월로 본다면, 사건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짓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기를 '운동'[혁명 또는 봉기])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2차 시기를 운동이라 규정하는 것은 2차를 시작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구호와 목적이 대일항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894년 사건을 '운동'이라고 하려면, 전시기를 통칭하는 것이 그나마 논란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1차와 2차를 구분하면서 2차를 운동으로 규정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오독(誤讀)할 여지를 없애는 의미에서, 읽는 이를 위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요즘 한창 달아오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추진과 맥락을 같이한다면, 1차를 운동이라 하더라도 2차는 운동보다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1905년 이후 동학을 천도교로 하고, 조직과 체계를 다지면서 교세를 확장하던 시기, 전라도 천도교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북과 전남의 상황이 좀 다른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얼핏 전북은 손병희를 중심으로 하는 총부에 긍정적이었던 비해 전남은 부정적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토론자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리고 1914년 천도교세를 설명하면서 전남과 전북을 묶어 전라도라 한 반면, 충남과 충북, 평남과 평북, 경남과 경북 등은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도의 천도교세는 평안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센 편이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1908년 교리강습소 운영 현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898년 '전라북도' 관찰사였던 이완용을 두고, '전라도' 관찰사로 오인(誤認)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1918년 전라도 천도교세를 보면, 전남과 전북의 교인 숫자가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숫자가 5,583명으로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남과 전북의 대교구와 교구의 수가 다른 것은 교도수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또는 지역적 안배에 따라 대교구와 교구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583명이라는 동일 숫자가 우연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1919년 전남이 704명, 13%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1,386명 24%라는 대단히 아주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 듯 한데, 이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요? 만일 이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가 없다면, 위 교세 통계표는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33인 중의 한 분으로 참여한 박준승에 대해서 "1894년 도접주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박준승은 1891년[또는 1890년] 동학에 입교하였다, (중략) 1892년 박준승은 교조 최제우의 교조신원운동에 참가하였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또한 박준승은 1896년에 동학 접주가 되었고, 1897년 수접주(首接主)로 격상되었다."라고 정리됩니다. 따라서 '도접주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라는 내용은 근거 제시가 필요할 듯 합니다.

전남과 전북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실질적인 3·1만세운동 참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종익이 전주로 가지고 온 2,000매 중 전주 등 전라북도에 1,800매를 배포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0매는 전남이어야 하는데, 전남지역에서는 고작 35매만 그것도 순천·여수·광양에 배포한 것으로 나옵니다. 1919년 통계표에 따르면, 전남보다 2,090명이 더 적은 전북에 선언서 배포가 집중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요? 선언서 배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인종익의 체포와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검거된 까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도자들이 대거 검거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고 그중 2건은 전북, 1건이 전남입니다. 그런데도 2,000여 명 이상의 교도가 더 많은 전남보다 전북에 집중적으로 선언서가 배포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전라도 천도교인의 제2차 독립만세운동」은 대한국민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1920년 「대한 독립 기념 경고문」을 제시하면서 제2차 독립만세운동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내용 파악이 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남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북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또는 전북 천도교인의 제2차 독립만세운동」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듯 한데, 이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맺음말에서 "3·1운동 당시 전라도 출신의 박준승과 양한묵은 천도교의 민족 대표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전라도에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지침을 주어 전라도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되도록 하였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선언서 배포와 만세운동의 확산을 전북은 박준승, 전남은 양한묵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북은 박준승의 지침에 따라 선언서 배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전남은 양한묵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지침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